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1622-01

<http://rri.ekr.or.kr>

농어촌활성화센터의 모델 정립 연구

A Study on the Model for
Rural Revitalization Center in Korea

2012. 12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어촌활성화센터의 모델 정립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년 12월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연구책임자 : 임상봉

연구원 : 박윤희

공병수

심고은

이영

위촉연구1 : 강원대학교

연구책임자 : 김기성

연구원 : 송운강

박남원

우원희

위촉연구2 : 공주대학교

연구책임자 : 양병찬

연구원 : 배성의

정남수

전광수

장우석

최종성

요 약 문

1. 연구과제명 : 농어촌활성화센터의 모델 정립 연구

2. 연구기간 : 2012년 2월 ~ 2012년 12월

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정부는 농어촌지역의 인구와 소득 감소로 인한 활력 저하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어촌활력운동과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정책을 도입하여 마을협의체의 구성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포럼의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이와 연계하여 농어촌의 재생 및 활성화의 일환으로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추진함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3.2 목 적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1년에 새로 도입한 농어촌활력운동과 색깔있는 마을만들기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주민의 역량강화와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와 민관 파트너십 구축 및 효과적인 혁신 창출과 확산 방안을 제시

4. 연구내용 및 결론

4.1 연구내용

- 1)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의의와 역할
 -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의의 및 관련 이론
 -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정의 및 필요성
 - 농어촌활성화지원센터의 모델과 주요역할

- 2) 국내외 유사사례
 - 국외 유사사례
 -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사례 제시
 - 국내 유사사례
 - 사회적 기업 및 자활센터
 - 국내 지역별 유사사례
- 3)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시범운영 사례
 - 강원도 시범운영 사례
 - 충청도 시범운영 사례
- 4)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조직과 운영모델
 -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조직구성과 운영모델 제시

4.2 연구결과

1)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의의와 역할

- 농어촌활성화센터는 농어촌 지역 발전의 원천인 혁신의 창출과 확산을 지원하여 지식 기반 자본(KBC: knowledge-based capital)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일종의 중간지원 거점조직임.
- 최근 농어촌지역개발 방식으로 상향식과 하향식이 통합된 네트워크형 종합개발이 강조되면서 수평적, 수직적 거버넌스를 촉진할 수 있는 중간매개자 역할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음.
- 농어촌활성화센터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함께하는 우리농어촌운동」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가능함.

2) 국내외 유사사례

- 미국 농촌지도사업과 영국의 농촌개발프로그램을 모델로 하여 상향식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역주민 및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 부족과 지역주민의 참여도 부족, 마을공동체 활력저하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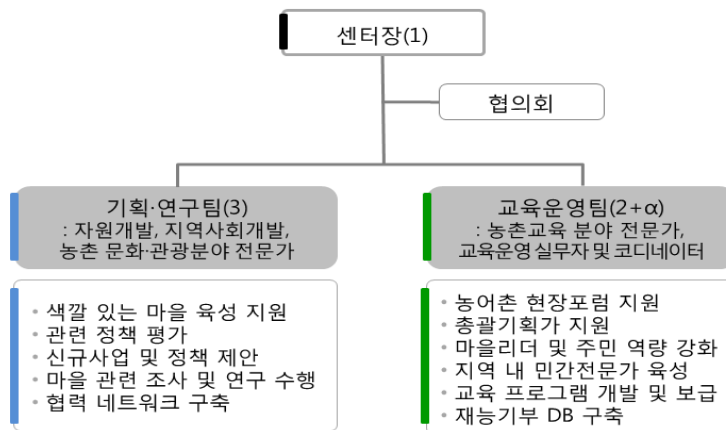
- 그 외 다양한 국외 사례 및 국내사례를 통해 농어촌활성화센터에 필요한 운영방안 및 내용 등을 도출하여 제시함.

3)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시범운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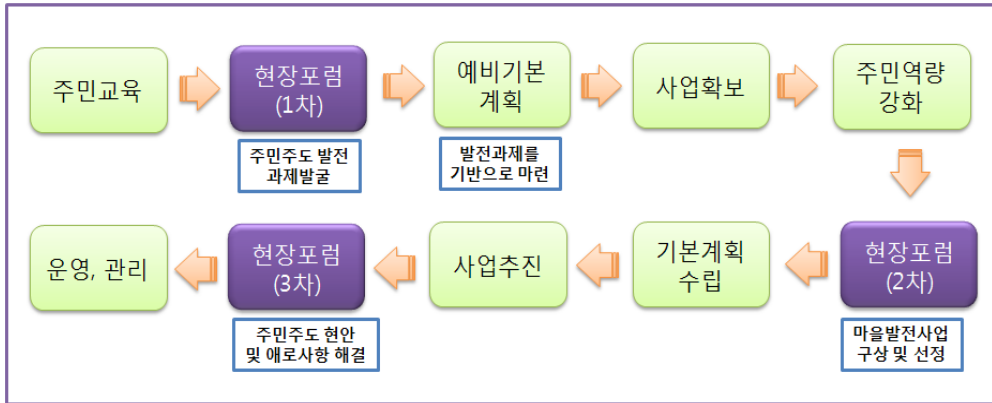
- 강원도와 충청도의 시범운영사례 분석 결과, 각각의 마을에서 마을주민들의 의식 및 역량제고 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포럼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됨.
- 현장포럼 운영시 고려하여야 할 점으로는 ① 주민 개개인의 역량 차이를 고려한 수준별 포럼 기획, ② 현장포럼의 지속성의 필요 등이 도출됨.

4)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조직과 운영모델

-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별 특색을 갖춘 마을발전과 농어촌 핵심주체 양성, 지역(권역)단위 공간중심의 발전기반 구축 등을 위해서는 지역발전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성을 가진 지역별 대학(연구기관, 농어촌공사), 지자체, 중앙정부, 관련기관 등이 유기적인 협력지원체계를 갖추어 지역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조직과 운영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그림 1)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조직



(그림 2)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단계별 현장포럼 운영방안

5. 연구결과의 실용화 방안

- 2013년 ‘거점별 농어촌 활성화 프로그램’ 예산 반영
- 농어촌현장포럼 및 현장활동가 육성 등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농어촌활성화센터 사업모델 제시
- 다양한 마을의 자원을 발굴하여 농어촌 지역주민과 도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효율적 추진 방안 마련

Summary

1. Title : A Study on the Model for Rural Revitalization Center in Korea

2. Research Period : Feb. to Dec. 2012 (11 months)

3. Necessity and Objectives

3.1 Background and necessity of the study

- Korea's government endeavors to revitalize rural areas by attracting population and by increasing income.
-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MIFAFF) has made rural revitalization movement and village specific development policy and supported to build village partnership and operate community forum engaging various experts.
- In this regards, in order to regenerate and revitalize rural areas, there needs efforts to lessen trial and error, facilitate institutionalization in establishing and operating "rural revitalization centers".

3.2 Objectives of the study

- To give measures to make community empowerment, institution-building, 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effective innovation creation and diffusion in order to assist the MIFAFF's rural revitalization movement and village specific development policies.

4. Contents and Conclusions

4.1 Contents of the study

- 1) Significance and roles of rural revitalization center
 - Significance and related theory of rural revitalization center.
 - Definition and necessity of rural revitalization center
 - Model and major roles of rural revitalization center
- 2) Similar domestic and abroad cases
 - Overseas cases
 - US, UK, Japan, etc.
 - Domestic cases
 - Social enterprises and self-help centers
 - Local NGOs
- 3) Pilot Cases
 - Gangwon Province
 - Chungcheong Province
- 4) Organization and operation model of rural revitalization center
 - Organizational setup and operational model of rural revitalization center

4.2 Results of the study

- 1) Analysis of rural development projects' performances and problems
 - Rural revitalization center is a intermediary regional organization to facilitate to build knowledge-based capital(KBC) by assisting the creation and diffusion of innovations as sources of rural community development.
 - Intermediary roles are newly required for facilitating horizontal and vertical governance with the emphasis on the network-type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combining bottom-up into top-down approaches.

-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 system to effectively assist 'village specific development project' under "altogether rural movement" implemented by the MIFAFF(Ministry of Food, Agriculture, Forest and Fisheries).

2) Domestic and abroad cases

- Implications and measures were drawn to solve such problems as low capacities of community people and local government officers, low participation of villagers in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low level of community vitality based on the analysis of US Cooperative Extension Work and UK rural development program.
- Domestic and other oversea cases offered ideas required for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rural revitalization center.

3) Pilot cases of rural revitalization centers

- The results of pilot case studies in Gangwon and Chungcheong Provinces show community forums have contributed on improving villagers' consciousness and empowerment.
- The community forums need to be continued and differentiated by the community capacity level.

4) Organization and operational model of rural revitalization center

- The rural revitalization center's organization and operational model was suggested.

5. Application Measures of the Results

- Budget for regional rural revitalization program in 2013 has been newly made.
- The program model for rural revitalization center can be utilized for

- operating community forums and bring up local actors.
- The results will contribute to creating local spaces satisfying both rural and urban dwellers by helping capitalizing various village resources.

목 차

1. 서 론	1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3
나. 연구의 목적	4
다. 연구의 범위	5
라. 연구의 방법	5
2.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의의와 역할	7
가. 농어촌지역개발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의 변화	9
1) 새로운 농어촌지역개발 패러다임의 특징	9
2) 우리나라 농어촌지역개발 정책의 최근 동향	13
3) 현행 농어촌지역개발 정책의 한계와 개선방향	19
나.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의의	22
1)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정의	22
2) 농어촌활성화센터의 필요성	22
3) 설문분석결과(현장활동가, 전문가)	22
다. 농어촌활성화센터 관련 주요 이론	29
1) 통합적 농어촌개발	29
2)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농어촌지역개발	30
3) 네트워크 사회와 농어촌개발 거버넌스	33
라. 농어촌활성화센터의 모델과 주요 역할	35
1) 농어촌활성화센터 모델의 정립	35
2)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주요 역할	47
3. 국내외 유사사례	53
가. 국외사례	55
1) 미국 농촌지도사업	55
2) 미국 국립식량농업연구소(NIFA)	59
3) 미국 NERCRD	71
4) 영국 전국농촌네트워크	74
5) 영국의 지역 네트워크 사례	80
6) 일본 사례	88
나. 국내사례	94
1) 중앙부처 중간지원조직	94

2)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108
4.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시범운영 사례	117
가. 시범운영 개요	119
나. 강원도 시범운영 사례	120
다. 충청도 시범운영 사례	153
5.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조직과 운영모델	187
가.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조직개요	189
나.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운영모델	198
6. 결론 및 제언	205
참고문헌	209
부록	213

표 차례

<표 2-1> 새로운 농어촌 패러다임	9
<표 2-2>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의 핵심주체	16
<표 2-3> 핵심주체 교육방향	17
<표 2-4> 마을의 색깔유형	18
<표 2-5> 지식의 유형	33
<표 2-6> 건강한 지역사회의 특징	38
<표 2-7> 지역 주도 계획수립의 세부단계	41
<표 3-1> 농업부문 R&D 수행을 위한 REE의 4개 산하기관	58
<표 3-2> NIFA의 국가지도프로그램	64
<표 3-3> NIFA 연구 내용	65
<표 3-4> 지도활동 영역	66
<표 3-5> NIFA 주요 교육 프로그램	67
<표 3-6> NIFA의 주요업무 목록	68
<표 3-7> NIFA 주요 보조금 유형	69
<표 3-8> AFRI 주요내용	70
<표 3-9> 코디네이터 모집분야	88
<표 3-10> 사회적기업 지원 세부내용	96
<표 3-11> 지역자활센터의 유형별 운영보조금 현황(2010년)	103
<표 3-12> 사회적 기업과 자활기업(공동체)의 비교	107
<표 3-13> 전북 완주군 마을 만들기 추진조직	109
<표 3-14> 전북 진안군 마을 만들기 추진조직	110
<표 3-15> 충남 회향마을만들기 추진조직	111
<표 3-16> 강원 농촌사랑 농도상생포럼	112
<표 3-17> 2011년 까지 포럼개최 실적	114
<표 3-18> 2011년 까지 포럼개최 실적 및 내용	115
<표 4-1> 현장포럼 시범운영방안	119
<표 4-2> 양구군 고대리마을 현장포럼일정 및 결과	120
<표 4-3> 강릉시 북동리 한울타리마을 현장포럼일정 및 결과	121
<표 4-4> 인제군 하추리 산촌버섯마을 현장포럼일정 및 결과	122
<표 4-5> 횡성군 대관대리 개나리마을 현장포럼일정 및 결과	123
<표 4-6> 양양군 서림리 해당마을 현장포럼일정 및 결과	124
<표 4-7> 농림수산식품부 현장포럼 일정 및 결과	125
<표 4-8> 농도상생포럼모델 및 농어촌활성화 현장포럼 비교	127

<표 4-9> 기초수준 농촌마을의 포럼모델	128
<표 4-10> 일정수준 농촌마을의 포럼모델	129
<표 4-11> 농어촌 현장포럼의 기본방향	157
<표 4-12> 충남 농어촌 현장포럼 대상마을 및 일정	158
<표 4-13> 충남 농어촌 현장포럼 설문 내용	159
<표 5-1> 마을 역량 진단 지표 및 내용	190
<표 5-2> 마을 역량 진단 지표 및 내용	190
<표 5-3> 마을 유형 및 수준 구분	191
<표 5-4>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유형별 교육 방향 및 프로그램	194
<표 5-5> 현장활동가 선정 기준	195
<표 5-6> 현장활동가의 영역별 역할	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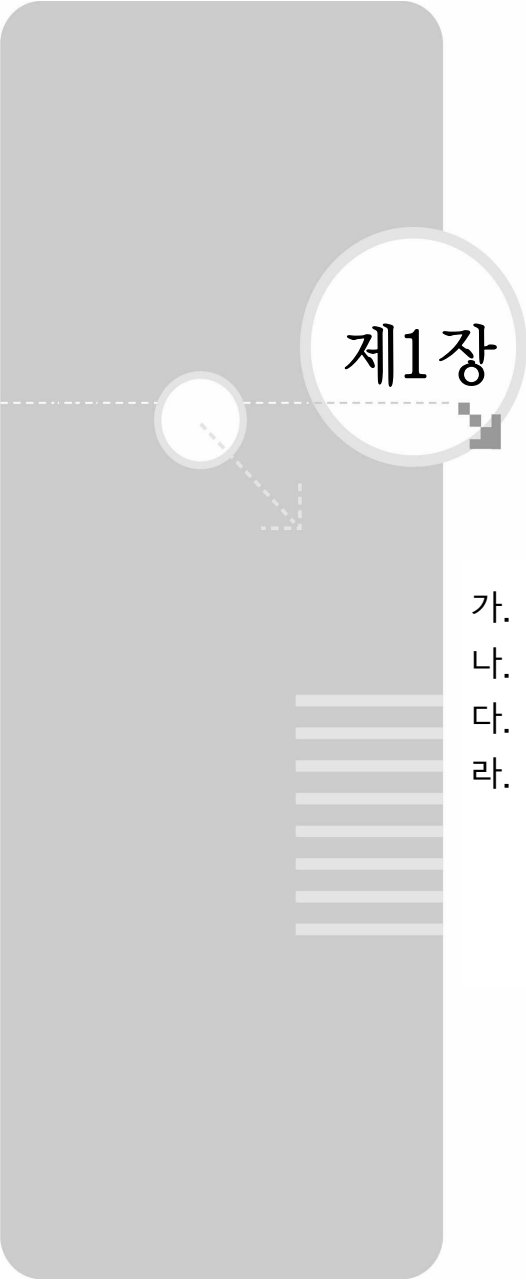
그림 차례

(그림 2-1) 네트워크 조건하에서의 혁신 수용 영향요인	21
(그림 2-2) 현장활동가 설문조사 분석결과	23
(그림 2-3)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결과	25
(그림 2-4) 현장활동가, 전문가의 ‘역량강화가 시급한 곳’에 대한 응답	26
(그림 2-5) ‘전략 및 계획수립에 대한 상시적, 체계적 지원’필요성에 대한 응답	27
(그림 2-6)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 필요성에 대한 응답	27
(그림 2-7) ‘사업전략 및 계획수립’ 전문성에 대한 응답	28
(그림 2-8) DIKW chain	31
(그림 2-9) 농어촌지역개발 영역(아일랜드 사례)	36
(그림 2-10) Carnegie UK Trust 농촌 프로그램	40
(그림 2-11) 지역주도 계획수립의 4단계	41
(그림 2-12)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변화 모델	44
(그림 2-13) 정책과 교육을 통한 농어촌 활성화 모델	45
(그림 2-14)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역할 모델	46
(그림 2-15)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운영 모델	46
(그림 2-16) 마을발전 수준별 주요 실천과제	47
(그림 2-17)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조직구성도	50
(그림 2-18) 입체적 농어촌지역개발모델	51
(그림 3-1) 미국 농림수산식품 R&D 역사	56
(그림 3-2) 미국 농업부 산하 R&D 기관 조직 체계	57
(그림 3-3) NIFA 조직구성	61
(그림 3-4) NIFA 운영시스템 체계	62
(그림 3-5) NIFA의 프로그램 지원자 선정 과정	63
(그림 3-6) NIFA의 Land-grant Colleges & Universities	67
(그림 3-7) ENRD의 조직구조	75
(그림 3-8) 유럽농업기금의 구성	76
(그림 3-9) RDPE 네트워크의 역할	80
(그림 3-10) 북아일랜드의 LAG 클러스터 지도	82
(그림 3-11) 아일랜드 네트워크의 개략적 흐름	87
(그림 3-12) ‘농촌에서 일하는 인재육성’ 사업 사업내용	89
(그림 3-13) 사회연계연구센터 조직 구성	89
(그림 3-14) 사가현의 지역연계체제	90
(그림 3-15) 미야현의 지역연계체제	91

(그림 3-16) 고베대학의 지역연계체제 및 지역연계연구지	92
(그림 3-1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조직도	94
(그림 3-18) 사회적기업 지원 네트워크의 체계도	98
(그림 3-19) 중앙자활센터의 조직도	100
(그림 3-20) 서울광역자활센터의 조직도	101
(그림 3-21) 희망의 디딤돌-기능사양성사업	106
(그림 3-22) 전북 완주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109
(그림 3-23) 전북 진안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110
(그림 4-1) 농어촌활성화센터 시범운영 개요	153
(그림 5-1) 핵심 역량의 형성 단계	192
(그림 5-2) 마을 만들기 추진조직	197
(그림 5-3) 농어촌활성화센터의 비전과 목표, 전략	199
(그림 5-4) 센터의 단계별 발전전략	200
(그림 5-5) 센터의 운영체계	201
(그림 5-6)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주요 기능 및 역할	202
(그림 5-7)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조직	203
(그림 5-8)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시행체계 개선방향	204
(그림 5-9)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단계별 활성화센터(현장포럼)운영방안	204

글상자 차례

(글상자 2-1)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주요특성	39
(글상자 2-2) 신축성 있는 지역사회의 특징	42
(글상자 2-3) 효과적인 지역사회의 특징	43
(글상자 2-4) 성공적인 지역사회	44
(글상자 3-1) NRN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규정	78
(글상자 3-2) 사회적기업 지원의 의의와 세부내용	95
(글상자 3-3) 중앙 자활센터의 팀별 주요업무	100
(글상자 3-4) 서울광역자활센터의 지원사업과 특화사업	102
(글상자 3-5)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사례 - 김제시	104



제1장

서론

-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나. 연구의 목적
- 다. 연구의 범위
- 라. 연구의 방법

1. 서론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정부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소득감소로 인한 활력 저하를 막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무역자유화 추세 속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농업생산만으로 농업인의 소득을 올리는 데 많은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농촌체험마을 조성, 마을법인 및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 등을 추진해오고 있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최근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어촌활력운동과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정책을 도입하여 마을협의체의 구성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포럼의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농어촌의 재생 및 활성화의 일환으로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이제까지 농어촌마을개발사업에서 소외된 많은 마을들에게 자발적인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동기와 기회를 부여하고, 역량강화 활동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마을들이 자활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¹⁾.

EU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보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지역내부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는 관점 하에서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 또는 공동체 회사(community business)의 육성을 강조해오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여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기업들의 자력갱생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개발 관련 거버넌스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려는 노력은 별로 시

1) 3만6천여개 마을(행정리 기준) 중 마을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마을은 1천개 내외이며, 나머지 대다수 마을이 마을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추진 역량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결과에 의하면, 마을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거버넌스와 협력관계를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경우 지방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존의 중간지원조직이나 거버넌스 활동과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에 부딪치곤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접근하는 거버넌스 추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논리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천노력을 통하여 이를 현장에서 입증하고, 검증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 단위의 지역대학에 농어촌지역활성화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중앙과 광역 단위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 기반의 기업들이 수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내실 있게 성장, 발전하여 농어촌 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혁신의 창출과 확산을 촉진할 수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역량강화와 지식기반을 확충하려는 데 정책목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지역주도의 상향식 발전을 유도함에 있어서 농어촌활성화센터를 통하여 마을-민간단체-지방자치단체 등 지역 역량강화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상시적, 지속적 현장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상시성과 지속성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일부 앞서가는 마을만 지원한다는 형평성 논쟁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기회균등 차원에서 마을의 발전 수준에 따라 각 마을에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사업 프로세스 관점에서도 사업이 선정된 후의 지원은 물론 사업시행 전 지원사항을 체계화하여 입체적인 지원이 가능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의의와 역할을 이론적인 관점에서 정리하고, 센터 운영사례를 분석하며, 센터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조직구성과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나. 연구의 목적

이 과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1년에 새로 도입한 농어촌활력운동과 색깔있는 마을만들기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주민의 역량강화와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와 민관 파트너십 구축 및 효과적인

혁신 창출과 확산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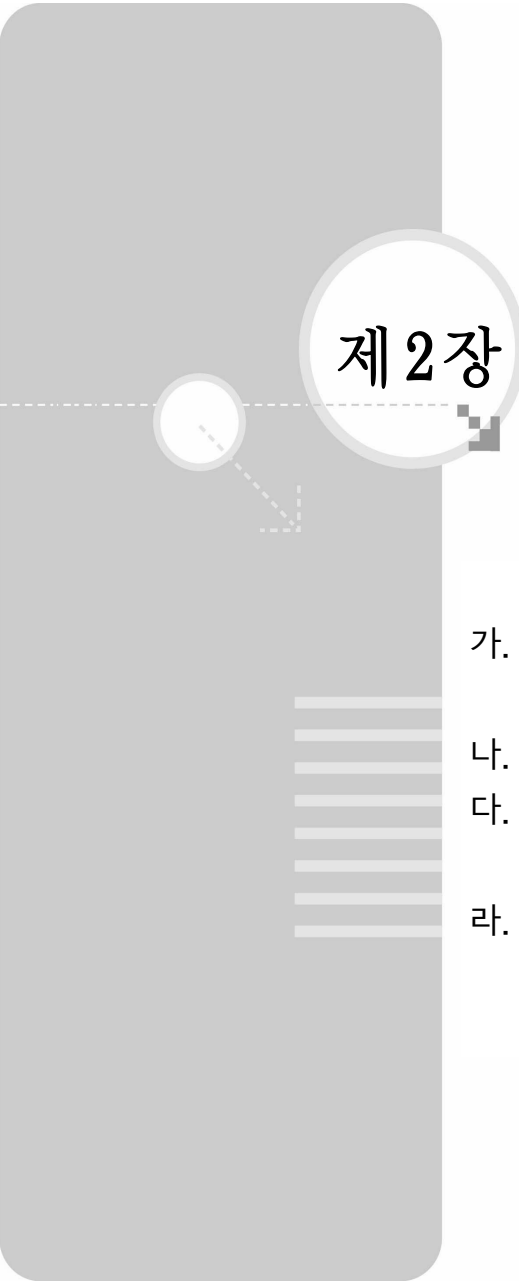
다. 연구의 범위

이 연구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추진하는 농어촌 활성화센터의 의의와 필요성 및 운영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수행하려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농어촌 활력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혁신 창출 및 확산 방안에 대한 방법론과 추진원리 정립
- ② 농어촌활성화센터의 모형과 기능 및 역할 정립
- ③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방안 제시 및 시범지구 사례 분석
- ④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운영 모니터링 및 발전방안 제시
- ⑤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한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기관과 조직의 협력관계 구축방안과 농어촌 기술혁신의 창출과 확산 방안 제시

라. 연구의 방법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문헌의 고찰과 함께 시범사업 지구를 중심으로 국내 사례를 심층분석하는 사례연구법을 적용코자 한다.



제 2 장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의의와 역할

- 가. 농어촌지역개발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의 변화
- 나.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의의
- 다. 농어촌활성화센터 관련 주요 이론
- 라. 농어촌활성화센터의 모델과 주요 역할

2.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의의와 역할

가. 농어촌지역개발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의 변화

1) 새로운 농어촌지역개발 패러다임의 특징

OECD에서는 농촌을 둘러싸고 있는 여건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상황에 적합한 접근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OECD 회원국과 같은 선진국의 농촌도 총합적인 관점에서는 침체를 겪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여 농촌지역은 곧 침체지역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지역이 처한 입지적 특성을 전략적으로 살려 다양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농어촌 지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표 2-1>과 같다. 정책 목표가 이전에는 평준화, 농업소득 증대, 농업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이제 농촌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향토자원의 고부가가치화 및 미활용 자원의 발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 산업도 이전에는 농업에 치중하였다면, 이제는 농촌관광,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등 다양한 농촌경제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정책 수단도 과거에는 보조금에 치중하였다면, 이제는 투자 관점에서 풀어가야 하며, 농촌개발을 담당하는 주요 활동가도 전통적인 중앙정부 공무원과 농업인을 뛰어 넘어 중앙, 도, 시·군, 읍·면을 망라하는 모든 단위의 정부 공무원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및 NGO 등 다양한 지역사회 이해당사자를 포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표 2-1> 새로운 농어촌 패러다임

구 분	이전의 접근법	새로운 접근법
목표	평준화, 농업소득, 농업경쟁력	농촌지역의 경쟁력, 향토자원의 고부가가치화, 미활용자원의 발굴
핵심 부문	농업	다양한 농촌경제 분야(농촌관광,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등)
주요 수단	보조금	투자
주요 활동가	중앙정부 공무원, 농업인	모든 단위의 정부 공무원(중앙, 도, 시·군, 읍·면), 다양한 지역사회 이해당사자(공공, 기업, NGO)

자료: OECD. 2006. The New Rural Paradigm: Policies and Governance. Paris: OECD.

한편, 새로운 농촌개발 패러다임으로 상향식 접근과 통합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기도 하다.

상향식 접근법(bottom-up approach)과 관련하여 크게 주목받고 있는 관점이 내생적 개발(endogenous development)이다. 이는 Bassand 등에 의해 제안되었는데, 외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개발방식과는 대조적으로 지역 내부에 존재하는 자원을 발굴하여 개발하는 것이 지역 주민의 사회경제적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최선이라는 관점이다(Bassand et al, 1986). 그러므로 농어촌지역개발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지역사회를 지원하더라도 주민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돕는 격려자 역할을 해야지, 지시자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내생적 농촌개발 모델의 기본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Neme, 2005: 3).

- 핵심 원리: 지역의 특정 자원(자연자원, 인적 자원, 문화자원)이 그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결정요소
- 발전의 역동적인 추동력: 지역의 자발성과 기업
- 농촌지역의 기능: 다양한 서비스 경제
- 농촌개발의 주요 문제: 경제활동 및 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집단과 지역의 역량 부족
- 농촌개발의 초점: 역량형성(기술, 조직, 인프라 구축)과 일부 특정집단만이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문제의 극복

Ray(1997: 345)에 따르면, 내생적 개발은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징을 갖는다.

- ① 국가 단위보다 작은 지리적 범위에서 개발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개발이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일정한 지역내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
- ② 경제부문을 포함한 개발활동은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에서 이루어지는데, 지역의 인적, 물적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화 하는데 초점이 두어진다.

- ③ 지역사회 주민의 요구와 역량 및 관점을 토대로 개발활동을 벌이게 되는데, 이는 주민들이 사회경제적 개발활동에 따른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내생적 개발을 도입하고, 추진하는 장치로서 공공과 민간기업 및 비영리 민간단체 간에 긴밀하게 협력하는 형태의 파트너십이 강조된다.

한편, Shortall과 Shucksmith(1998: 75)가 주장한 것처럼, 개발은 단지 사회가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증가시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역사회가 환경과 다른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고 그것들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에도 관련되어 있다. 이 접근법에 따르면, 권력강화(empowerment), 역량형성(capacity building), 사회운동, 중앙정부 정책을 통한 적절한 훈련 센터의 제공과 개발조직 설치·운영 등이 개발사업 추진체계의 요체가 된다. Picchi(1994)는 특정한 정책 수행 조직이 내생적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에는 다양한 경제 부문과 개발계획수립 관련 조직들의 네트워크가 포함된다.

그렇지만, 내생적 개발 접근법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많은 약점도 존재한다. Brugger(1986)에 따르면, 내생적 개발 이론에는 현실적으로 극복해야 할 많은 장애물이 존재한다. 이러한 장애물들은 실제로 이루어진 개발활동들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내생적 접근법의 실효성을 알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모델을 구축한 사회이론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그리하여 Slee(1994: 191)같은 학자는 내생적 개발은 이론체계를 분명히 갖춘 개념이라기보다는 바람직한 개발 형태에 대한 가치판단의 잣대로 사용하기 알맞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Lowe 등(1995)이 제기한 내생적 접근법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이것이 저성장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Brugger(1986)는 스위스 경험을 토대로 지나치게 내생적 접근법과 자주성을 강조하다보면 외부의 영향과 전지구적인 경제 흐름을 간과하기 쉬워 지역 경제와 사회를 심각하게 훼손시

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개발의 시작이나 접근법이 내생적이냐, 외생적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부와 외부의 관심을 결합시켜 건전한 경제사회 발전을 이끌어내느냐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생적 접근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강조하는 것이 바로 통합적 접근법(integrated approach)이다. 이 관점에 의하면, 내생적 접근법과 외생적 접근법이 반드시 상호배타적일 필요가 없으며, 반드시 상호간에 갈등관계에 놓일 필요가 없다.

Giessen 등은 통합적 농촌개발(Integrated Rural Development)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Giessen, Lukas and Michael Bocher, 2008: 9).

- 지역적 접근(region-specific approach): 개개 업종별로 보기보다는 지역 단위로 바라봄
- 부문 통합적 접근(cross-sector approach): 정부와 기업의 다양한 분야 간에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둠
- 상호협력적 접근(partnership approach):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연계·협력 센터를 만들어 실행함
- 동태적 접근(dynamic approach): 사업수행과정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사업수행자들간 네트워크를 개발함
- 장기적 접근(long-term approach): 중장기 잠재력 형성 및 발굴에 초점을 맞춤

내생적 접근법과 외생적 접근법 간의 분절을 극복하고 양자를 연결하기 위한 이론적인 해법은 바로 네트워크화 된 관계 속에서 농촌개발의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Nemes, 2005; Amin and Thrift, 1994; Cooke and Morgan, 1993; Murdoch, 2000). 네트워크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이해는 기존의 내생적 개발 이론에서 지역사회의 기업과 사회 활동가들이 신뢰에 기반을 두고, 지역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상부상조의 관계를 맺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함축한다. 여기에서의 네트워크 패러다임은 발전에 대한 제3의 길을 찾거나, 내생적 개발(지역내부, 상향식)과 외생적 개발(지역외부,

하향식) 사이의 결합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관점에서는 네트워크가 혁신과 학습을 이끌어내는 가장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이전과 학습을 촉진하는 것은 네트워크의 개방적이며, 관계 중심적인 특징에서 비롯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Powell, 1990).

2) 우리나라 농어촌지역개발 정책의 최근 동향

① 포괄보조금제도하에서의 농어촌지역개발²⁾

2009년 4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40조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개발계정)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는 광역화·특성화를 기조로 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2010년부터 종전의 균특회계 210개 지역개발계정사업을 24개 사업군으로 통폐합함으로써 지자체에 포괄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포괄보조사업은 “재원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시도별로 부여된 한도내에서 자체실정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 설계”로 정의되어 있다. 이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되어, 지역발전정책,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 기초생활권발전계획,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다.

우선 지역발전정책은 국토를 ‘기초생활권’, ‘5+2 광역경제권’, ‘초광역경제권’ 등 3차원으로 구분하여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자유롭게 기획·설계 하도록 하여 예산편성의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세계화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 중심의 열린 국토공간 구축, 지역여건과 특성을 바탕으로 특성화된 지역발전 추구, 지역간 협력과 상생을 통한 동반발전을 추구하였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는 균특법 개정 취지에 따라 “광역화, 효율화, 자율화”를 기조로 新지역발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중심의 개발과 전략적 국가재원 배분의 조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개편하였다. 광특회계는 광역경제권 추진 뒷받침과, 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및 지자체의 실질적 자율성 확대, 재원배분의 실효성·합리성 제고, 예산

2) 농림수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매뉴얼 참고

편성 과정에 대한 사전적 간섭 최소화, 사후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지자체의 재정운영 책임성 제고에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공간형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특히 기초 생활권이란, 국민들이 전국 어디에 살든지 최저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단위로서, 기초자치단체인 163개 시·군(자치구 제외)을 대상으로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군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기초생활권은 ‘도시형’과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으로 구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일반농산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National Mininum)을 보장하고,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기초생활권별로 일반농산어촌지역의 기능별 수준평가를 통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상하수도, 도로, 통신시설, 복지시설, 재해예방 등 기초생활기반의 확충 및 지역자원 및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 쾌적한 주거경관과 농촌다운 경관의 유지·보전을 위한 지역경관개선사업, 지역주민 교육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컨설팅 등의 사업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하고 있다.

포괄보조금제도 하에서의 농어촌지역개발이란, 지자체가 자율적인 농어촌 지역개발 역량을 발휘하여 지역사회의 정주여건 개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 실행하여 거주민이 주거생활을 비롯하여 생산과 소비 등 경제활동, 그리고 여가와 친교 등 사회활동을 편리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포괄보조금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면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이 패키지로 결정되기 때문에 중복 사업을 최소화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임상봉, 2009).

하지만 포괄보조금제도가 도입되어 지자체 중심의 자율적 농어촌 지역개발이 강조되고 있으나 현장활동가, 지역주민의 사업추진 역량 부족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농어촌 지역개발을 담당하는 시·군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으로 시·군 특성이나 현실에 맞고 필요한 사업계획과 추진가능성이 커졌으나, 신규 사업 발굴 및 기획역량이 부족하고, 지역의 역량 및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계획 수립·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하여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추진체계 마련과 같은 조직개편과 여건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송미령, 권인혜, 2011: 40-48).

②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³⁾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침체된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자율, 창의, 상생을 기본정신으로 지역주민과 도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일종의 범국민운동이다. 현재 농어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져 도시와의 소득격차가 나고 도시에 비해 삶의 질이 떨어져 가고 있다. 이에 농어촌을 농어촌주민과 도시민이 함께할 상생의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농어촌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의식과 능력을 가지고 농어촌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핵심주체 10만명을 육성하여 마을 발전을 견인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핵심주체는 마을운영 및 사업을 주도하는 마을리더(일반리더+사업리더)와 농어업 기술 등 전문분야의 기술리더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은 마을에서 자체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선발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현행 농어업, 농어촌 교육의 문제점을 탈피하여 목표지향적, 실천적 맞춤형 교육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 함께하는 우리농어촌 운동의 핵심주체

창의성, 전문성을 갖추고, 농어촌의 변화를 선도하는 인력으로, 정부는 마을 일반리더(36,000명)와 마을사업리더(36,000명), 기술리더(36,000명)를 핵심주체로 육성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핵심주체는 마을리더, 사업리더, 기술리더로 나뉘 육성하게 되는데, 마을 일반리더 유형

3) 함께하는 우리농어촌운동 홈페이지 참조(www.woorichon.kr)

으로는 핵심리더, 청년리더, 여성리더 등을 설정하고 있다.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 핵심주체의 유형과 대상, 역할 및 선정방법을 살펴보면 <표 2-2>와 같다.

<표 2-2>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의 핵심주체

유형	대상	역할	선정방법
마을리더 (일반리더)	마을이장, 사무장, 마을발전협의회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새마을지도자, 귀농·귀촌자 등	마을 비전과 발전모델 제시, 실천과제 발굴·계획화	마을에서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1명 이상 추천·선정
마을리더 (사업리더)	‘마을종합개발’, ‘색깔 있는 마을’, ‘도농연대’, ‘현장포럼’ 등 사업담당자	마을 발전사업 방향을 이해하여 사업(project)을 주도	사업추진 대상마을로 확정되고 사업 담당자로 지정된 자 중심으로 선정
기술리더	신지식농어업인, 영농어조합법인, 작목반 대표, 임원 등 기술적 전문성을 확보한 자	생산, 가공, 친환경 등 분야에서 지역의 소득 창출	농촌진흥청의 ‘강소농’ 대상자 우선 고려

핵심주체의 선정절차와 관리방법 및 교육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핵심주체 선정 절차

- 1단계 : 핵심주체기준제시(사무국)
- 2단계 : 핵심주체 추천(마을)
- 3단계 : 핵심주체 추천대상확정 및 통보(지자체)
- 4단계 : 핵심주체관리(사무국)

㉡ 핵심주체 관리

- 사무국 홈페이지에 핵심주체 DB 구축 및 관리
- 기본이력(소속, 지역, 주요 활동 이력) / 교육이력(교육실적·수요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

- 핵심주체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요자 맞춤형 교육 지원

㉔ 핵심주체 교육방향

- 대상, 방법, 수준, 내용의 혁신(<표 2-3> 참조)

<표 2-3> 핵심주체 교육방향

구 분	기 존 교 육	개 선 방 향
대상	농어업인(품목)	-농어촌 지역 주민 전체
교육방식	단편적, 단기적 운영	-실습교육, 인턴십 등 참여형 현장교육 확대 -사례 중심의 소그룹 토의 및 실천학습 중심 -농어업인+ 전문가+ 공무원 공동 교육 추진
교육수준	수요자 개개인의 수준 고려 미흡	-수요자 역량을 감안하여 맞춤형 교육 -리더유형별, 수준별 공통과정과 전문과정 개발·운영
교육내용	농어업 기술교육, 경영·마케팅 교육 등 산업적인 측면의 교육에 편중	-농어촌주민에 대한 공동체 교육강화(주민갈등관리, 마을프로젝트관리, 마을자원관리, 마을계획수립, 경영·유통, 리더십 과정 등 다양화)

③ 색깔있는 마을만들기⁴⁾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또한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의 일환으로 농어촌을 농어촌 주민과 도시민이 함께할 상생의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 농어촌 발전전략을 추진할 필요성에 의해 시작되었다. 마을이 지닌 유·무형의 잠재적 자원을 발굴하여 마을 발전을 특성화, 차별화하자는 개념으로서, 산업발전의 토대 위에 농어촌의 경관, 역사, 문화가 조화를 이룬 특색 있는 마을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 유형은 특산품, 경관, 유통·가공, 전통문화, 음식, 테마마을, 마을 개발 등 다양하며, 마을의 주테마에 따라 농어업형, 유통가공형, 도농교류형, 생활기반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표 2-4> 참조). 이러한 색깔있는 마을 육성을 통해 농어촌을 국민의 삶터와 휴

4) 함께하는 우리농어촌운동 홈페이지 참조(www.woorichon.kr)

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에는 도·농교류 활성화, 경제활동 다각화 등으로 고용기회와 소득원을 다원화하며, 나아가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례로 충남 외암 민속마을의 경우 마을이 지닌 고유의 경관과 전통을 이용한 관광사업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2011년 한해 약 6만 7천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으며, 3억 2천만원의 소득(공동체)을 창출한 바 있다. 이외에도 공간자원, 인적자원, 특산물, 민속문화 등을 활용하여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마을이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다.

㉞ 조성절차

- 1단계 : 충분한 사전교육·준비
- 2단계 : 마을·권역단위 사업조직형성
- 3단계 : 특성에 맞는 유형 및 발전과제 발굴
- 4단계 : 마을·권역단위 계획수립
- 5단계 : 읍·면 단위 계획수립·반영
- 6단계 : 시·군 단위 계획수립·반영

<표 2-4> 마을의 색깔유형

구 분	분 류
농어업형	유기농·품질인증, 품목특화, 품목다각화, 기술혁신
도·농교류형	캠핑, 치유, 경관, 농어촌유학(체류), 학습연계(체험), 농림어업체험 역사·문화 체험, 레포츠(산악, 하천, 바다), 음식체험(외국인), 1사 1촌, 주말농장, 민박·펜션
생활기반형	마을개발·인프라(뉴타운, 전원마을, 문화마을), 농어촌권역개발, 청정에너지, 주말주택(별장, 5도2촌), 장수촌, 복지서비스, 예술인 촌, 생태환경보전, 농어촌형제조업
유통가공형	직판·전자상거래, 로컬푸드, 저장·단순가공, 식품가공, 전통식품

㉟ 핵심사항

- 사 전 교 육 준 비 : 성공적인 마을권역 개발을 위해 최소한 5년 준비
필요(전북 진안 능길마을), 사업비는 지원하지 않고
3년간 주민교육만 실시(전북 완주 농촌활력과)

- 융통성 있는 사업조직 : 농어촌 개발을 위한 사업조직은 행정구역과 관계 없이 사업특성에 따라 설정. 산, 강, 계곡 등 지리적 특성에 따라 권역 설정(예: 충남 청양칠갑산 권역, 강원 화천과라호 권역)
- 발전과제 발굴 : 마을 발전과제 100개를 찾아 우선순위 정하기. 마을→권역→읍·면 단위로 넓혀가며 발전과제 발굴 및 우선순위 설정
- 계획수립 : 읍·면, 읍·면 장기발전계획, 시·군, 시·도 등 상급기관은 하급기관 계획 심사. 상급기관 관점의 발전과제 발굴 계획화
- 현장활동가 선정 운영 : 지자체 단위로 현장활동가(코디네이터)를 선정하여 농어촌 현장포럼 운영을 지원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립역량이 부족한 마을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3) 현행 농어촌지역개발 정책의 한계와 개선방향

농어촌 마을과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추진 시스템과 프로그램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국내외 혁신 사례의 벤치마킹과 중앙과 지방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효과적인 농어촌지역개발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지만,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혁신의 창출과 확산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와 세부 추진 프로그램을 갖춘다면, 개발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지금보다 더 확실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농어촌 지역개발 혁신과 관련하여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등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이 그 예이다. 강원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이와 관련한 자구노력을 벌이고 있으나, 중앙과의 연계성이나 타 지방과의 연계가 부족한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농어촌 지역개발 관련 혁신 창출과 지식기반자본 창출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과 정책수단이 부족하다. 농촌지역에서 혁신(innovation)은 경쟁력 강화를 좌우하는 핵심요소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연구개발(R&D) 관련 기관들이 주로 도시지역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기업들은 이들 연구기관에의 접근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농촌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농촌지역에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개입이 정당화된(Permanent Secretariat of the Alpine Convention,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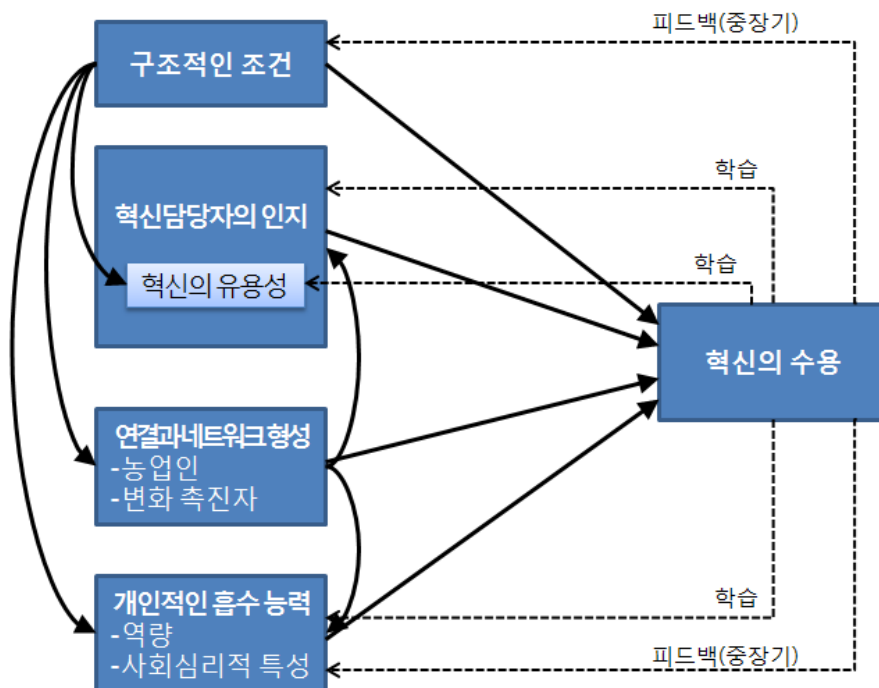
셋째, 농어촌 주민의 자발적 지역사회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상시적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지 못하다. 농어촌 지역개발에 있어서 상향식 내생적 개발이 강조되고 있지만, 통합적 농촌개발(IRD: integrated rural development)의 관점에서 외부의 기술지원 또한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중요하다. 그런데 총괄 기획가나 농어촌지역개발 컨설턴트 등 다양한 전문가가 프로젝트의 기획 및 실행과 관련하여 일회적 또는 산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직 프로젝트가 선정되지 않은 대부분의 마을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기술을 지원하고 교육하며, 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못한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개략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어촌 지역개발에 대한 혁신을 만들어내고 이를 확산할 수 있는 기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기관별로 혁신의 창출 및 확산 기능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혁신을 창출하고 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조직체계나 프로그램이 구비되어 있지 못하므로 이러한 기능이 시급히 복원되어야 할 것이다.

Hartwich와 Scheidegger(2010)는 혁신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구조적인 조건/framework conditions), 혁신 전파자의 인식, 연계 및 네트워크

크화, 개인의 수용역량을 꼽았다((그림 2-1) 참조). 여기에서 구조적인 조건이 바로 정부 차원에서 혁신의 창출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직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와 직결되어 있다.



(그림 2-1) 네트워크 조건하에서의 혁신 수용 영향요인

둘째,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발적인 노력과 다양성은 살리되, 지역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상시가동 함으로써 지역별 혁신의 공유를 촉진하고 지역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과 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농어촌지역사회 주민의 역량을 진단하여 이들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미래의 농어촌지역 개발은 가시적인 시설물 설치 못지않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역량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 프로그램을 충실히 마련하여 미래지향적인 농어촌지역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나.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의의

1) 농어촌활성화센터의 개념

농어촌활성화센터는 농어촌 지역 발전의 원천인 혁신의 창출과 확산을 지원하여 지식 기반 자본(KBC: knowledge-based capital)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일종의 중간지원 거점조직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농어촌활성화센터의 필요성

농어촌활성화센터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지역격차 해소, 지식 인프라 구축 지원, 거버넌스 촉진, S/W 중심의 농촌마을개발 지원 등 4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 ①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농어촌 지역이 정보와 지식 기반 자본 형성에 뒤질 경우, 도농격차가 심화되고 농어촌의 침체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음
- ② 공공부문에서 농어촌 지역개발 관련 정보와 지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도농간 지식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
- ③ 농어촌지역개발 방식으로 상향식과 하향식이 통합된 네트워크형 종합개발이 강조되면서 수평적, 수직적 거버넌스를 촉진할 수 있는 중간매개자 역할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음
- ④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는 「함께하는 우리농어촌운동」의 일환으로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함

3) 설문 분석 결과

가) 현장활동가 조사결과

색깔있는 마을 육성과 권역발전을 위하여 농어촌활성화 정책의 개선 및 효율적 사업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활동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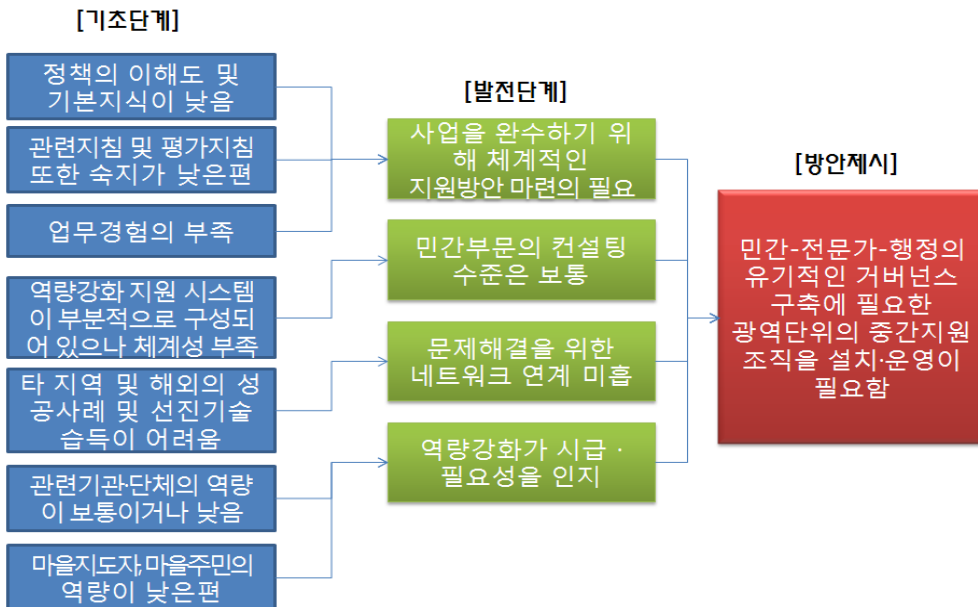
① 조사개요

2012년 4월 19~20일에 걸쳐 조사를 하였으며, 총 168부를 회수하였다. 이중 현재 소속 분포는 도, 시·군 지자체 36%,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

술센터 36% 나머지 28%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소속되어 있었다. 또한 응답자의 근무 경력은 10년 이상인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85% 이상이 5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었다. 전국 각 지역에 고루 근무하였으며, 담당 업무는 대부분 농어업·농어촌 행정과 농어촌 지역개발, 농어촌지도 순으로 나타났다.

② 조사결과

현장활동가 대상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 현장활동가 설문조사 분석결과

현장활동가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응답자들이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기본지식이 낮고, 관련 지침과 평가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으나, 경험의 부족으로 사업을 제대로 완수하기에는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역량강화 지원 시스템이 부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체계성이 부족

하고, 민간부문을 활용하기에도 컨설팅의 수준이 높지 않아서 보다 전문적인 지원 조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연계의 미흡으로 타지역이나 해외의 성공사례 및 선진 기술의 습득이 어려워,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였다.

관련 기관과 단체의 역량 또한 보통이하로 낮은 편이며, 마을 지도자와 마을 주민들의 역량은 매우 낮아서 역량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민간-전문가-행정의 유기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고, 네트워크 및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나) 전문가 조사결과

색깔 있는 마을 육성과 권역발전을 위하여 농어촌활성화 정책의 개선 및 효율적 사업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① 조사개요

2012년 5월 23일~6월 5일에 걸쳐 조사를 하였으며, 총 60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 교수가 22명, 연구원이 14명, 컨설턴트가 13명, 기타 11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근무경력이 5년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10년 이상의 경력자도 24명으로 40%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전문분야를 살펴보면, 농공학, 농업경제 및 농업토목 등 농업관련 직업이 33%로 가장 많았으며, 경영학, 관광경영, 관광학을 묶어 26%, 지역개발 12%와 환경공학 및 법학, 조경학 등 기타 29%를 차지하였다.

근무지역은 서울, 경기의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60%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수도권 외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② 조사결과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요약 정리해 보면 (그림 2-3)과 같다.



(그림 2-3)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결과

전문가들은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이후 지역개발사업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공공부문의 역량강화 시스템을 활용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또한 다양한 정보의 공유를 통한 문제점 해결과 공무원과 마을리더 및 원주민의 역량강화가 시급하다고 보았다.

전문가들은 스스로에 대해 정책의 이해와 기본지식 및 사업의 전문성을 상당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농어촌 지역개발 및 도농교류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개발 분야에 대한 업무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문가의 강점을 농어촌 지역개발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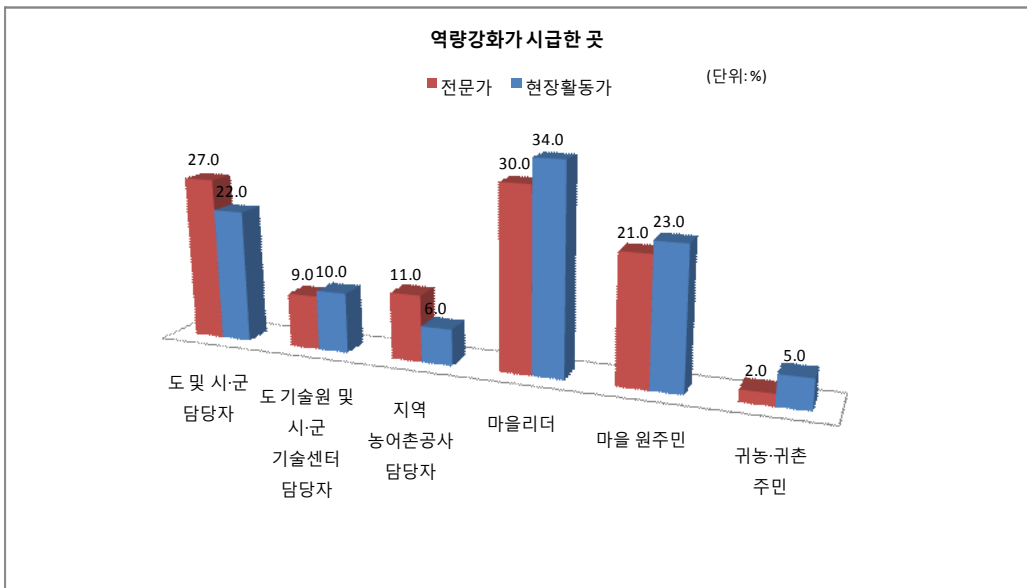
한편, 민간-전문가-행정의 유기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고, 네트워크 및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농어촌활성화센터와 같은 지원조직과 기능 도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해 주었다.

다) 현장활동가, 전문가 설문조사 비교

현장활동가와 전문가 설문에는 크게 비슷한 점이 많이 있었다. 이는 두 부류의 집단에서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아 낼 수 있었는데, 주요사항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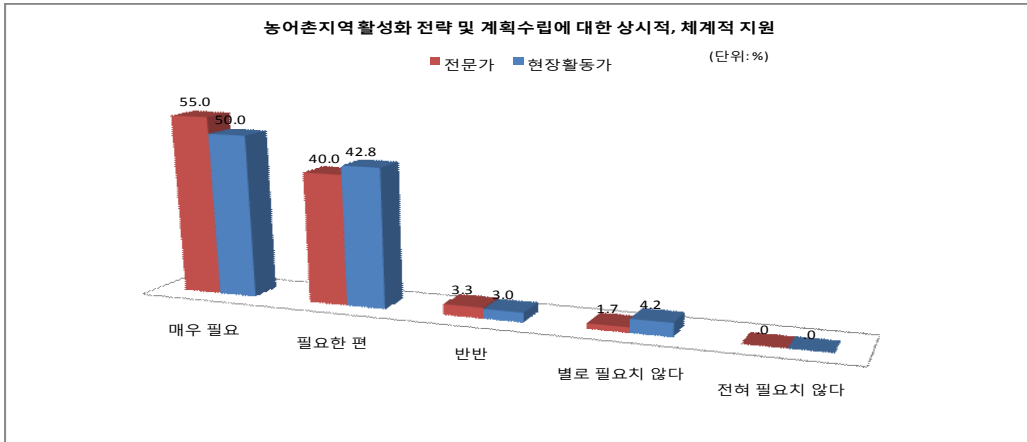
① 공통점

현장활동가와 전문가는 역량강화가 가장 시급한 곳을 마을리더와 도 및 시군 담당자 그리고 마을원주민을 꼽았다((그림 2-4) 참조). 주로 실제 그 지역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실무 담당자와 지역주민들을 위한 역량강화가 필요하며 이는 누구보다도 그들의 의지와 역량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4) 현장활동가, 전문가의 ‘역량강화가 시급한 곳’에 대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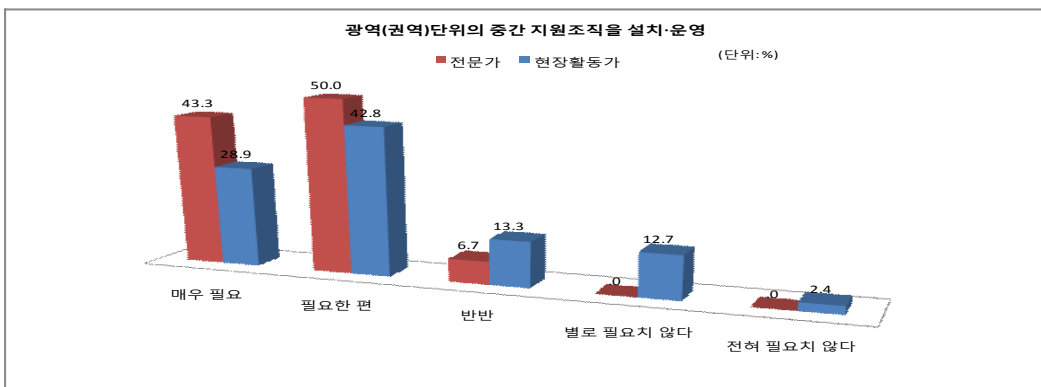
또한 그들은 공통적으로 농어촌지역활성화 전략 및 계획수립에 대한 상시적,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그림 2-5) 참조).



(그림 2-5) '전략 및 계획수립에 대한 상시적, 체계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응답

한편, 글로벌 시장 개방, 지속되는 노령화 등으로 침체되어 있는 농어촌지역 거주민의 삶의 질과 농어촌다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잠재적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특성화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색깔 있는 마을 육성과 권역발전을 위해 민간-전문가-행정의 유기적인 거버넌스 구축에 필요한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경우 93%, 현장활동가의 경우 72%가 '필요 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2-6) 참조). 이는 현장활동가와 전문가들이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줄 수 있는 중간지원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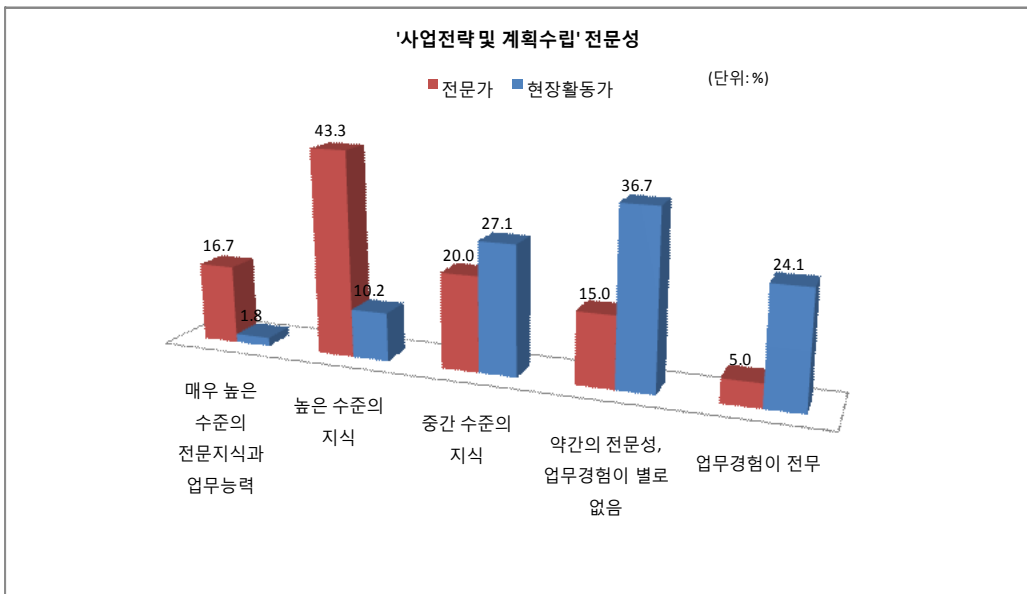


(그림 2-6)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필요성에 대한 응답

② 차이점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난 부분은 ‘사업전략 및 계획수립’의 전문성 분야이다. 전문가의 경우는 다양한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는 편으로 인식하고 있음은 물론, 농어촌 지역개발 및 도농교류사업 관련하여 ‘사업전략 및 계획수립’의 전문성 및 ‘사업(과제)발굴’의 전문성 또한 높게 평가하였다.

반면에 현장활동가의 경우는 시·군, 도 지역은 물론 해외의 성공사례와 선진기술 및 경험의 습득이 어렵다고 응답하여 네트워크의 부족을 호소하였으며, (그림 2-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스스로에 대한 전문성 또한 낮게 평가하였다.



(그림 2-7) ‘사업전략 및 계획수립’ 전문성에 대한 응답

라) 분석결과 및 시사점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성공은 마을리더 및 주민, 사업담당자의 의지와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역량개발 보다는 외형적인 성과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농어촌 지역개발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글로벌 시장 개방과 지속되는 노령화 등으로 침체되어 있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다움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어촌

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잠재적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특성화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침체된 농어촌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가시적 성과 위주의 사업추진 방식에서 탈피하여 그 동안 소홀히 하여 왔던 농어촌 지역의 자원 발굴과 사업개척에 마을리더와 주민 및 사업담당자의 창의적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체계적인 현장 중심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다. 농어촌활성화센터 관련 주요 이론

1) 통합적 농어촌개발

통합적 농어촌개발(integrated rural development)은 중심부 자원을 재분배하고, 경쟁에 있어서 지역이 갖는 비교열위를 줄이며, 농촌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활용성을 높이는 새로운 방법을 찾음으로써 농촌지역 주민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외부의 개입과 지역사회의 열망을 상호 연계시키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Nemes, 2005: 24).

여기에서 통합적이라는 의미는 지방에 의해 통제되고 관리된다는 점에서 중앙 중심의 개발과 상치되는 동시에 중앙으로부터 전문가와 재정을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지방 중심의 개발과도 상치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하여 Nemes(2005: 24)는 통합적 농촌개발을 일종의 새로운 농촌개발 패러다임에 관한 이론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통합적 농촌개발에서는 농촌 지역사회를 위하여 중앙정부에 의해 어떻게 지역사회개발과 농촌자원의 발굴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농촌의 가치가 미래를 위해 유지보전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농촌개발 방식은 통합적 농촌개발 시스템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행정기관, 지식, 정보, 의사결정 시스템, 사회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중앙과 지방의 조직과 단체의 독특한 결합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그리하여 통합적 농어촌개발은 상향식과 하향식 접근법의 결합, 현장을 중시하는 가운데 다양한 분야를 통합한 문제해결식 종합적 접근, 농촌의 입지적, 자원보유적 측면의 불리성을 극복하기 위한 민관 협력관계 구축, 지역사회 역량강화 등의 다양한 지원 전략과 정책의 수립, 실천 등을 강조하게 된다.

2)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농어촌지역개발

농어촌지역개발이 중요한 정책 이슈가 되는 이유는 농어촌 지역이 국가 발전 과정에서 일정한 불리성을 갖는다고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농촌의 불리성은 크게 접근 불리성(access-type disadvantages)과 부존 자원 불리성(resource-type disadvantages)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 두가지는 서로 독립적이라기 보다는 서로간에 밀접히 연계되어 상호 영향을 미친다.

전통적인 개발 방식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접근 불리성을 극복하는 전략으로 주로 도로, 통신, 상하수도 설치와 같은 하드웨어 분야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하드웨어 분야의 개발은 중앙의 재화와 서비스가 지방으로 이동하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지방이 중앙에 접근하는 데에도 유리하여, 지방에 지속가능한 개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농불균형이 심화되어 농어촌의 인력과 자본 및 원자재 등 상품이 도시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데 기여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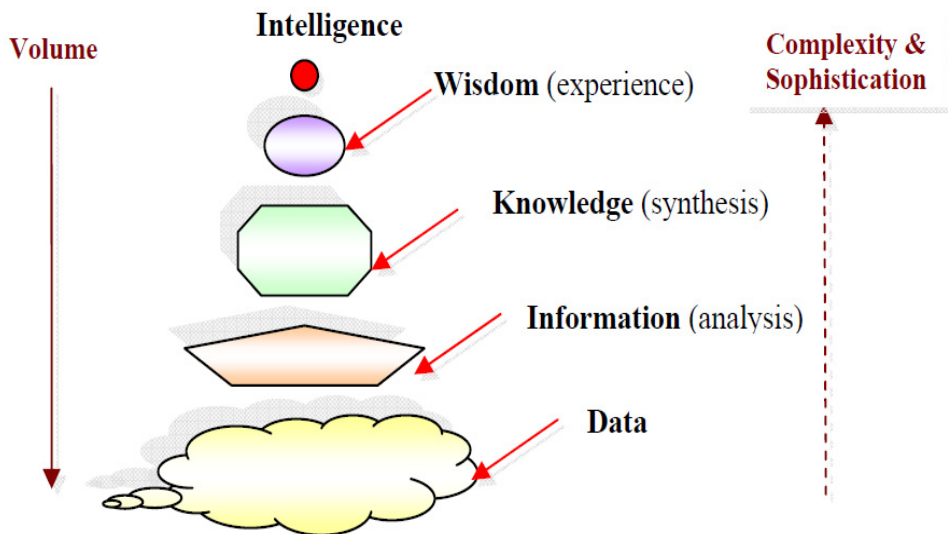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중앙에 대한 접근 불리성 극복 전략은 농촌 지역사회와 같은 지방에 경제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소프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선 재정이나 시장 지원 조직이나 기관의 설치, 관련 조직의 수직적, 수평적 통합, 교육·훈련,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등이 포함된다. 지역개발 지원사업의 유치 등 정부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이러한 예에 속한다. 특히 도농격차 등 중앙과 지방의 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정이나 전문성, 조정역할 및 전략계획수립 등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자원을 중앙정부가 직접 농어촌 지역사회에 지원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농어촌 지역이 저발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시장에서 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의 지원과 연계된 체계적인 지방의 농촌지역개발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다양한 업종의 산업과 기업체 및 법인체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지역사회 부존자원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농어촌

지역이 경제 다각화를 실현함으로써 외부의 경제환경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한편, 현대는 지식기반 사회(knowledge-based society)로 일컬어지는 것처럼,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OECD에서는 최근들어 지식기반 자본(knowledge-based capital)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놓여있는 지역은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불리한 가운데 있는 만큼 지식 인프라 플랫폼 설치 등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Sajja와 Akerkar(2010)는 인간의 사고와 추론 과정의 주요 구성요소를 (그림 2-8)과 같이 데이터(data), 정보(information), 지식(knowledge), 지혜(wisdom)로 분류하고, 이들의 머리글자를 따서 DIKW chain으로 불렀다. 데이터는 관찰된 사실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을 비교, 추론, 필터링 등의 절차를 거쳐 가공할 때, 비로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가공된 데이터를 정보로 정의할 수 있다. 지식은 가용정보의 합성, 필터링, 비교, 분석 등의 절차를 거쳐 나온 결과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식에 경험과 판단, 가치관, 법·제도 등이 더해져 지혜를 얻게 된다.



(그림 2-8) DIKW chain

한편, 지식은 그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를 예시하여 보면 <표 2-5>와 같다(Sajja와 Akerkar, 2010).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문서나 인터넷, 시청각 자료와 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는 것 외에도 교육 대상자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과 현장포럼 운영, 컨설팅제도 도입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개발의 경우, 현장에 기반을 둔 경험 위주의 지식 습득이 요구되는 만큼 이에 적합한 교육 콘텐츠와 교육방법을 구비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 2-5> 지식의 유형

지식 유형	주요 특징
전문지식	전문지식은 특정 전문 분야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은 지식이다. 기술자와 전문가가 문제해결을 위하여 전문지식을 개발하고, 활용한다.
메타지식	메타지식은 일종의 “지식에 대한 지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일반지식	일반지식은 모든 보통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지식을 말한다. 개개 지식들은 사람들의 경험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경험지식	경험지식은 경험에서 도출된 개략적인 지식이나 주장을 의미한다.
형식지	형식지는 쉽게 문자나 숫자로 표현할 수 있으며, 데이터나 과학공식, 생산방법, 매뉴얼, 보편적인 원리 등의 형태로 공유된다. 이는 매우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특징을 지닌다.
암묵지	암묵지는 전문가의 두뇌에 잠재되어 있는 지식으로 쉽게 문서화 할 수 없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지식은 매우 개인적이어서 공식화하기 어렵다. 주관적인 통찰력, 직관, 감정, 사고방식, 가치관, 행동이 이러한 암묵지의 예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사회도 시장과의 연계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마케팅 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업가적인 마인드(entrepreneurship)와 혁신(innovation)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데 농어촌 지역은 기업가적 역량을 갖춘 인력도 부족하고, 대학과 연구소 등 연구개발 관련 기관과 전문 인력도 매우 부족한 만큼, 이러한 문제 극복을 위한 혁신 창출의 원천인 대학과의 연계 강화,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 발굴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3) 네트워크 사회와 농어촌개발 거버넌스

흔히 현대사회를 네트워크 사회라고 하는데, 이는 사회 시스템 내에서 어떤 특정 집단이 일적으로 독주, 독점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으며, 이해당사자간 연계, 협력이 강조되는 시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더욱이 전세계가 네

트위크로 상호 연결된 가운데, 어느 사회나 조직도 글로벌 네트워크에 편입되지 못하면 자연도태 되고 만다는 위기의식이 자리잡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지식기반 사회의 새로운 인프라로서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나아가서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세계에서 통하는 생존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거버넌스(governance)는 권한 또는 권력을 가진 조직체의 활동 및 과정을 의미한다. 즉 권력/권한(authority)이 있는 곳에는 거버넌스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 기업, 가정, 민간단체 등 다양한 조직체에 거버넌스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농어촌개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고 할 때, 거버넌스가 없는 곳에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어낸다고 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은 거버넌스,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하겠다.

농어촌 거버넌스는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이해당사자간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농촌 거버넌스가 강조되는 이유는 농촌 저발전의 원인 및 그 해법찾기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농촌 저발전의 원인은 크게 하드웨어 구축과 직불 중심의 소득보상 정책이 한계에 이른 점과 인적 자원이 양적, 질적으로 부족하여 농어촌 지역에 기업가 역량이 부족한 점을 들 수 있다.

도로, 생산기반시설, IT 기반 구축만으로는 도농격차 해소가 어려운 가운데, 소득, 인구, 환경 부문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일사분란하게 집행해서 농촌을 발전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적자원과 기업가 역량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여 시장에서 통하는 상품을 만들어내고, 농촌발전에 필요하나 시장에만 맡겨뒀서는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부분을 거버넌스를 통하여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영리기업, 지역사회 주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확산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혁신의 창출과 확산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 발전을 완화하고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 농어촌활성화센터의 모델과 주요 역할

1) 농어촌활성화센터 모델의 정립

가) 농어촌 활성화의 개념

농어촌 활성화(rural revitalization)란 농어촌 침체의 반대말로, 지역사회가 세계 경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므로써 신축성 있고 지속가능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Kenyon, 2012).

농어촌 활성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인구 안정화와 증가
- 젊은층 인구의 유입 및 유지
- 사회의 경제 및 고용기반 다각화
- 서비스와 주민 삶의 질 향상
- 주민참여 증진 및 지역사회 자부심 고취
- 지역사회의 독특한 특색 유지

농어촌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개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지역사회 및 경제 개발

지역사회와 경제 개발은 세 가지 상호 관련된 활동—경제개발, 자원관리 및 지역사회 역량강화—을 촉진하고, 조정하며, 지속시키는 전략과 실천활동 및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

- 경제개발: 지역사회 경제를 자극하고,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하여 자원을 발굴하고, 이용하며, 최적 활용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지역사회 및 경제개발은 어떤 일자리나 어떤 형태의 경제활동이나 투자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기회의 개수와 질과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에 적합하고 지속가능한 기업과 기업가정신을 육성하는 것을 추구한다.
- 자원관리(resource stewardship): 단기간의 이득을 위하여 지역사회 유·무형의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마음가짐과 실천력이다. 이는 현재와 미래의 다른 지역사회가 향유하는 삶의 질을 손상시키지 않으면

서 지역사회의 경제 기회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구성된다.

- 지역사회 역량(community capacity): 미래의 공동 비전을 구상하고 성취하는 지역의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지역사회가 변화를 관리하고, 지역사회 주도의 개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 조직결성과 네트워크 형성, 태도형성과 재정관리, 리더십 및 경영 관련 기술 등으로 구성된다. 지역사회 역량 형성(community capacity building)은 리더십 개발, 지역발전 전략수립, 자원 발굴 및 동원, 성공과 실패사례 발굴 및 학습, 개발사업 채원 발굴 및 유치, 지역사회 내외부 네트워크 형성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그 예이다.

경제와 사회 측면과 관련된 농어촌 지역개발의 세부 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2-9) 참조).

		경제적 개발	사회적 개발		
연 계 / 훈 련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 농촌관광 - 경제적 인프라 구축 	전반적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농촌 재생 - 사회적 유산과 경관 강화 - 문화적 활동& 동질감 	연 구	
	농촌 고용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대1 상담 - 클리닉 - 직업 소개소 - 교육/ 훈련 - 고용주 연락망 	사회적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활동 지지 - 지지 조직&네트워크 지원 - 사회& 지역사회 서비스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계획					

(그림 2-9) 농어촌지역개발 영역(아일랜드 사례)

건강한 지역의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 그 이상이다. 다음 2가지의 정의는 건강에 대한 좀 더 종합적인 관점을 갖도록 도와준다.

‘건강은 웰빙의 최적화 상태이다... 건강은 전체성(wholeness)이다. 이는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자신의 상황과 운명을 통제하는 것을 경험하는 상태를 포함한다...

건강한 지역사회가 완벽한 장소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지역사회를 새롭게 하고, 개선시키는 역동적인 상태에 있음은 분명하다. 또한 그것은 건강한 삶을 선택하고,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지원하는 문화를 형성한다...’

(건강한 도시와 지역사회를 위한 연대(Coalition for Healthier Cities and Communities))

‘건강한 지역사회는 사람들이 삶의 모든 영역들이 제대로 기능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지역사회 자원을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Trevor Hancock and Len Duhn)

② 건강한 지역사회

건강한 도시와 지역사회를 위한 연대(Coalition for Healthier Cities and Communities)에서 제시한, 건강한 지역의 7가지 핵심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Morris and Pittman, 2000).

- 미래 모습의 구체화
- 리더십 배양
- 공동체 의식 개발
- 사람과 자원의 연계
- 자기 지역의 이해
- 지속적인 대화의 실천
- 다양성의 수용

또한 미국의 Pew Partnership for Civic Change에서는 건강한 지역사회와 건강하지 못한 지역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여 제시하였다(Adams, 1995).

<표 2-6> 건강한 지역사회의 특징

건강한 지역사회	건강하지 못한 지역사회
낙천적, 희망이 있고 '우리는 함께'라고 생각	냉소적
'우리는 할수 있다'	'할수없다'
비전과 가치를 가짐	무형을 강조
목표가 일치	극성을 가짐
미래에 초점	과거를 비판
상호의존	편협
다양한 지역사회에 참여	몇몇을 전부라 생각
리더십	똑같은 표정
길게 생각하고 행동	짧게 생각
듣는 것	공격
화해	원한
win-win	win-lose
원칙중심의 정치	인정중심의 정치
다양성과 참여	배타적
생각의 도전	사람의 도전
문제 해결	막히고 비난
도전을 기회로 생각	서로를 희생자라 생각

③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농어촌활성화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데,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글상자 2-1)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주요특성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주요특성

(NSW Premier Department의 Strengthening Communities Un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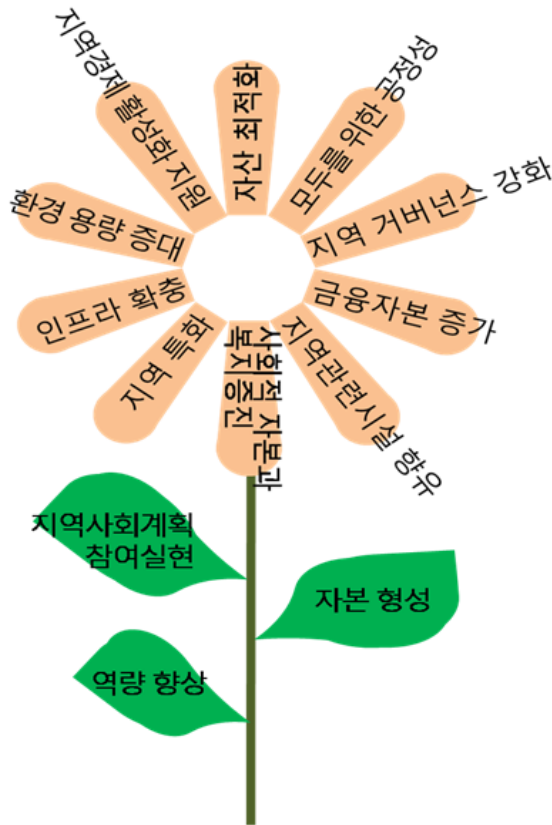
1.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통합적인 접근법을 취한다.
2. 전략적인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역내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3. 사회적, 경제적 목표를 통합하고, 지역역량을 강화할 계획을 수립한다.
4. 개발 우선순위에 있는 산업부문의 활성화를 시도 할 수 있다.
5. 지역사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외부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내부자원을 동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
6. 주민주도로 사업을 실행하고 평가함으로써 협동적인 개발사업 핵심조직을 결성한다.
7. 강력하고, 포용적이며, 비전 있는 지도자를 보유하고 있다.
8. 지역사회 생활 부문에서의 참여와 자문 및 개입을 촉진함으로써 모든 구성원들의 복지증진을 촉진한다.
9. 교육훈련과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를 중시한다.
10. 정확한 긍정적인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목표 달성과 관련된 진척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Carnegie Commission”은 역동적이고 활기차며, 상호작용하면서 지속적인 농촌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사용가능하고 좋은 자산의 확인
- 모두를 위한 공정성의 확보
- 지역정부의 권한
- 지역사회의 이득을 위한 자원 증가
- 지역관련시설 이용
- 사회자본의 풍부하게 하고 well-being
- 지역의 특수성
- 믿을만한 인프라 구축
- 환경 자본 강화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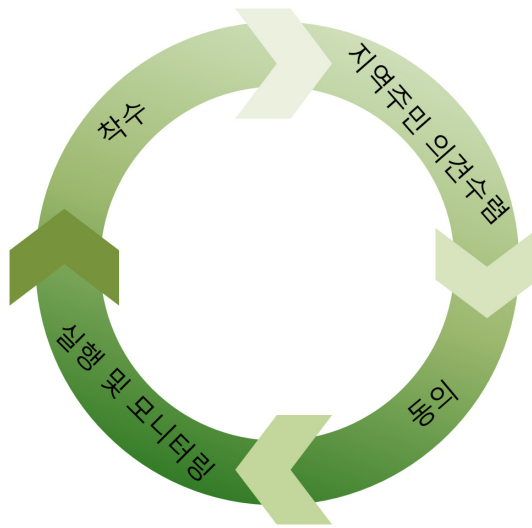
또한 영국 Carnegie UK Trust(2011)가 제시한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2-10) 참조).

- 지역사회 주민의 역량
- 지역사회 자산의 증대
- 효과적인 주민 주도 발전 계획 및 견고한 지역 거버넌스



(그림 2-10) Carnegie UK Trust 농촌 프로그램

영국 ACRE(Action with Communities in Rural England)에서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지역 주도의 개발계획수립 단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그림 2-11), <표 2-7>과 같다(Eardley and Vincent, 2011). 여기에서 보면, 주민의견수렴과 합의도출을 위한 조직체의 결성 및 운영, 안정적인 재원확보, 지역실정에 적합한 사업구상 및 실천방안 마련 등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11) 지역주도 계획수립의 4단계

<표 2-7> 지역 주도 계획수립의 세부단계

LEAD 단계	9가지 과정	실행 계획
L(Launch the plan) 착수	· 시작 · 추진위 결성 · 재원확보 및 사업구상	· 발전협의체 구성 · 주민의 지지확보
E(Evidence local needs and aspirations) 지역주민 의견수렴	· 지역사회 개발요구 파악	· 현황 자료수집 및 주민 토의
A(Agree and prioritize actions) 동의 및 우선순위 결정	· 실천대안 발굴 · 계획초안 마련 · 계획 확정	· 비전 설정 · 실행계획 수립
D(Deliver and monitor actions) 수행 및 모니터링	· 계획 실행 · 모니터링 및 검토	· 계획의 실행 · 파트너십의 유지 · 모니터링 및 검토

④ 신축성 있는 지역사회

캐나다의 Centre for Community Enterprise(2000)에 따르면, 신축성 있는 지역사회(resilient community)에서의 신축성이란 “시민과 단체가 일련의 사회경제 변화에 반응하고,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개인적, 집단적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Centre for Community Enterprise에서는 신축성 있는 지역사회의 23가지 특징을 ‘지역사회의 지치지 않는 회복력’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글상자 2-2) 신축성 있는 지역사회의 특징

신축성 있는 지역사회의 특징

(캐나다의 Centre for Community Enterprise)

- 특징1 : 리더십이 다양하고, 주민으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는다.
- 특징2 : 지역사회 지도자의 리더십 스타일이 비전 제시형이다.
- 특징3 :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적이다.
- 특징4 : 자기 지역사회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 특징5 : 주민들이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 특징6 : 주민간에 상부상조와 협동정신이 있다.
- 특징7 : 지역사회에 대한 애향심이 있다.
- 특징8 : 주민들이 자주적(self-reliant)이다.
- 특징9 : 교육에 대한 신념과 지지가 있다.
- 특징10 : 주요 지역사회 경제 개발 기능이 작동한다.
- 특징11 : 조직체들이 파트너십을 개발한다.
- 특징12 : 고용이 다양한 업종에서 이루어진다.
- 특징13 : 고용주들이 주로 지역내에 거주한다.
- 특징14 : 기업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의 소유를 확대시키기 위한 전략이 있다.
- 특징15 : 대안적인 경제활동에 대해 개방적이다.
- 특징16 : 주민들이 외부환경을 자원으로 인식한다.
- 특징17 : 경쟁사회에서 지역사회의 위치를 인식하고 있다.
- 특징18 : 지역사회내에 지역사회경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다.
- 특징19 :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비전과 목표 설정에 참여한다.
- 특징20 : 지역사회의 경제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천한다.
- 특징21 : 진척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 특징22 : 지역사회 조직체들이 자신들의 행동지침으로 지역사회의 경제개발계획을 활용한다.
- 특징23 : 개발 접근법이 모든 인구계층을 포용한다.

⑤ 효과적이며 성공적인 지역사회

지역사회 활성화 개념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지역사회(Effective and Successful Communities)와 같이 ‘효과’와 ‘성공’의 개념을 도입하기도 한다. Oklahoma Community Institute(1998)에서는 그들의 활력 있는 농촌사회에 대한 연구에서 활력있는 지역사회를 ‘효과적인 지역사회’로 정의하였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Kenyon, 2012).

(글상자 2-3) 효과적인 지역사회의 특징

효과적인 지역사회의 특징

- 지역사회의 사업 교육
- 희생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전의 기회로 봄
- 시민들의 참여와 생각이 개방
- 다양한 기회를 개방하여 지역사회의 의견존중
- 많이 듣고자 하는 지도자
- 의사결정을 공유
- 팀워크의 개념을 이해
-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문제해결과 공감대를 형성
- 이슈와 문제에 대해 윈/윈 해결방법을 찾음

(Oklahoma 지역사회 연구소)

한편, ‘성공적인’ 지역사회에 대한 개념은 다양한 단체에 의해 사용되었다. North Central Regional Centre for Rural Development에서는 ‘성공적인’ 지역사회의 특징을 8가지로 제시하였다(Flora and Flora, 1994).

- 논쟁의 수용
- 정책을 특정개인화하지 않는 역량
- 투자할 수 있는 잉여 수익 발생
- 적극적인 위험 감수
- 공동체 확장 능력
- 네트워크 구축 능력
- 학문을 강조
- 유연하고 분권화된 지도력

오스트레일리아 Youth Pathway 총리의 실행계획 최근보고서에 따르면 성공적인 지역사회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글상자 2-4 참조)

놀라운 것은 ‘건강’, ‘신축성’, ‘효과’와 ‘성공’에 관련된 지역사회의 특징들이 서로 유사하다는 점이다(Kenyon,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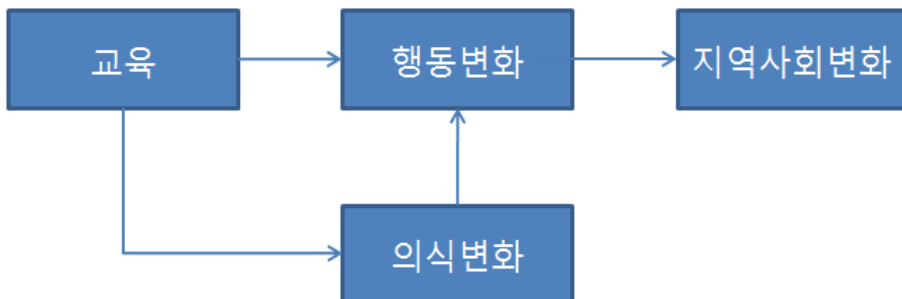
<글상자 2-4> 성공적인 지역사회

- 개인, 단체 및 기관의 강점 구축
- 지역사회 생활을 개선 관련 세부 실천사항과 측정가능한 결과에 집중
- 모든 인종, 성별, 문화와 연령 집단의 참여 장려
- 지역사회의 의사결정권과 소유권 확립
- 전체 지역사회의 자원 발굴
- 건강한 아이, 가족과 지역사회를 개발하는 데 모든 분야를 연계
- 지역사회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경험과 지식을 공유

(Youth Pathway 총리의 실행계획 2001)

나) 농어촌활성화센터 모델의 정립

농어촌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지역사회 변화는 교육을 통한 인간의 의식 변화와 행동 변화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그림 2-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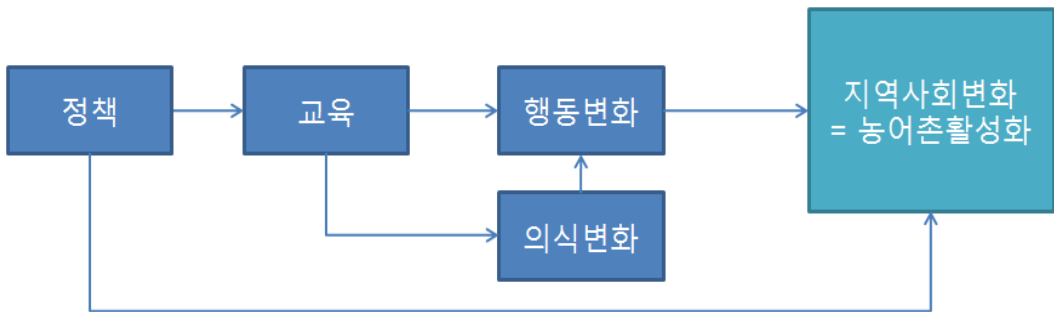
(그림 2-12)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변화 모델

(그림 2-13)은 정부의 정책적인 개입과 교육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변화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성화 과정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정책은 각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주민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 등을 포함한다. 농어촌 지역개발 관련 행동변화 내용으로는 다음 사항을 예로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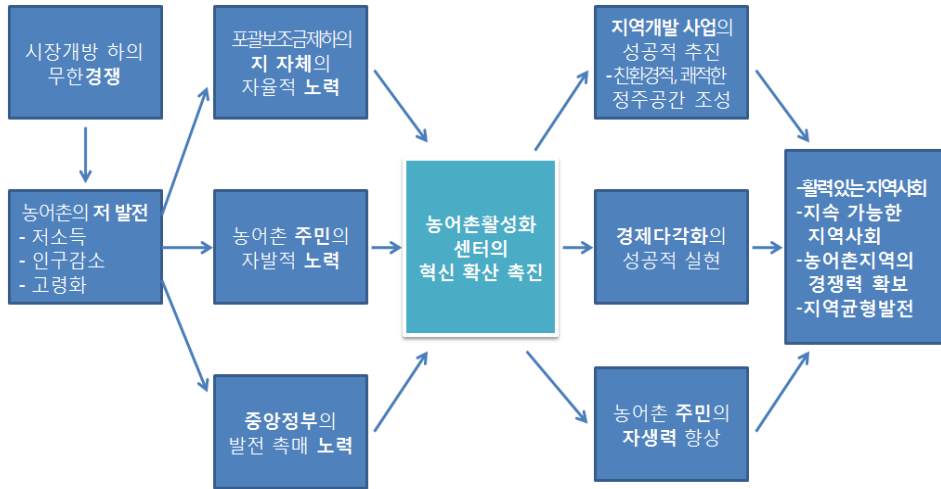
- 마을개발사업 의사결정에의 적극적 참여
- 개발사업 실행과정에서의 적극적 참여
 - 마을개발 전략 및 계획수립
 - 마을개발 조직 결성
 - 마을환경보전
 - 마을 역사문화 보전
 - 마을경관개선
 - 개발부지 선정에의 적극적 참여 및 협력
 - 투자항목의 성공적 조정 및 결정 등
- 개발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과정에서의 적극적 참여
- 개발사업 혜택 수혜 및 사후관리에의 적극적 참여



(그림 2-13) 정책과 교육을 통한 농어촌 활성화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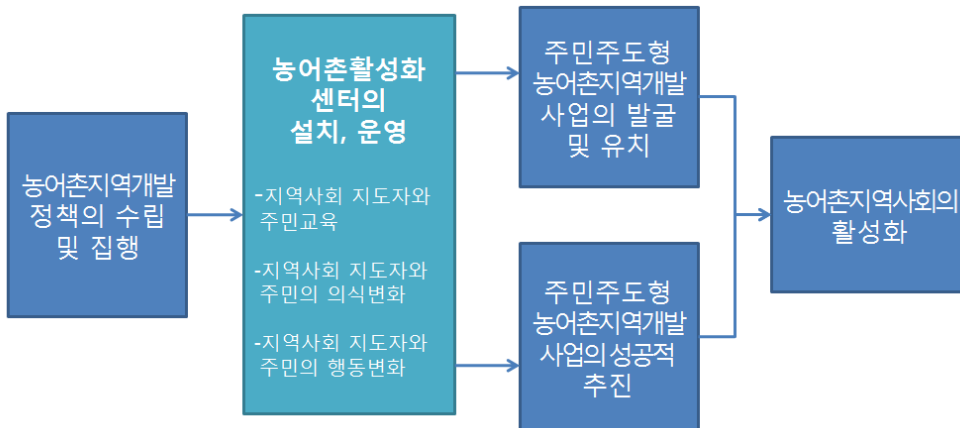
(그림 2-14)는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역할 모델을 보여준다. 시장개방 하의 무한경쟁이라는 대외적인 환경 변화 속에서 농어촌의 저발전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포괄보조금제도 하에서의 지자체의 자율적 노력과 농어촌 지역사회 주민의 자발적인 노력 및 중앙정부의 발전 촉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 환경과 지역사회 여건 하에서 농어촌활성화센터가 설치되어 혁신의 창출과 확산을 촉진한다면 지역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경제 다각화의 성공적 실현 및 농어촌 지역 주민의 자생력 향상이 촉진되어 활력있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지역사회의 구현과 지역 경쟁력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14)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역할 모델

(그림 2-15)는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운영 모델을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농어촌지역개발 정책이 추진되는 여건 하에서 농어촌활성화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주도형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이 발굴·유치되고, 추진되어 농어촌지역사회가 활성화되는 일련의 과정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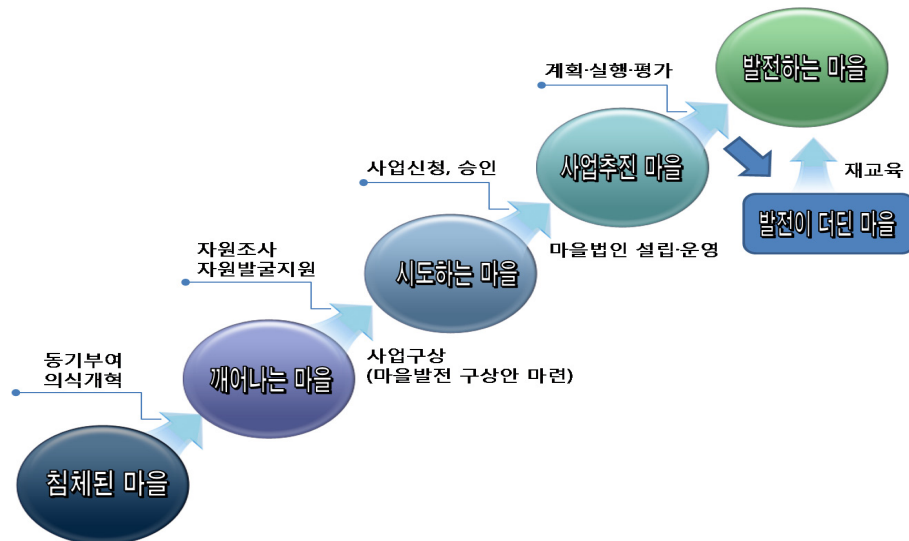


(그림 2-15)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운영 모델

2)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주요 역할

가) 농어촌 지역사회의 역량강화

농어촌지역개발의 소프트웨어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지역사회의 역량강화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농어촌 마을은 발전단계에 따라 침체된 마을에서 부터 깨어나고 있는 마을, 활성화 시도 마을, 자생력을 갖춘 마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지역사회 역량강화는 어느 특정 시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 발전단계에서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역량강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면, 농어촌 마을 발전 단계별 역량강화 방안을 제시하여 보면 <그림 2-16>과 같다.



(그림 2-16) 마을발전 수준별 주요 실천과제

나)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

포괄보조금제도 하에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지역사회 주민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토대로 추진할 필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특히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의 경우, 마을공동소득 창출 및 문화조성 차원에서 2012년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해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역사회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중간연결자로서의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 통합적 농어촌지역개발의 촉진

통합적 농어촌지역개발에는 부문(sector)의 통합과 추진체계의 통합이라는 의미가 담겨있으며, 추진체계의 통합에는 수평적, 수직적 통합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문제해결 접근방식(problem solving approach)의 종합적 개발이 용이하게 되고, 중앙-도-시·군으로 이어지는 기존의 행정 위계체계를 뛰어넘는 협력체계와 네트워크의 구축이 용이하게 된다. 그리하여 시·군간, 도간 연계·협력이 촉진되어 공동계획수립 및 사업 추진 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개발의 접근 방식에 있어서도 업무의 효율성을 앞세운 상명하달식 행정업무 추진방식을 줄이고, 상향식의 교육적 추진방식을 강화할 수 있다.

라) 농어촌지역 활성화 위한 지식의 효과적인 창출과 확산

현대는 지식이 사회 발전을 이끌어가는 지식기반 사회(knowledge-based society)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이와 함께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핵심요소로서 지식자본(knowledge capital)이 부각되고 있다. 농어촌지역개발에 있어서도 지식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기술이전이 이루어지기 용이한 형식지만이 아니라 경험이나 숙달을 통하여 체득하기 쉽고 문서와 같은 형식적인 매체를 통하여 기술을 이전하기 어려운 암묵지를 어떻게 창출하고, 확산시키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농어촌활성화센터는 바로 농어촌지역 개발 관련 성공사례와 경험을 발굴하고, 전파·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마) 농어촌 거버넌스 구축 기반 확립

(1) 농어촌개발 거버넌스의 본질과 중요성

지방분권화 추세와 함께 농어촌개발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개발 관련 이해당사자의 참여폭을 넓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역 단위 농어촌종합개발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어떤 형태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강원도의 도농상생포럼, 평창군, 진안군, 나주시의 농업회의소 시범설치, 한국농어촌공사의 재능기부, 농어촌공동체회사 및 도농교류 지원 등 다양한 단위에서 농어촌지역개발을 위하여 협력관계를 강화하려는 시도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Government가 조직 기구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면 거버넌스

(governance)는 조직 자체보다는 활동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여기에서는 정부조직과 민간단체(NGOs) 등 다양한 조직 사이의 협력을 강조하며, 이러한 협력활동을 통하여 각종 이슈와 갈등의 해결을 도모한다.

거버넌스의 본질적인 특징으로는 지역내외의 다양한 기관과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민간 부문의 참여가 강조되며, 수평적, 수직적 협력과 조정 및 네트워킹이 중시된다. 이와 같은 거버넌스를 통하여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다양한 수준의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민간단체 소속 활동가와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현안사항과 문제의 해결 및 의사결정을 촉진하고 다양한 의사소통과 정보 및 경험의 공유 등을 통해 교육과 역량강화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2) 농어촌개발 거버넌스와 농어촌활성화센터의 관계

내생적 개발, 상향식 개발이 강조되는 가운데, 포괄보조금제도가 도입되어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이 시도되고 있으나, 정작 중앙 단위에서 이를 촉진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거버넌스와 파트너십을 지속성을 갖고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어촌개발 거버넌스를 수평적으로 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 지방과 중앙을 아우르는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농어촌활성화센터는 중앙과 지방을 매개하여 바로 중앙 차원에서 농어촌지역개발을 위한 거버넌스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혁신의 창출과 확산을 촉진하며, 지역의 자율적인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농어촌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농어촌활성화센터의 특징과 역할

농어촌활성화센터는 농어촌개발과 관련하여 다양한 거버넌스와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이끌고 지원하기 위한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역대학에 설치하려는 일종의 중간조직이다.

여기에서는 중앙정부 중 농어촌지역개발 정책을 추진하는 농림수산식품부와와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한 가운데 거버넌스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지방의 혁신 창출과 확산을 지원하고, 지역의 역량강화와 지식기반 강화를 지속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과 기능을 담당한다. 이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정책적으로 도에 있는 대학교에 농어촌활성화센터의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학교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혁신을 생산하는 원천으로서 농어촌 저발전의 악순환을 끊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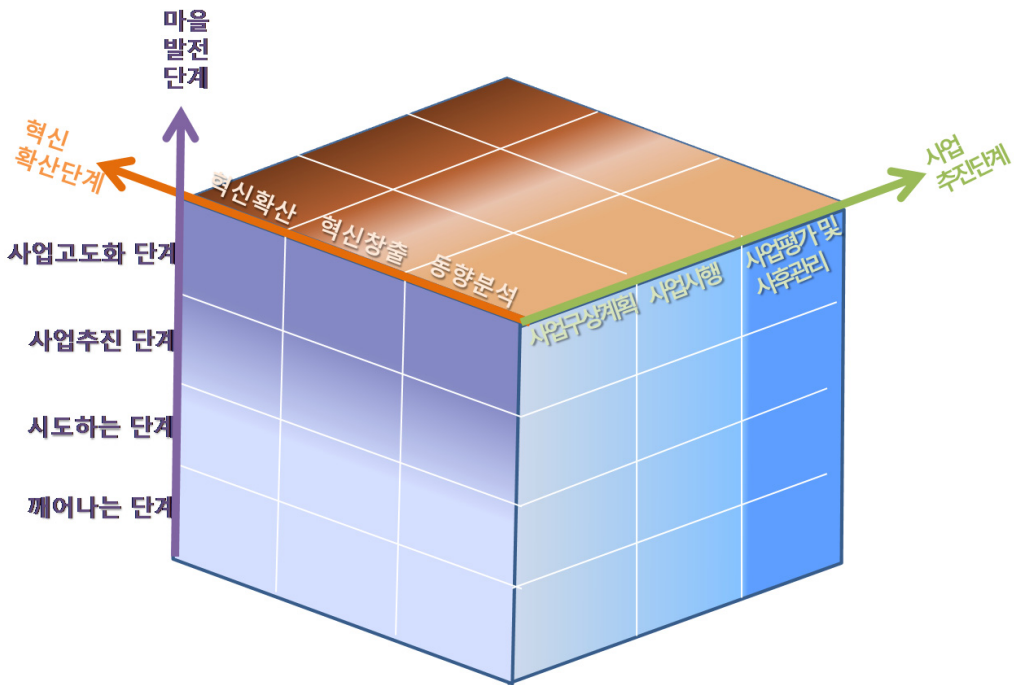
3)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조직구성과 임무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담당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국 외에 활력지원팀과 교육연구팀을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그림 2-17> 참조). 활력지원팀에서는 농어촌 현장포럼과 지역사회 개발 계획수립 시행 및 지원, 지역자원 발굴, 지역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교육연구팀에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지역개발 모니터링 및 지역조사, 성공사례 및 활성화 과제 발굴과 전파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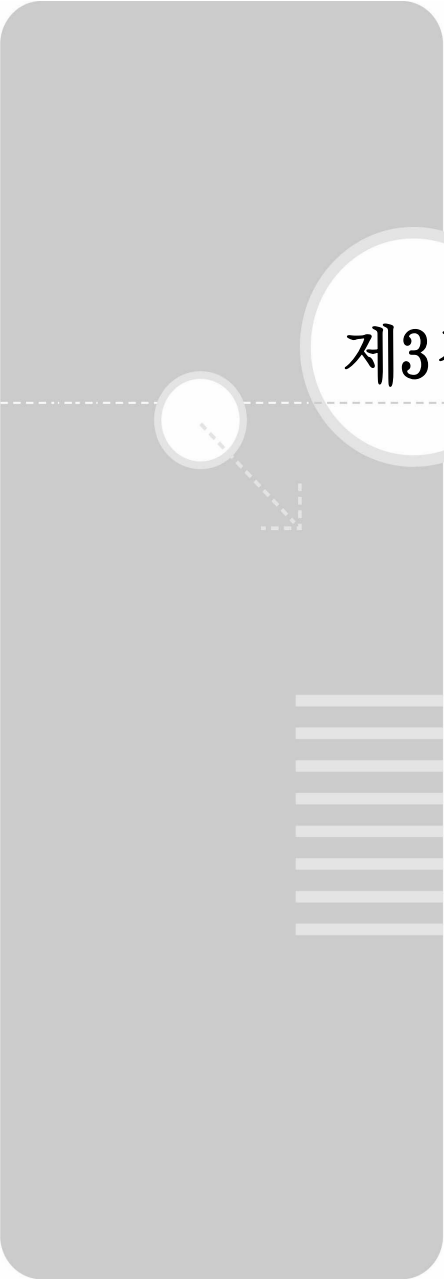


(그림 2-17)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조직구성도

마을발전 단계와 혁신확산 단계 및 사업추진 단계를 고려한 입체적 농어촌 지역개발 모델과 마을발전 수준별 농어촌활성화를 위한 주요 실천과제를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그림 2-18)과 같다. 여기에서는 마을발전 단계와 혁신확산 단계 및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서 서로 다른 다양한 실천과제가 입체적으로 존재함을 보여준다.



(그림 2-18) 입체적 농어촌지역개발모델



제3장

국내외 유사사례

- 가. 국외사례
- 나. 국내사례

3. 국내외 유사사례

가. 국외사례

1) 미국 농촌지도사업

가) 미국 농촌지도사업의 배경

① 농촌지도사업의 필요성

농촌지역 개발은 농업인들의 생계수단 및 복지를 포함한 전반적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그간 농촌개발 계획은 농업인을 제외한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는 농촌지역 개발에 있어 지역주민의 역할을 배제한 결과라는 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농촌지역의 개발은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의지가 요구되므로, 지역 발전 및 개발방향 설정에 있어 농업인들에게 주체적인 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② 미국의 농촌지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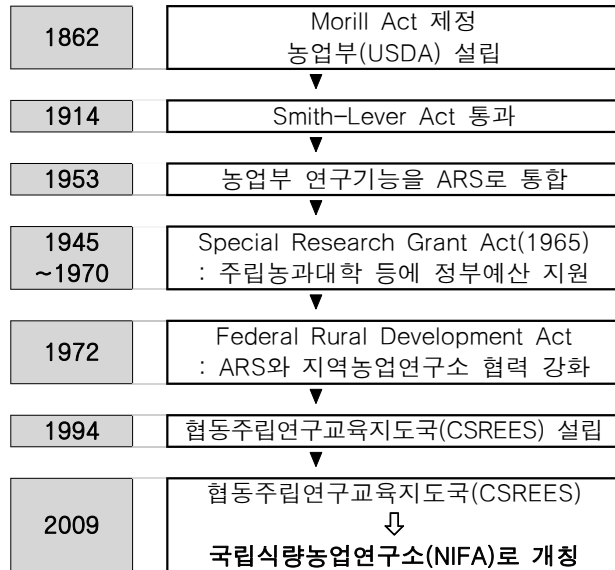
미국 농촌지역 개발의 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적 수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체계적인 농촌지역 계획 및 관리를 위해 미국은 농업부(USDA : U.S. Department of Agriculture)를 설립하였다. 농업부의 주도하에 농촌주택사업, 농촌 기반시설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농촌 지역자원 파악 및 사업개발을 위한 전문적 연구개발(R&D)기관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연구 체제를 구축하였다.

미국은 농촌의 실질적인 요구에 입각한 적합한 사업의 판단, 농촌지역 주민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2009년 **국립식량농업연구소(NIFA :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를 설립하였다. NIFA는 각 주립농과대학(Land-grant College/University) 및 시·군 농촌지도 조직과 연계하는 지도사업을 추진하여 정부와 지역의 소통을 연계하고, 지역 주체적 사업 진행형식을 보이고 있으며 본 사례는 국내 농어촌 활력창출을 위한 센터설립의 우수사례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고찰을 실시하였다.

나) 미국 농촌지도사업의 연혁

미국은 1862년 Morill 법을 제정하여 주립대학에서 시민들에게 고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Land Grant 제도를 도입하였다.(김성수 외, 2010)같은 해 미국 농업부(USDA : U.S. Department of Agriculture)를 설립하여 국가적 수준의 농업 관리 체제를 확립하였고, 1914년 Smith-Lever 법을 신설하여 농업과 생활개선에 관련된 유용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농촌지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1965년 Special Research Grant 법이 통과하면서 주립농과대학에 정부 예산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1994년 협동주립연구교육지도국(CSREES : Cooperative State Research Education & Extension) 설립을 통한 본격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후 2008년 농업법(Farm-Bill)이 제정되며 협동주립연구교육지도국은 기존의 한계를 극복한 NIFA(NIFA :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 : 이하 NIFA)로 개칭되었다.



(그림 3-1) 미국 농림수산식품 R&D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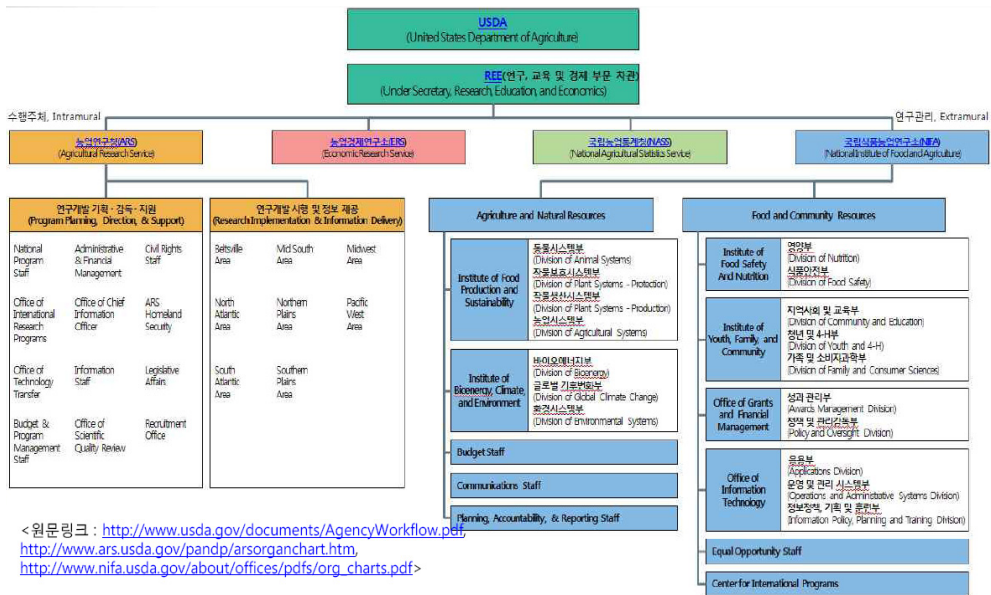
(자료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조사분석팀, 2011)

다) 미국 농업부문 주요 R&D 체계

① 미국 농업부문 주요 R&D 조직체계

연방정부에서는 농업부(USDA) 내에 NIFA를 두고 주립농과대학의 농촌지도사업과 연구사업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의 농업부, 연구·교육 및 경제차관(REE : Research, Education, Economics : 이하 REE), 그 이하 산하기관으로 조직체계가 이루어져 있으며, REE의 산하기관으로 NIFA, 농업연구청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 이하 ARS), 농업경제연구소 (Economic Research Service : 이하 ERS), 국립농업통계청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 Service : 이하 NASS)의 4개 기관이 존재한다.



(그림 3-2) 미국 농업부 산하 R&D 기관 조직 체계

자료 :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 조사분석팀, 2011

② 미국 농업부문 주요 R&D 조직

㉞ 미국 농업부

미국 농림수산물식품의 최상위 조직으로, 식량·농업·자연자원 부문의 관리

를 책임지는 정부부처임. 각종 지원정책의 입안, 연구, 실무관리 등을 담당한다. 농업법 제정에 따라 농업관련 지원분야를 확장하고, 그에 따른 지원 보조금 투자의 비율도 확대하고 있다.

㉔ 연구·교육 및 경제차관(REE)

농업부 산하기관으로 실질적 농업 관련 연구조직인 NIFA, ARS, ERS, NASS 기관과 농업부의 원활한 소통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직으로, REEO(Research, Education, Economics Office)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교육, 연구, 지도 활동을 도모하고 있다.

㉕ NIFA, ARS, ERS, NASS

REE의 산하기관으로 농업관련 연구 지원, 연구진행, 기반자료 확보 및 통계정보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각 기관별 정의는 다음<표 3-1>과 같다.

<표 3-1> 농업부문 R&D 수행을 위한 REE의 4개 산하기관

기관	역할
NIF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관련 연구개발, 교육, 지도사업 등을 위한 자금 지원 주립농과대학 등 파트너십을 통한 정부-지역을 연계 협력사업
A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부(USDA)내 농업연구 담당 미국인 생활에 영향을 주는 농업관련 문제점 해결에 관한 연구
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과학·경제정보 등 기반자료 제공 농식품 관련 경제·정치적 이슈에 대한 경제연구 관련 기반자료 제공
NA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정보 제공을 통한 미국농업 경쟁력 제고 효과적인 국내 농업생산 및 마케팅 촉진을 위한 통계정보 제공 정책 결정자를 위한 통계정보 제공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7년 ARS와 NIFA의 통합법안 제시/현재 계류중 기능 중복 방지 및 예산절감 기대⁵⁾

자료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조사분석팀, 2011, 미국의 농림수산식품 R&D 추진체계(www.ipet.re.kr), NIFA 공식홈페이지 (<http://www.nifa.usda.gov>)

5) 2007년 농업법 개정안으로 상정되어 계류 중

- 통합논의의 배경 및 장점

* ARS와 NIFA 연구기능 중복 방지 : ARS와 NIFA는 기초·응용연구, 식물과 동물, 식품과 영양, 자연자원 등에 대한 광범위한 농림수산식품의 현안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음

* 연구사업과 지도사업 협력강화

* 통합운영을 통한 예산절감

- 단점

* 농촌지도 기능 약화 가능성

2) 미국 국립식량농업연구소(NIFA)

가) 국립식량농업연구소(NIFA) 개요

① 국립식량농업연구소 생성배경

2003년 연방정부는 협동주립연구교육지도국(CSREES)의 한계를 인식하였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T/F Team을 구성하고, 2004년 자체발전계획이 포함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로 인해 농업법 제정으로 CSREES의 기능 확장 필요성이 명확해졌고, 본 지도국의 모든 업무를 승계하되, 확장된 범위의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NIFA를 창설하였다.

② 국립식량농업연구소(NIFA)의 목표

NIFA는 연방차원의 전체적인 지도사업 프로그램으로서, 주립농과대학(local-grant college/university)과 시·군 지도조직을 연계하는 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다. 농업연구청(ARS)의 연구 및 주립농과대학의 연구, 교육, 지도사업간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며,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도정책의 가교역할을 하며, ‘국가적 수준의 리더십 프로그램 추진’ 및 ‘농업부의 연구보조금 조성 및 분배의 기능’을 주목표로 한다.

③ 국립식량농업연구소(NIFA)의 특성

NIFA 연구소장(Director)은 6년 주기로 대통령(president)이 직접 지목하며, 연구소장은 농업부 장관 및 장관 대리인에게 직접 업무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연방정부와 농촌지역 사업간의 연계성을 증대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지도사업의 대상을 기존의 농업인 뿐 아니라 농촌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확대하고, 비농업인·비농업분야로 확장함으로써 보다 다방면에 걸친 통합적인 지도활동을 추진하여 지도사업의 대상 및 내용을 확장하였다. 그리고 농업법 제정에 따라 기존 농업부의 NRI(National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 국가연구사업)의 지원체제를 AFRI(Agricultural and Food

Research Initiative, 농식품연구사업)로 개칭하여 보조금 지원규모 및 대상을 강화하고 체제를 개선 확대하였다. 신재생 에너지(Renewable Energy), 식물안전, 영양 및 건강(Food Safety, Nutrition, and Heathy), 식물 건강 및 식물 생산품 생산(Plant Health and Production and Plant Products), 동물 건강 및 동물 생산품 생산(Animal Health and Production and Animal Products), 농업 시스템 및 기술(Agricultural Systems and Technology), 농업 경제 및 농촌지역사회(Agricultural Economics and Rural Communities)의 6 가지 신규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이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NIFA 산하 6가지 신규 프로그램 사무국을 설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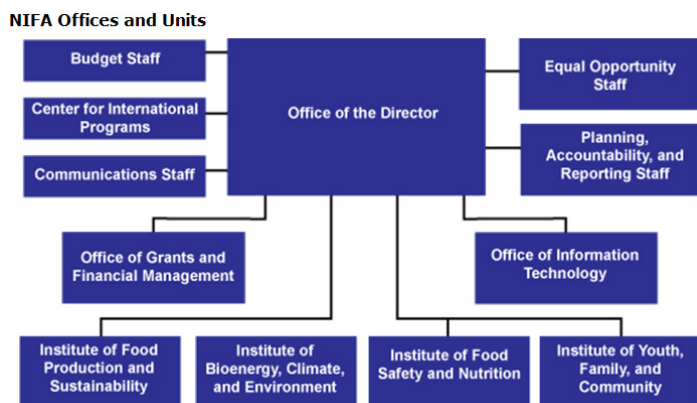
나) 국립식량농업연구소(NIFA)의 조직구성 및 운영시스템

① NIFA의 조직구성

NIFA의 조직은 연구소장(Director)을 중심으로 크게 ‘행정역할 수행’을 위한 조직과 ‘연구 및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으로 구성됨. 예산수립, 커뮤니케이션, 계획·진행·평가, 기술지원, 재정관리, 식량생산 기관, 기후환경, 식량 안전 및 영양, 가족학 등 농업인과 그 외 지역민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에 대한 담당자를 설정하여 통합적이고 전문성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NIFA에는 총 11개 부서가 존재하는데 각 부서와 수행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Director : NIFA 총괄관리.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조직 대표
- Budget Staff : 주립농과대학, 기타연구기관, 연구·교육·지도 활동을 위한 개인에게 지원금을 지원, 예산 관련 행정적 역할
- Equal Opportunity Staff(EOS) : NIFA의 예산 지원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여 NIFA와 주립농과대학의 파트너십을 통한 국가적 리더십과 지도 제공
- Communication : 각 기관의 리더십 및 커뮤니케이션 제공
- Planning, Accountability and Reporting Staff : 전략적인 계획, 진행, 평가를 통해 리더십을 향상시키는 스텝
- Office of Grants and Financial Management

- Office of Information Technology
- Institute of Food Production and Sustainability
- Institute of Bioenergy, Climate, and Environment
- Institute of Food Safety and Nutrition
- Institute of Youth, Family, and Commu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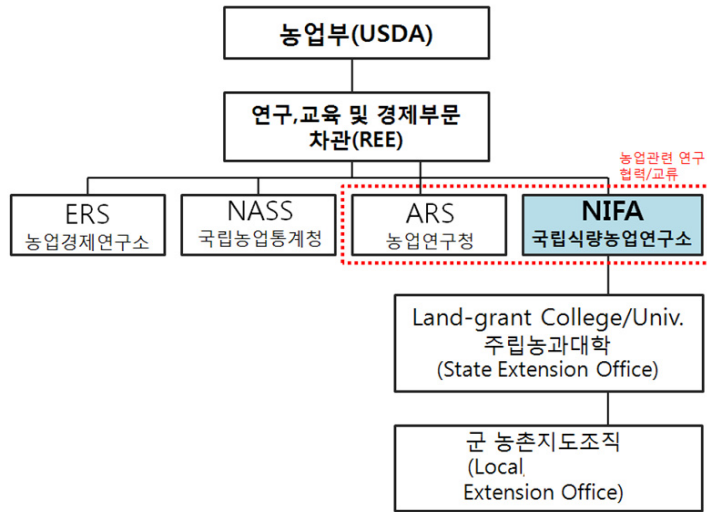
(그림 3-3) NIFA 조직구성

자료 : NIFA 공식홈페이지(<http://www.nifa.usda.gov>)

② NIFA의 운영시스템

NIFA는 미국 연방차원의 전체적인 지도사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예산지원 및 각 주립농과대학, 시·군 지도조직과 연계한 지도사업을 추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시·군 단위에서 요구하는 지도과제에 대해 주정부를 거쳐 연방정부에 요구하여 결정되는 수요자 중심(Demand-Driven) 과제선정 양상을 보이며 주, 시·군 지도조직간 연계는 사업 프로그램의 설정과 예산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NIFA의 지도조직은 주립대학의 State Extension, 시·군 단위의 Local Extension Office, County Office이며 County Office에는 약 1~25명의 Extension Agents과 7~8명의 Specialist로가 근무한다. 또한, 시·군별 농촌지도 프로그램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3-4) NIFA 운영시스템 체계

자료 : NIFA 공식 홈페이지(<http://www.nifa.usda.gov>) 내용 재정리.

지도조직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지역 주민의 참여기회를 제공
- 프로그램 선정 및 지도대상의 순위를 부여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할 사업 및 대상지를 선정
- 농촌지도 관련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그 결과를 평가
- 보조금 지원을 통한 재정적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적합하게 분배

다) 국립식량농업연구소(NIFA)의 주요역할

① NIFA의 주요방향

정부 차원의 국가지도사업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지방 지도조직의 예산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예산은 시·군의 규모, 총인구, 농업인구 등을 고려하여 배분
- 주립농과대학에 직접 보조금 지원하여 국가 수행 지도과제를 지방정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 각 주와 시·군에서 NIFA의 사업 이외의 자체 예산을 설정하여 지역별 사업을 수행

주립농과대학, 타 파트너 조직과의 연구·교육·지도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농업지식, 환경문제 해결방안, 인류건강 및 웰빙 등에 대한 지식을 확보하고, 지역에 본 자료를 보급함으로써 파트너십을 통한 농업관련 지식을 창출한다.

또한 주(state) 혹은 지역(local) 차원의 지원을 통한 ‘리더십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NIFA는 연구, 교육, 지도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나, 국가와 지역의 기준에 적합하게 기금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에 적절한 NPL(National Program Leader)⁶⁾을 소개하여 사업 진행을 도모하며, NIFA의 리더는 NIFA의 파트너와 농업인(지역주민)을 연결하여 정부 지원을 위한 지역관련 문제 및 이슈를 제기한다.

NIFA에서 운영하는 CRIS(Current Research Information System) 홈페이지⁷⁾를 통해 농업관련 프로그램을 공고하여, 지원자들로 하여 주체적인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한 체제를 설정함으로써 농업관련 연구원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프로그램 지원자를 선정한다.

NIFA의 프로그램 지원자 선정과정을 살펴보면, 수행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정부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자들의 지원서(포트폴리오)를 접수·평가하여 프로그램 수행자를 선정한 후, 예산집행 및 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그림 3-5) NIFA의 프로그램 지원자 선정 과정

자료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조사분석팀, 2011.

6) NPL : NIFA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권한을 부여받은 전문가 조직

7) CRIS(Current Research Information System) : NIFA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USDA 농식품 과학, 산림연구, 교육, 지도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검색 가능(주소 : cris.nifa.usda.gov/)

NIFA의 국가지도 프로그램은 총 12개 주제, 62개 프로그램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표 3-2>와 같다.

<표 3-2> NIFA의 국가지도프로그램

분류	내용
<p>주제 (Subject : 12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gricultural System, ◦ Animal & Animal Products ◦ Biotechnology & Genomics ◦ Economics & Community Development ◦ Education ◦ Environment & Natural Resources ◦ Families, Youth & Communities ◦ Food, Nutrition & Health ◦ International ◦ Pest Management ◦ Plants & Plant Products ◦ Technology & Engineering <p>※ 각 주는 1~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연계함</p>
<p>국가지도 프로그램 (National Extension Program : 62개)</p>	<p>농업과 생물공학, 농산물 시장과 교역, 작물과 농작물 수확, 공기의 질, 동물과 식물의 생물학적 안전, 동물의 번식/유전, 동물 건강, 동물 영양과 성장, 동물의 생산품(Animal Products), 동물의 번식, 동물의 복지, 수산양식, 생물학적 해충관리, 생물학적 생산 및 처리, 생물정보학, 생명공학, 자녀 교육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위험한 상황의 지역사회, 생태, 환경과 경제적 측면의 자원, 가족 과학, 농장 재정관리, 재정 안전, 어류와 야생식물, 식품안전과 생물학적 안전, 식품 과학과 기술, 산림, 세계적인 변화와 기후, 세계 연대, 건강, 원예, 주택 및 가정환경, 기아와 식품안전, 정보기술교육, 종합병해충관리, 침략적인 종(種)(Invasive Species), 리더십과 자원봉사자 개발, 비료와 영양관리, 미생물 유전, 나노기술, 영양, 비만과 건강한 체중, 유기농업, 살충제, 식물 번식/종과 유전, 정밀 농업, 공공정책, 방목장과 목초지, 농촌지역사회 개발, 전자감지 기술, 소규모 가정의 비즈니스, 소규모 농장, 토양, 지속가능한 농업, 지속가능한 개발, 도시 프로그램, 수질, 노동인구 개발 및 안전, 청소년 개발과 4-H, 청소년 교육</p>

자료 : NIFA 공식홈페이지(<http://www.nifa.usda.gov>),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정보원, 2010, 해외농업 R&D 기획·평가·관리 기관의 체계와 역할,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pp.69~72 내용 재구성

② NIFA의 주요역할 : 연구, 지도, 교육

㉞ 연구(Research)

NIFA의 주요 파트너인 주립농과대학 및 각 지역 조직과의 파트너십(Partnership)을 통해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국가적인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정부 보조금을 각 주립대학에 직접 지원하여 지역의 독립적 체제의 연구진행이 가능하게 한다. 지역, 상황, 환경 등이 공유되는 유사한 지방의 경우, 복수 이상의 대학 및 기관이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하기도 한다.⁸⁾

<표 3-3> NIFA 연구 내용

분류	내용
연구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분야, 연구분야, 지도분야 (교수진 : 교육, 연구, 지도업무 겸직함) ◦ 미국 전역에 130여개의 주립농과대학 위치
연구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자중심(Demand Driven) 과제선정 ◦ 유사범위(지방)의 대학 및 기관과 협력연구
주요 연구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관리 강화, 아동·청소년 건강, 안전 및 지역사회 개발 ◦ 농업 생산성·소득증대, 농업 경쟁력 향상 ◦ 지속가능한 자연자원·환경 ◦ 농업인 삶의 질 향상

㉞ 지도(Extension)

NIFA는 지역을 대상으로 농업, 리더십 개발, 자연자원, 지역사회 및 경제개발 등 농업사회의 소득을 증대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다방면의 지식 및 정보를 지도한다.

8) NIFA는 타 기관과 협력을 통해 Regional Center를 지원하여, 농촌지역을 포괄하는 지방(regional) 혹은 전국적(national) 범위의 사업을 연계하기도 함(예) Northeast Regional Center for Rural Development, p.16, 부록 3 참조)

<표 3-4> 지도활동 영역

지도영역	내용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생산력 및 소득생산 ◦ 대안산업, 시장전략 개선, 관리기술, 자원관리를 통한 농업인의 생산품 개선, 해충관리, 토양시험 등
리더십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도 사업을 위한 리더 수행 능력 ◦ 지도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지도
자연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의 자연자원 관리능력 ◦ 교육적 프로그램 운영
가족 및 소비자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및 가족건강 증진 ◦ 영양학, 식량비축법, 육아 등을 지도하여 가족 건강 증진
지역사회 및 경제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정부 개발 및 경제성장 ◦ 직업창출, 중소기업 개발, 관광산업, 토지개발계획 등
4-H	-

자료 : NIFA 공식 홈페이지(<http://www.nifa.usda.gov>)

NIFA는 2008년부터 인터넷 기반의 농촌지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주, 지역, 시·군 간의 광범위한 네트워크(Network)를 통한 지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기관(주립농과대학 등)의 지도활동을 웹사이트⁹⁾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객관적인 정보와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전문가와의 원활한 접근을 위한 소통창구를 마련하였다. 현재 12개 주제에 대한 62개의 National Extension Program을 진행 중이다.

㉞ 교육(Education)

NIFA는 공공기관, 민간 파트너, 주립농과대학 등과의 협력을 통한 지식과 정보를 구축하고, 지역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활동을 통하여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고등교육의 과정을 개선하며 과학적 지식을 지닌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NIFA는 AITC(Agriculture In The Classroom)와 FAEIS(Food and Agricultur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지식 보급 프로그램과 고등교육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 인원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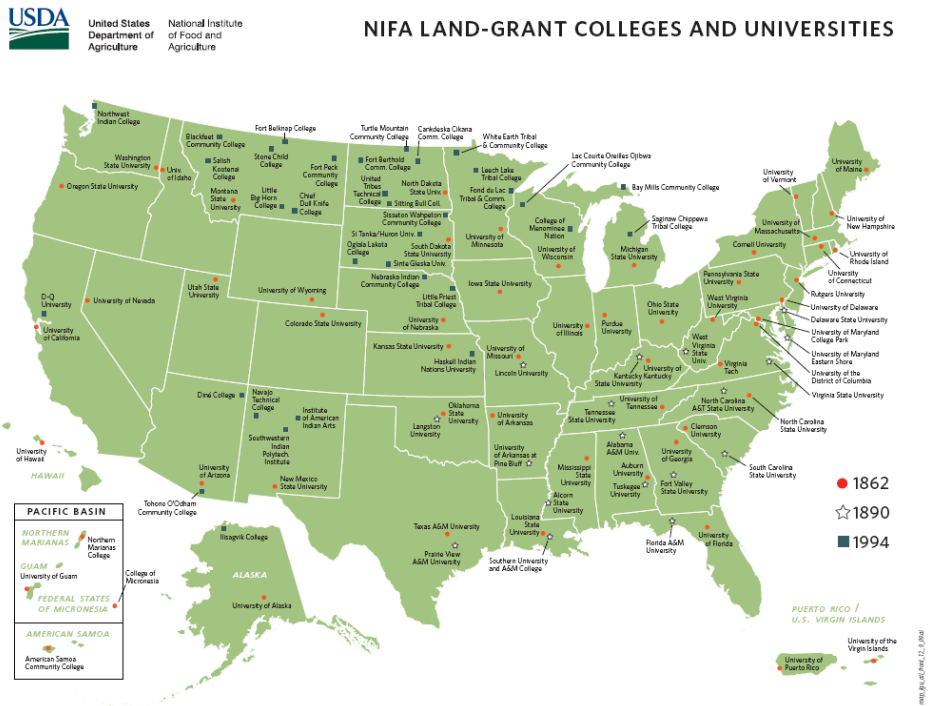
9) 지도활동 웹사이트(extension-website)는 COP(community of practice)로 구성됨(각 COP는 기사, 파트너 조직의 새소식, 지도활동 이벤트, 온라인 교육 기회, FAQ 등 포함)

<표 3-5> NIFA 주요 교육 프로그램

분류	내용
AITC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트너십 연계를 통한 전문적 지식개발 및 보급 프로그램 매년 컨퍼런스(포럼)진행 및 유인물 자료를 통한 교육지식 보급 각 주 마다 독립적인 AITC 운영 정부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FAE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립대학과 파트너십을 이루어 진행하는 시스템¹⁰⁾ 식품 및 농업과학에 대한 고등교육 정보 제공 식품 및 농업과학분야 학위과정 안내

※ 자료 : NIFA 공식홈페이지(<http://www.nifa.usda.gov>)

NIFA와 파트너를 이루는 주립농과대학은 약 130여 개소 존재한다. 다음 (그림 3-6)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림 3-6) NIFA의 Land-grant Colleges & Universities

자료 : NIFA 공식홈페이지(<http://www.nifa.usda.gov>).

10) NIFA와 버지니아폴리테크닉주립대학교(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의 연계

③ NIFA의 주요업무

최근 세계적 식량 및 기아 대책,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생물에너지, 소아비만 대책, 식량 안전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CSREES에서 실시하던 기존 이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표 3-6> NIFA의 주요업무 목록

분류	내용
최근 주요 업무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 식량 및 기아 대책 ◦ 기후변화 ◦ 지속가능한 생물에너지 ◦ 소아비만 ◦ 식량 안전
기존 주요 업무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식물 생산과 보호 ◦ 자연자원과 환경의 보전 ◦ 농촌경제와 사회의 개발 ◦ 가정관리 ◦ 영양관리 ◦ 4-H 육성 ◦ 경쟁력을 갖춘 연구협력 강화 ◦ 과학교육자원 개발 ◦ 홍보기술 및 원격교육 개발 등 ◦ 농업관련 연구자(ARS, 농과대학 등)와의 공동연구사업 지원 ◦ 도시민 농업관련 정규 교육프로그램 업무 관장

자료 : NIFA 공식홈페이지(<http://www.nifa.usda.gov>)

1998년 농업 연구·보급 및 교육개혁에 관한 법(AREERA : Agricultural Research, Extension, and Education Reform Act of 1998) 제정을 토대로 사업의 투입(사업 투입 인력), 산출량(농업인에게 전달되는 정보 및 지식 수량), 성과(농업인들의 생활개선 및 환경개선효과), 과정(사업 프로그램 계획·평가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도)을 평가하는 성과관리체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담당자는 각 프로그램의 성과결과를 구체적으로 게재하고 있다.

라) 국립식량농업연구소(NIFA)의 예산체제

① NIFA의 예산체제

NIFA는 국가의 연방기금을 대학, 개인, 교육 및 지도활동 등에 지원하며, 보조금 유형은 ‘Competitive Grants’, ‘Formula Grants’, ‘Non Competitive Grants’의 3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유형별 세부내용은 <표 3-7>과 같다.

<표 3-7> NIFA 주요 보조금 유형

유형	내용
Competitive Gra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적 관심사가 되는 주요 농업이슈에 대한 보조금 ◦ 지원자 중 개인·기관을 경쟁을 통해 선발하여 보조금 지원
Formula Gra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예산 중 가장 큰 비중 ◦ 주립농과대학 지원 ◦ 농촌인구 및 농업종사인구, 지역규모 등을 기준으로 배분 ◦ 농업부가 배정하는 금액만큼 정부가 지원
Non Competitive Gra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지역 주요 문제해결을 위한 특정 연구기관·조직 지정, 보조금 지원 ◦ 특수목적 연구자금 또는 연방정부의 직접지원자금 활용

자료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조사분석팀, 2011, 미국의 농림수산식품 R&D 추진 체계(www.ipet.re.kr), 사단법인 농정연구센터, 2009, 농업기술연구개발 효과분석과 기술보급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농촌진흥청, p.76 내용 재정리

② NIFA의 농업식품연구사업(AFRI)

농업식품연구사업(AFRI : (Agricultural and Food Research Initiative)¹¹⁾은 NIFA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미국 최고의 농업연구 프로그램으로, 미국 농업발전 관련 주요이슈에 대해 대학 및 기타연구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11) 2008년 농업법 제정에 따라 기존 농업부의 NRI를 AFRI로 대체함

<표 3-8> AFRI 주요내용

분류	내용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개발, 기술전환, 교육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지원체제 ◦ 농업관련 연구 입문자 보조 ◦ 중·소 규모 기관 보조 ◦ 능력 저하 주의 연구, 지도, 교육 능력 보조 	
보조금 지원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농업시험기관, 주립대학, 대학연구재단, 기타 연구기관 및 조직, 정부기관, 국가 연구기관, 민간조직 및 기관, 민간단체, 협력기관 ◦ 그 외 기관으로 지원기관 확대 	
집중 지원 주제	식량 및 기아대책	◦ 농업생산을 위협하는 동식물 질병 예방 연구 및 교육
	기후변화	◦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환경체계 피해 완화
	지속가능 생물에너지	◦ 수확량 증대를 통한 농촌사회 자립 도모
	소아비만	◦ 비만예방 등을 위한 활동
	식량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 수확 전·후 과정의 전염병 연구 ◦ 수확량 증대 및 재배과정, 미생물 연구, 농산물 가공 및 보존 관련 연구 등
지원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를 위한 Competitive grant/Formula grant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구¹²⁾ - 응용연구¹³⁾ - 지도 - 교육 - 통합연구, 교육, 지도 ◦ 연구·교육 및 경제 차관(REE)의 6개 신규 연구분야⁴⁾ 지원 	
보조금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가치, 질, 적합성 평가 ◦ 연구진행자 수행능력 : 지원원서, 기존 업무성과 심사 ◦ 10년 이상 지원 지속하지 않음(면밀한 연구결과 평가) 	
예산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2012 회계연도까지 7억 달러 국가 재정 책정¹⁵⁾ ◦ 점차 증가 추세 	

12) 기초연구 : 동·식물, 에코시스템(eco-system), 식량 시스템(food-system), 지역사회 등

13) 응용연구 : 신지식을 이용, 개인과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증적 방법론 연구

14) 본문 p.4 참조

15) 약 30% 통합연구 지원/약 60% 기초연구(중합학문연구에 약 30%, 기반 보조금(equipment grant) 약 10%) 지원

3) 미국 NERCRD

가) 개요

① NERCRD의 개요

1970년대 Cooperative State Research Service의 농업연구가 시작되었고, 1972년 Rural Development Act에 따라 센터에 지도(extension) 기능이 추가되었다. NERCRD(Northeast Regional Center for Rural Development)는 본래 코넬대학교에 위치하였으나, 1985년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으로 이전하였다.¹⁶⁾ 또한 NIFA는 Northeastern Regional Association of State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Directors와 함께 NERCRD를 지원한다.

② NERCRD의 목표

소규모 마을과 지역은 농촌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로, NERCRD는 농촌지역을 지방(regional) 혹은 전국적(national) 수준으로 연계하여 농촌개발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한다. 소규모 마을 및 농촌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규모 마을 및 농촌지역에 적응력을 높이고 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함
- 소규모 마을 및 농촌지역의 웰빙을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함
- 시대의 변화에 적응 가능한 지역사회 능력을 배양함
- 각 가정과 지역사회의 자립능력을 양성하여 생존력을 증진시킴
- 농업, 지역사회, 환경자원 등을 포함한 자연자원의 산업화

16) 그 외의 센터는 Southern Center(미시시피주), North Central Center(미시간주), Western Center(유타주) 등이 있음

나) 주요역할

①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연구 진행

NERCRD는 지방과 전국적 기준의 접근을 통해, 타 농촌지역 파트너와의 협력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이용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며, 파트너는 다음과 같은 집단으로 설정 가능하다.

- 시민, 지역사회 결정자, 조직 리더, 기타 농촌개발 전문가
- 지방 혹은 전국 기준의 민간단체
- 주, 지방, 전국의 정책입안자
- 대학의 연구 및 지도자, land-grant institutions, 지역전문가 등

② 지방, 전국 단위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각기 다른 지방, 주에 위치한 전문가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자문·사업제휴·협력 연구 등이 가능하다.

- 센터조직 : 총괄, 행정지원, 사업지원
- 기술자문 네트워크 : 연구(research)와 지도활동(extension) 별 자문위원을 연계함
- 제휴센터 네트워크 : 각 주립대학의 지도, 농업, 경제, 정책 관련 전문가(교수)와 제휴함
- 이사회 : 농업 및 지도 관련 학과 교수·단체대표, 의회관계자 등으로 이사회를 구축함
- 협력연구 : 타 센터(예> Regional Rural Development Centers(RRDC))와 협력 연구를 진행함

③ 농촌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설정

지방(regional) 기준의 자원 및 각 주 별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각 권역별 연계 가능한 사업자료 제시하고 있으며, 다른 Regional Rural Development Centers들의 정보를 제공하여 연계사업 및 지식

공유가 가능하다. 또한 국제적 네트워크 소스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다.

- Regional Resources
- Regional Resources By State : 대학, 지도교육단체, 기타 등
- Regional Rural Development Centers(NCRCRD : North Central Region / SRDC : Southern Region / WRDC : Western Region)
- Federal Government)
- Funding Sources)
- Foreign & International Rural Development)
- 비영리재단
- 컨퍼런스 정보 제공

연구결과 등 첨단기술 및 지식정보 보급을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learning 프로그램 운영
- 농촌지도 관련 자료, Rural County Business Report, IT&지도활동 web-book, 프로젝트 보고서, 카탈로그, 연차보고서, 뉴스레터 등

④ 프로그램 운영

Land-grant, 각 지방 혹은 전국적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한 연구·교육 자원의 개발·보급 활성화를 통해 지역능력을 배양(Community Capacity Building)하며, 경제개발(Regional Economic Development)을 위해 농촌지역은 소규모, 지역고립, 인구감소, 저조한 취업률 등의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본 센터와 타 농촌개발센터의 협력을 통해 농촌의 기존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창출한다.

㉠ 사업능력(Entrepreneurship)

- 타 지방 혹은 전국단위의 주립농과대학, 기타 파트너들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민·지역의 사회성 및 사업능력을 양성하고, 지속적인 경제개발을 위한 방향을 설정함

㉔ 국지적 식량 시스템(Local & Regional Food Systems)

- 연구자·지도자는 개인, 기업, 지역사회들로 하여금 식량 시스템 등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에 대해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분석, 트레이닝, 기술’을 지원함

4) 영국 전국농촌네트워크

가) 유럽 네트워크 개요

유럽 네트워크 (ENRD: European Network for Rural Development)는 농촌개발을 위한 주요 유럽 차원에서의 농촌개발사업이다. 이는 농촌개발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구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농촌개발을 위한 유럽 네트워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EU의 농촌개발 현황을 정보수집 및 분석
- 농촌지역개발에 대한 정보 제공
- 회의 및 세미나를 조직
- 전문가의 정보교환 및 농촌개발정책의 실행 지원, 평가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 전국 네트워크와 다국적 협력

ENRD 관련자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관련 행정기관
- 농촌의 네트워크
- 유럽차원에서의 관련기관
- 로컬 액션 그룹(Local Action Groups)
- 기타 기관 및 농촌개발에 관심있는 사람



(그림 3-7) ENRD의 조직구조

(그림 3-7)은 ENRD의 조직구조를 보여주는데, 주요 하부조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ENRD의 연간 업무 계획 및 활동의 준비와 실행을 도움
- 농촌발전을 위한 ENRD, 전국농촌네트워크와 기관간의 연계 보장
- ENRD 주제 조정

LEADER 분과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Leader 축에 관한 ENRD의 연례 작업 프로그램 권고
- 주제별 작업 조정
- 다국적 협력 사업의 위원회 모니터링

농촌개발을 위한 유럽평가 네트워크는 전문지식을 교환하고, 농촌개발 정책의 평가에 관한 모범사례를 구축한다.

ENRD Contact Point는 농촌개발을 위한 유럽 네트워크의 기술지원과 함께 유럽위원회(농업 및 농촌 개발을 위한 총괄부서)에 참여한다. ENRD에 대한 기본 지원기구로서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조정위원회, Leader 분과, 주제별 작업그룹을 지원
- ENRD 협력, 정보교환, 네트워킹 및 출판물에 대한 지원
- 분석/농촌개발프로그램 및 지표의 요약에 대한 지원
- 수집 및 프로그램 구현에 관련된 경험 보급
- 유럽수준의 미팅 및 세미나 조직

운영측면에서의 ENRD Contact Point는, ENRD 전략의 세 그룹의 세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 기술 개발(분석)
- 지식 공유(통신)
- 교류와 협력(네트워크)

ENRD에 대한 법적 근거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농촌개발 정책을 관장하는 중요한 규칙인 농촌개발은 유럽농업기금(EAFRD)의 이사회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회원국과 그 지역에서만 적용되며, 이 규정에 따른 2007년에서 2013년에 대한 농촌개발 정책은 3가지의 주제와 한가지의 수평적인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8) 유럽농업기금의 구성

나) 영국 전국농촌네트워크의 배경

27개 회원국 인구는 56% 이상이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 유럽연합(EU)에서 농촌 개발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은 토지 이용과 관련하여 EU의 농촌 지역에 있는 천연 자원의 관리와 유지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촌 지역사회는 경제 다변화를 위한 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농촌개발 정책은 EU국가에서 우선적인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론적으로는 유럽 개별 회원국들이 독립적으로 농촌개발정책을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방식으로 추진된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EU 국가들은 공통적인 일반 농촌개발 정책¹⁷⁾을 사용하는 가운데, 유럽연합의 예산과 일부 개별회원국의 예산을 가지고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EU¹⁸⁾국가 중 영국에서는 최근(2012. 2) 연구에 의해 전국에 존재하는 농촌개발 관련 네트워크 조직이 232개로 파악될 정도로 지방 단위에서부터 국가 단위 및 국제 수준에 이르기까지 연계 협력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운영주체는 민간단체(NGO)로 80%에 이르렀고, 14%는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는 정부조직이었으며, 8%는 연구소 등 교육기관과 민간회사 형태이다(Miller, Martine and Jennifer Wallace, 2012).

이 중 영국의 전국 농촌 네트워크(UK National Rural Network)는 일종의 연합체 조직(collaborative initiative)으로서 대학이 농촌 기업과 단체 및 조직체에 지식 전파를 위하여 영국 지식전파사업(Knowledge Exchange)의 일환으로 2004년에 설립되었다. National Rural Network(NRN)은 농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문성을 겸비한 14개의 종합대학교 및 단과대학과 협력 하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대학은 전문성 및 지식에 대한 중요한 원천으로서 농촌경제 개발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대학은 다양한 전문가를 활용함으로써 식량생산에서부터 관광에 이르기까지 농촌경제의 모든 영역에

17) 2007년~2013년 기간에는 1. 농업과 임업부문의 경쟁력 향상 2. 환경과 농촌을 개선 3. 농촌지역의 삶의질 향상과 농촌경제의 다양성을 장려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18) 현재 영국을 포함 EU 30여개의 회원국이 전국농촌네트워크(National Rural Network (NRN))에 참여 중이며, EU의 다른 회원국이 이에 참여하기 위해 지원, 대기 및 심사 중이다.

걸쳐 농촌지역 기반의 산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NRN은 농촌 기업과 조직체를 대학과 연계시키고 농촌개발 관련 단체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해당 지역내 농촌 관련 부문의 지식이 성공적으로 전파 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글상자 3-1) NRN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규정

NRN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규정

NRN은 유럽위원회 규정(Council Regulation(EC) No 1698 /2005) 제63조 제3항에 근거하여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되는데, 각호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다.

1. 소요예산 책정: NRN 관련 예산은 농촌개발사업 중 기술지원 부문에 책정되어 있다.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EU 회원국은 NRN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 사업을 제안토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 68조에는 국가 단위의 농촌 네트워크(National rural network)의 설치에 대한 세부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다음은 NRN 예산 신청 관련 서식을 보여준다.

대책사업 분야	공공부문 예산	자부담	총 소요예산
511. 기술지원 - NRN 소요경비 (a) 운영비 (b) 사업비			

2. 세부 국가 프로그램: 세부 사업계획에 의해 운영비와 사업비가 구분되는데,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는 총 소요경비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3. 프로그램 실행규정 채택 절차: NRN 설치 시한과 NRN의 설치 목적과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농촌개발에 관련된 조직과 행정기관을 결합하여 연계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 단위에서 전문성 교환을 촉진하고, 농촌개발 정책의 실행과 평가를 지원하며, 지방

과 중앙 및 국가간 정보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의견을 조정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또한 실천계획 항목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기술의 이전(확대보급할 만한 우수사례의 파악과 분석 및 전파, 경험과 노하우 교환을 위한 조직화)
- 훈련(네트워크 형성 과정에서 지역활동가 그룹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제공)
- 지역간 협력을 위한 기술지원

NRN 조직구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이 권고된다.

- 네트워크를 관리할 상근직원
- 현장활동가 사업수혜자 및 그밖의 이해당사자 대표 집단과 행정기관 공무원을 규합한 조정위원회
- 테마별 연계협력 조직

NRN은 기본적으로 정부 예산으로 수행되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는데, 영국에서 설정하고 있는 세부적인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온라인 정보 제공 서비스
- 농촌지역의 혁신 촉진
- 농촌개발 성공 모델에서 도출된 성공사례와 경험의 교환 및 공유

NRN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의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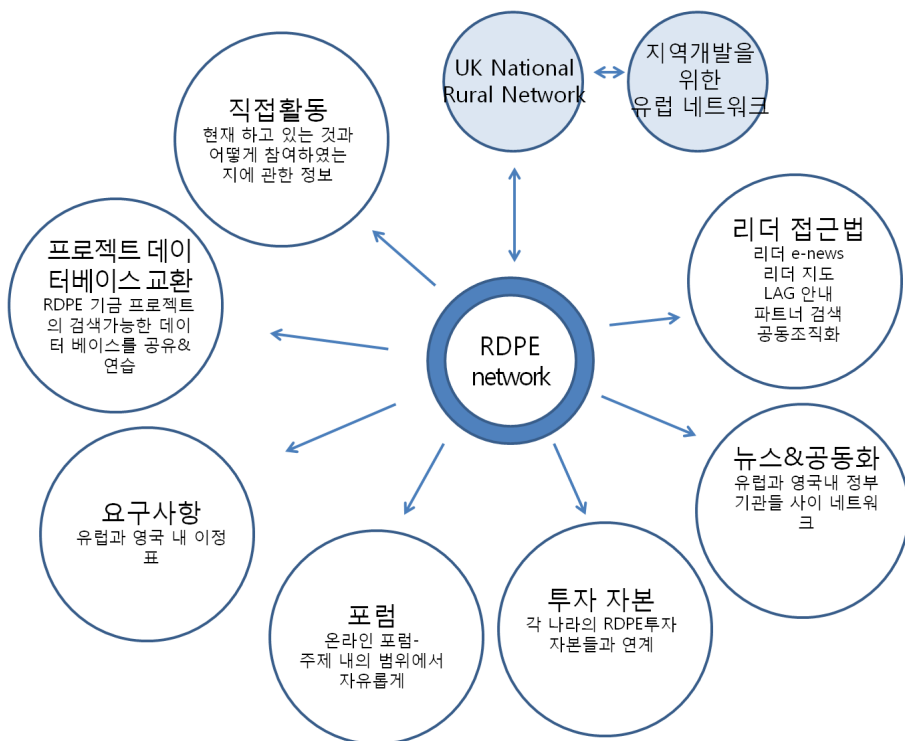
- 북부지역: Central Lancashir University, Newcastle University, Hull University
- 중부지역: Eele University, Birmingham University, Warwick University, Worcester University, Harper Adams University College
- 동부 및 남동부 지역: Reading University, Writtle College
- 남서부 지역: Bournemouth University, West of England University, Gloucester University, Royal Agricultural College

5) 영국의 지역 네트워크 사례

가) 잉글랜드(Rural Development Programme for England Network)

① RDPE 네트워크

농촌개발 프로그램 전달지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PDPE(Rural Development Programme for England)에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공유, 경험해 봄으로써 농촌개발 방법과 기회를 제공한다. 영국, 국가 및 지방 수준에서 네 가지 축 및 링크 정보를 통해 작동하며, 기존의 정보 교환 메커니즘 및 네트워크를 통해 중복작업을 방지하고 효율성 증대시켜, 새로운 DEFRA 농촌정책 단위으로써 RDPE 네트워크는 유럽농촌개발규정의 요구사항을 공동조직화 하는 네트워크 장치 역할을 한다.



(그림 3-9) RDPE 네트워크의 역할

② 영국과 유럽을 연계

농촌 개발 프로그램은 RDPE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설정된 네트워크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및 기타 EU 회원국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국 국립 농촌 네트워크 (UK NRN)는 그들이 좋은 연습환경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네 개의 영국 국가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같은 이유로, 농촌 개발을 위한 유럽 네트워크(ENRD)는 유럽 연합의 모든 회원국의 네트워크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나) 북아일랜드(Rural Network for Northern Ireland)¹⁹⁾

① NI 네트워크

NI 농촌 개발 계획 2007-2013년은 유럽 연합 (EU)에 의해 재정 지원의 공동으로 농촌 개발을 위한 유럽 농업 기금을 통해, 농업 및 농촌 개발 (DARD)을 위해 연결되어 있다.

프로그램은 우리의 농촌 환경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고,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농촌 기업과 활력이 넘치는 농촌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500million 이상 투자 되고 있으며, 이는 북아일랜드의 농촌 지역 사회의 가장 큰 투자 중 하나이다.

• NI네트워크는 크게 4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1축(농업과 식품): £ 45million 이 사용됨. 농장현대화 사업, 가공 및 마케팅 능력 향상을 위한 자금, 조언, 멘토링, 교육 및 실질적 지원에도 사용. 농장과 주말농장, 벤치마킹을 위한 농민과 그 가족에도 사용가능

- 제2축(환경과 지방): NI RDP 예산의 £ 390million 사용. 생물다양성과 환경 및 지속가능한 농장관리에 사용됨

19) www.ruralnetworkni.org.uk

- 제3축(전원 생활)과 제4축(LEADER 접근법) : £ 100million은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됨. 이것은 광범위 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다양성과 창업, 관광, 농촌지역사회, 마을을 위한 기본 서비스, 농촌유산의 재건 및 보존 등에 이용



(그림 3-10) 북아일랜드의 LAG 클러스터 지도

② 뉴캐슬 대학(Newcastle University)에 Northern Rural Network²⁰⁾

Northern Rural Network(NRN)은 영국북부에 지식을 전해주기 위해 설립하였다. 1,300이상의 구성원과 10년 이상의 경험들이 뉴캐슬대학의 워크샵과 세미나를 통해 전파되며, 연구 또한 진행되고 있다. NRN은 농촌개발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자발적 분야와 학술 연구자와 함께 참여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2000년에 설립되었고 뉴캐슬대학 농촌경제센터(CRE)의 팀원으로 이루어져 활동한다. 팀원은 프로젝트 리더, CRE 이사, 코디네이터, 컨설턴트, 연구원, 연구관리자, 관리자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홈페이지 내에서 다양한 세미나 및 워크샵 일정을 소개하며, 참여 예약을 받고 있다.(예> 2012년 4월 17일에 농촌개발 및 사회재건에 관한 세미나)

다) 스코틀랜드(Scotland National Rural Network)

스코틀랜드 농촌개발계획(SRDP)은 2013년까지 경제, 환경 및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는 £1,600,000,000 예산의 프로그램이다. 여기에서는 농업, 임업과 가공분야, 농촌기업 그리고 비즈니스 개발, 농촌관광에까지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농촌개발기금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 그룹에서 지원된다.

(1) 기업

- 비즈니스 게이트웨이: 실질적인 도움, 조언과 스코틀랜드 새로운 성장 사업 지원
- 하이랜드와 아일랜드 기업
- 스코틀랜드 엔터프라이즈

20) <http://www.northernruralnetwork.co.uk/>

(2) 커뮤니티 그룹과 자발적 조직

- 농촌 다이렉트: SRDP를 포함한 범위내에서 자금 지원
- 자원봉사 서비스 협의회(CVS): 자원봉사단체 포함
- 하이랜드와 아일랜드 기업: 토지, 에너지, 예술 문화유산에 도움
- 지방자치: 자발적 자금. 외부지원자금

① 스코틀랜드 LEADER 프로그램

스코틀랜드농촌개발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지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목표로 한다. 2000~2006년 실행 되었던 Leader+ 를 대체하여 개편한 것으로, 농촌개발에 대한 새롭고 실험적인 접근법을 권장한다. 상향식 접근법의 농촌개발 지원방식을 지향한다.(20개 지역의 LEADER 프로그램과 웹사이트 존재)

② 농촌 우선순위 (Rural Priorities)

농촌개발계약(Rural Priorities(RDC-RP)는 환경, 사회 및 경제적 이점을 전달하기 위해, £1,600,000,000기금의 일부를 스코틀랜드 농촌개발계획 2013으로 실행한다.

SGRPID, FCS, SNH, SEPA와 지방 자치에서 스태프로 구성된 11개 지역별 사업 평가위원회(RPACs)에 의해 지역 관리 £500,000,000 펀드가 사용된다. 11개 각 지역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과 합의된 지역 우선 순위를 통해 스코틀랜드 정부의 전략적 목표의 전달에 기여한다.

지역 우선순위에 따른 75개의 옵션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양한 범위내에서의 지역사회 서비스 활동을 하여야 한다.

스코틀랜드는 LEADER와 Rural Priorities는 중복을 막기 위해, 하나 이상의 SRDP자금의 흐름에서 얻을 수 없게 해두었다. 그러므로 자신의 프로젝트에 맞는 흐름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추가하여 농민들이 효과적인 정책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두었다.

③ 농촌 직접지원제 (Rural Direct)

LEADER 와 Rural Priorities 중 적절한 펀드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해주고 있는 서비스이다. 이는 전화나 이메일 또는 직접 지원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사례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홍보 및 이벤트, 로드쇼 등 다양한 브리핑을 통해 자금조달의 서비스를 촉진하도록 유도한다.

라) 웨일즈(Wales Rural Network)

웨일즈Rural Network는 웨일즈의 농촌기관 간에 협력 및 공유를 통해 좋은 관행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7년부터 2013년 까지 농촌개발계획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사이의 전문 지식 교환을 담당하고 있다.

Rural Development Plan(RDP)가 수행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RDP 내에서 축교환을 포함한 적절한 작업을 통해 주요 주제에 대한 주제별 그룹에 대한 설립 및 지원
- 농촌 네트워크 내에서 통신 및 공동 작업을 지원하도록 웹사이트, 데이터베이스 및 파트너 검색 도구의 설정
- 로컬 작업 그룹을 위한 훈련, 멘토링, 지원 및 정보 제공
- 상호 영토와 횡단 국가가 활동 지원
- 영국 농촌 네트워크의 설립 돕기

또한, 이벤트 및 회의, 방문은 물론 웹 사이트를 통해 공지 및 출판물을 보급함으로써 파트너간 정보를 공유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

한편, 웨일즈의 네트워크 또한 크게 4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제1축(농림 어업의 경쟁력):

- 농업연결: 파트너 기관과 긴밀히 연결. 농민의 요구에 맞는 1:1 지

원, 지식, 전문성, 교육 및 자문 서비스 제공. (재정적 지원 및 보조)

- 농장 자문 서비스: 교차준수 및 환경규제에 적합한지 도와줌. 계획을 유연하게 세워 농민들 스스로가 혁신적이고 그들의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게 도와줌.
- 가공 및 마케팅: 제품에 가치를 추가하고 혁신 및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하여 농장 및 임업 기업, 음식과 음료 생산자와 프로세서를 지원하는 것
- 공급망 효율성 제도: 농민들이 신규 및 대체 시장을 찾도록 하는 것. 주로 농업, 식품 및 임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 프로세스 및 기술을 개발하도록 함.

② 제2축(Rural Development Plan for Wales 2007-2013)

- 농민과 토지관리자가 지속가능한 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줌.
- 미래 환경 규제 변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
→ 유기농업방식/ 유기농업전환계획, 숲, 농업탄소 절감 및 효율성 등.

③ 제3축과 제4축(LEADER에 기반한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

- 제3축: 농촌지역의 삶의질 향상 및 농촌경제의 다양성 촉진 하는 것이 목표임. 예를 들면 마을개선 및 발전, 관광장려, 중소기업 지원, 기초생활시설 개선이나 농촌경제인들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과 동시에 농촌유산 육성.
- 제4축: 사람들이 농촌 지역 사회의 개선과 개발에 참여하도록 유도 하는 'LEADER' 방식을 사용. 웨일즈에서 장기적인 발전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을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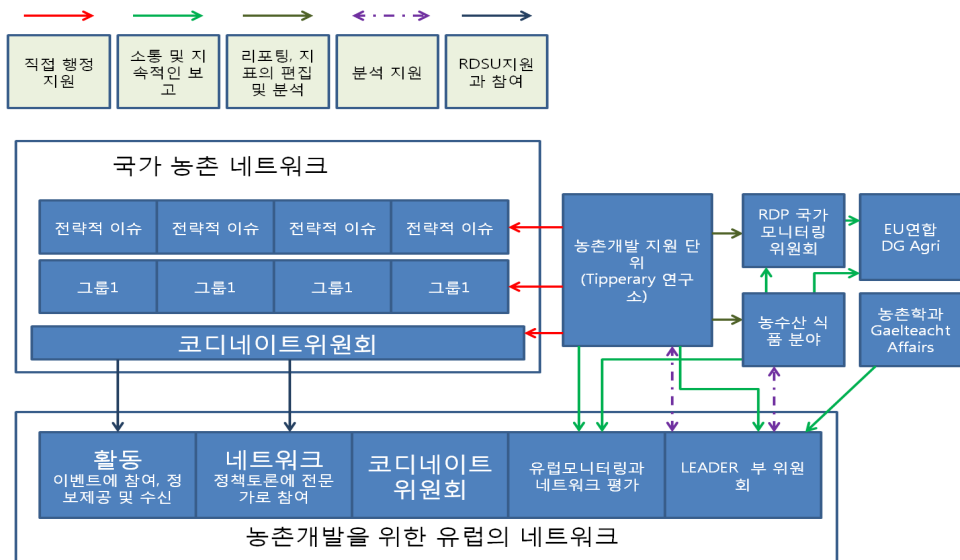
마) 아일랜드(National Rural Network- Supporting Ireland's Rural Development Programme)²¹⁾

National Rural Network(NRN)는 Rural Development Programme

21) www.nrn.ie, 영국의 사례는 아니나 참고

for Ireland 2007-2013(RDP)의 한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데, Tipperary 연구소가 아일랜드 NRN의 Rural Development Support Unit(RDSU) 활동상을 수상한 바 있다. RDSU는 농림부산하의 Managing Authority(MA)의 지휘하에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와 커뮤니케이션의 기술개발 및 적용, 정보 분석, 레포트 작성 및 업데이트를 담당한다.

농촌개발프로그램(RNP)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구현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며 각 축과 RDP의 시너지 효과를 촉진하여, 적절한 프로그램의 적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로컬액션그룹(LAGs)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지원한다. 또한 모범사례 전파에 노력한다.



(그림 3-11) 아일랜드 네트워크의 개략적 흐름

네트워크의 기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농업과 농촌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
- 여러 사례와 모범사례 전파
- 프로그램 전달을 위한 관련 세미나 및 컨벤션, 워크숍 활동
- 프로젝트 개발 및 각 계층 관리를 위한 통계 데이터베이스, 첨단 웹사이트 개발
- 정기적인 업데이트 간행물 출판과 더불어 일반 대중의 관심을 이끌기 위한 관련 계획들을 보완

- 연례 보고서 작성 및 공식 발표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
- 수집된 자료와 분석된 자료들은 반드시 중간평가와 기말 평가 시 직접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이는 네트워크의 핵심 기능
- 그룹과 기관에 전반적 정보제공과 서비스 제공
- 제3측과 제4측의 전달로 상호교류와 국가 협력을 추진. 네트워크는 협력과 멘토링을 제공

6) 일본 사례

가) 요코하마시 마을 만들기 코디네이터

2005년 10월에 시행된 요코하마시 지역 마을 만들기 추진 조례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주체적인 마을 만들기 사업을 코디네이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시민 주체의 마을 만들기 활동이 그 활동 테마나 니즈, 지역상황에 다양화됨에 따라 마을만들기 전문가나 NPO의 지원에 의한 추진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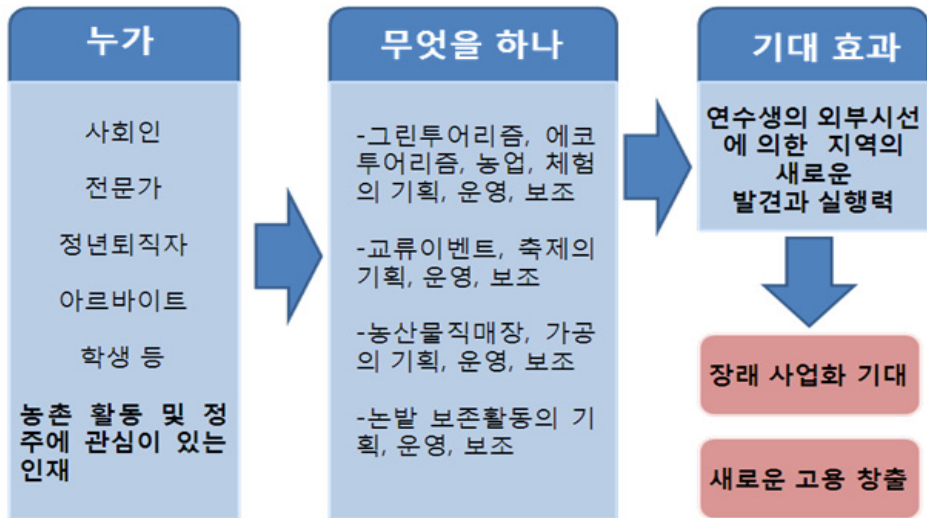
<표 3-9> 코디네이터 모집분야

구 분	내 용
마을만들기 전반	마을만들기 조직, 규칙, 계획, 지구계획, 건축협정, 도시계획제안제도, 경관계획, 경관협정 및 기타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련된 내용
시가지 개발사업	구획정리사업 및 재개발사업 등
방재사업	집, 길, 마을 개선사업 등

나) ‘농촌에서 일하는 인재(隊:무리)육성’ 사업

농촌의 자립적인 지역활성화를 담당할 인재의 육성과 확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활성화 활동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도시의 인재를 활용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인재 육성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인재육성 및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능력을 갖춘 코디네이터 관련 기관에 대해 지원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림 3-12) '농촌에서 일하는 인재(隊:무리)육성' 사업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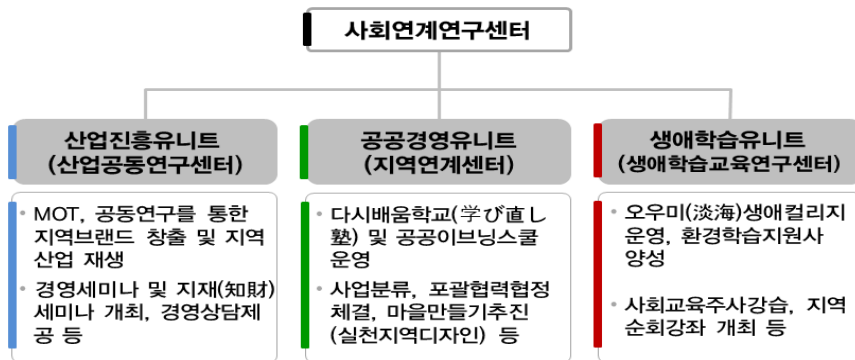
다) 일본대학 내 지역활성화프로그램 사례

①국립대학법인 사가대학(佐賀大學)의 사회연계연구센터

사가대학에서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존재했던 생애학습교육연구센터, 지역연계센터, 산업공동연구센터를 통합하여 사회연계연구센터(대학부속 시설)를 새롭게 개편(2012년 4월 1일)하였다.

② 조 직

사회연계연구센터는 다음의 3부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영역별로 전문화·특성화하여 사회공헌에 임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림3-13)과 같다.



(그림 3-13) 사회연계연구센터 조직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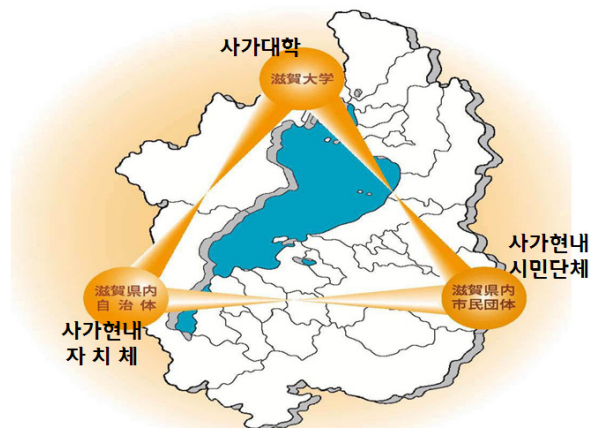
③ 기능 및 역할

특히, 공공경영유니트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시배움학교(学び直し塾)’에서는 지역활성화 및 실질적 지역연계를 위하여 ‘지역활성화플래너’를 양성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수 있다. 2007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120명이 넘는 지역활성화플래너를 배출하였다.

이 지역활성화플래너 양성과정은 수료 이후 대학이 발행하는 ‘지역활성화플래너’자격(이수증명)을 부여하며, 이를 위해 ‘자격인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자격의 객관성과 사회적 통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양성과정은 지역활성화정책의 입안능력의 효율적 향상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점에 중심을 두고, 실천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케이스스터디 및 토론의 장을 설정
- 현재 시급한 과제에 대한 정책안 입안
- 지역의 현장감각을 체득하기 위한 지역현지시찰연수 시행
- 입안정책안의 설명능력향상
-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가이드스 제공

지방분권이 진전되는 속에서, 행정과 시민이 협동해서 구성해가는 지역거버넌스의 확립이 중요시되고 있다. 다시배움학교는, 지역거버넌스의 핵심으로 기대되는 행정직원, NPO직원, 사회적시민의 지역정책의 입안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실천적인 교육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3-14) 사가현의 지역연계체계

라) 국립대학법인 미에대학의 지역전략센터(RASC-Regional Area Strategy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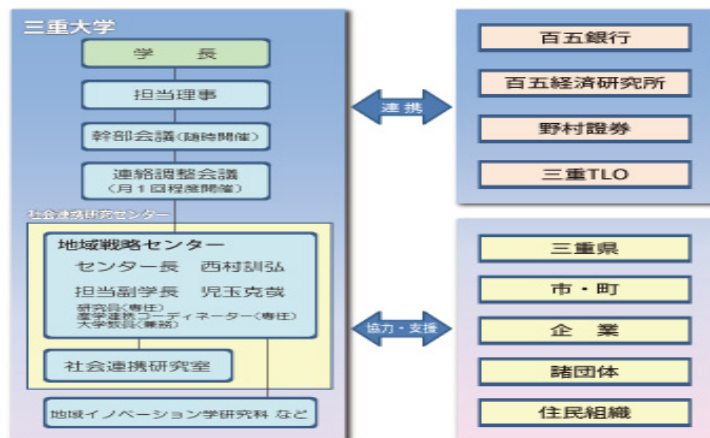
① 개요 및 조직

미에대학(三重大學)의 지역전략센터는 지역만들기와 지역발전에 공헌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상호연계를 추진하고, 대학이 생성 및 축적하고 있는 지적재산권과 인적자원을 지역의 지자체 및 산업계 등에 환원하는 것을 목표로 2011년 4월 1일에 출범하였고, 대학부설기관인 사회통합연구센터 내에 소속되어 있다.

② 기능 및 역할

본 센터는 지역이 안고 있는 과제에 대한 최상의 해결책을 제공하는 ‘지역만들기의 종합 싱크탱크’로서, 지역 진흥, 산업 육성, 환경 정책, 의료 복지 정책 등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지역 내에 있는 하쿠고(百五)은행, 하쿠고(百五)경제연구소, 노무라(野村)증권, 미에TLO와 연계하여 지역의 종합적인 정책제언 및 산업육성·활성화를 위한 기획 등을 실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 및 지역조사지원활동을 하는 것을 통해 지역공헌사업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림 3-15) 미야현의 지역연계체제

특히, 출범직후부터 ‘지역활성화플러스스타트업촉진사업’을 시작하여, 미에현 내에 있는 농촌지역사회단체(55개소)의 내용에 적합한 전문가를 파견하고, 23 곳의 리더플랜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단체들에게는 실무지원이 이루어졌고, 선 내용에 맞는 전문가를 파견, 23 개소의 선도 계획을 선정하고, 선택된 지역 단체 실무 지원을 했다.

마) 국립대학법인 고베대학(神戸大學)의 지역연계추진실

① 개요

고베대학의 지역연계추진실은 대학의 지역공헌에 대응하기 위한 창구이자 매개체로서, 지자체와 연계하여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개성있는 지역 사회의 형성을 지원하고 지역의 과제 해결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을 지원하는 지역연계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이다.

② 조직

지역연계추진실은 전담사무국을 비롯하여 인문·인간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생명 의 학 계 열 의 교수 들 로 으 로 구성 되는 조직이다. 따라서 전 학 적 인 협 력 체 제 의 구축 이 나 학 부 간 조 정 을 신 속 하 고 원 활 하 게 구 현 할 수 있 는 것 에 그 특 징 이 있 다.

③ 기능 및 역할

- 주요 업무내용으로는,
 - (1) 지역과의 연계 활동에 대한 대외적인 창구 기능
 - (2) 매력 있는 지역 만들기에 협력
 - (3) 본교와 지자체와의 연계 사업 추진
 - (4) 대학의 지역연계에 대한 조직적인 지원노력
 - (5) 고베대학 지역연계 추진연락협의회 운영 등이 있음

또한, 주요홍보자료로서 ‘지역·대학연계통신’을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또한 고베대학과 고베지역과의 연계사업 활동을 학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매년 지역연계활동발표회를 개최하고,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고 있다.



(그림 3-16) 고베대학의 지역연계체제 및 지역연계연구실

고베대학에는 대학부속기관인 지역연계추진실 이외에도, 고베대학대학원 농학연구과 내에 지역연계센터가 있는데, 지역연계추진실과도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학연구과 지역연계센터는 지역연계중에서도 특히, 대학이 보유한 지식과 기술을 농산촌 지역사회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3년도에 창설되었다.

지역과 농업을 연결하는 거점이 되어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공동 연구프로젝트로 연결하거나, 농학연구과와 지역을 연결하는 중간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센터가 중심이 되어 공동연구, 세미나, 워크숍, 의견교류회 등 지역 교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학생 지역활동지원사업, 농촌지역 학습네트워크 구축, 농업협동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의 사업과, 지역문화재 수목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연구, 마을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관리 방법의 실증적 연구, 검은콩 생산을 중심으로 한 농업 시책 효과 경제 파급 효과의 평가에 대한 검토 등의 연구와 음식 농업 협동 교육 프로그램 지원·실천 농학 입문 실천 농업 인턴쉽 등의 교육활동이 대표적이다.

나. 국내사례

1) 중앙부처 중간지원조직

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지원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에 중간지원조직을 두고 있다. 중앙조직으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설립되어 있고, 지방조직으로는 광역 사회적기업지원센터와 기초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이들 각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중앙지원조직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0조에 의거하여 2010년 12월31일에 설립되었는데²²⁾,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글상자 3-2> 참조). 조직은 설립 당시 기획홍보본부와 사업운영본부로 구성된 2본부 6팀으로 시작하였다가, 2011년 9월에 기본조성본부를 신설하여 3본부 6팀 체제를 갖추고 있다. 조직구성 내용을 살펴보면(그림 3-17)과 같다.



(그림 3-1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조직도

한국사회적기업의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 업종·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22) 사회적기업육성법은 2007년 1월7일 제정되었으며, 2010년 6월8일 개정을 거쳐 2010년 12월9일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규정이 시행되었음.

-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사회적기업 관련 국제교류 협력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사업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글상자 3-2) 사회적기업 지원의 의의와 세부내용

(1) 사회적기업의 의의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사회적 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법에서 지칭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2) 사회적 기업의 종류

사회적 기업을 설립 및 운영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5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 ①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②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③ 혼합형 - 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④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기업
- ⑤ 지역사회공헌형 -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2011년 신설)

(2) 사회적 기업 지원에 대한 세부내용

사회적 기업의 지원은 크게 경영지원, 재정지원, 기타지원 및 협력기관의 지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표 3-11>과 같다.

<표 3-10> 사회적기업 지원 세부내용

구분	지원내용	세부내용
경영지원	경영 컨설팅	사회적 기업의 성장수준을 ‘창업단계→성장단계→자립 단계(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에 맞는 컨설팅 제공
재정지원	인건비 및 전문인력	-지원금: 참여근로자의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사업참여 연차별 지급) -전문인력 지원 및 대기업 퇴직전문인력 지원
	사업 개발비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을 보조
	시설,운영비 대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용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세제지원	-법인세 감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금 인정범위 확대
	사회보험 (4대보험)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기타지원	프로보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수요를 발굴하고, 이들을 전문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성공적인 경영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효율적 관리 운영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적기업 육성의 정책수단 마련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	퇴직인력, 경력단절여성 등에게는 그간 쌓은 전문지식·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에 공헌할 기회를 주고, 지역 내 사회적 기업 및 비영리민간기관 등에는 은퇴자 등의 노하우를 기관 역량증진에 활용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회적기업 시장확대 및 판로개척
협력기관	고용센터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심사 참여 -재정지원사업 신청기관의 결격사유 확인 -취약계층 참여근로자 알선 -재정지원기관 모니터링/점검지원 -재정지원사업 수행결과 및 사회적기업 육성현황 등 지역고용심의회 보고
	지자체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역할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지역별 설명회/간담회 개최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지원 등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의 기업 또는 지역연계 지원 등
	권역별 지원기관	-광역시/도별 사업모델 발굴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모델의 수익성/구체성/시장성 등 사업화 지원 및 신청서 작성 등 지원 -사회적기업 인증 상시 컨설팅 -경영일반/노무/마케팅 등 분야별 경영자문 및 컨설팅 지원 등
	특화지원 기관	-자원 연계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 -대상별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확산 -성공사례발굴 및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등 홍보, 교육 -인증, 상시상담, 모니터링 등

(2) 지방지원조직 - 사회적기업활성화지원센터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조직으로 시·도 단위에 광역 사회적기업지원센터와 시·군·구 단위에 기초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가) 광역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광역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설치단위 : 시·도
- 고용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공모하여 지정
- 주요 역할
 -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 연계
 - 신규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확산
 - 예비 사회적기업·마을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지원
 - 홍보, 교육 등 기타 필요한 업무

(나) 기초 사회적기업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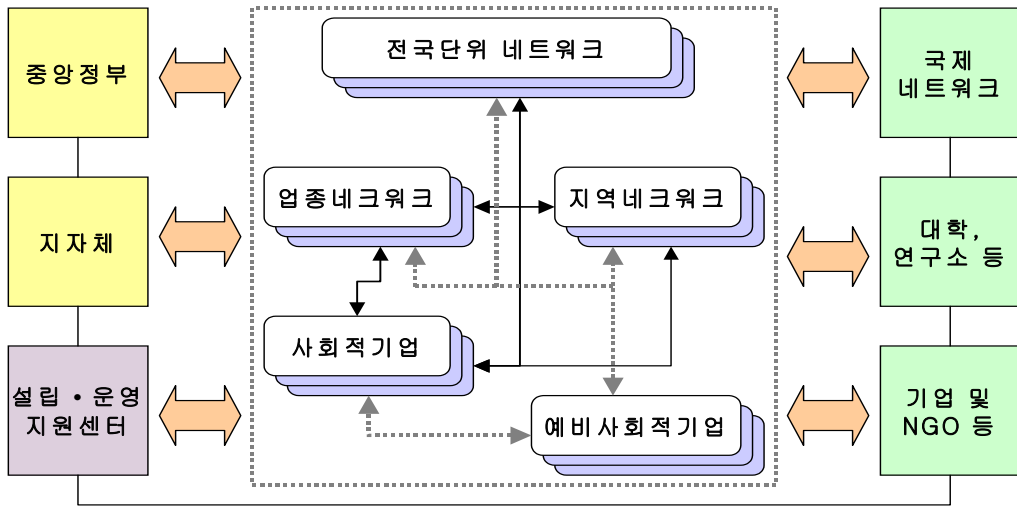
기초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설치단위 : 시·군·구
- 기초 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해 공모, 지정
- 주요 역할 (부천시 사례)
 - 사회적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외부지원 프로젝트 사업유치
 - 지자체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
 - 사회적기업 지역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ON, Off-line)
 - 지역특화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인큐베이팅
 -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 프로보노단 운영
 - 사회적기업 지원 프로젝트 사업 유치
 - 사회적기업 인증지원, 지역내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 아이템 발굴, 브랜드 개발, 판로개척, 우수사례 발굴 등 자립기반 형성
 - 사회적기업 인식확산을 위한 마을공동체,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이해증진 주민참여 교육 실시 ⇒ 사회적기업가 양성
 - 교육, 상담, 경영컨설팅, 홍보 등 현장지원 실시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잠재적 지역자원 조사 및 발굴 육성

- 사회적기업 박람회(대규모, 소규모) 추진
-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 관련 프로그램 적용 운영
- 캠프 운영 및 지원

(3) 기타 - 민관 협의체 조직

중앙정부의 조직 설치·운영과는 별도로 사회적기업지원조직이 네트워크 활성화를 목적으로 민관 협의체 형태의 사회적기업지원전국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전국단위 조직체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는 민관 협력은 물론, 국제 네트워크와의 교류 협력 강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의 체계도를 개념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18) 사회적기업 지원네트워크 체계도

나) 보건복지부의 자활센터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촉진하고, 빈곤 없는 사회를 만드는 목표하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2008년 7월부터 자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앙에는 중앙자활센터를 두고 있고, 지방에는 시·도에 광역자활센터, 시·군·구에 지역 자활센터를 두고 있다²³⁾.

23) 2011년 현재 중앙자활센터 1개소, 광역자활센터 7개소, 지역자활센터 247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1) 중앙지원조직 - 중앙자활센터

중앙자활센터는 전국의 자활사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괄 지원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을 촉진하고, 빈곤 없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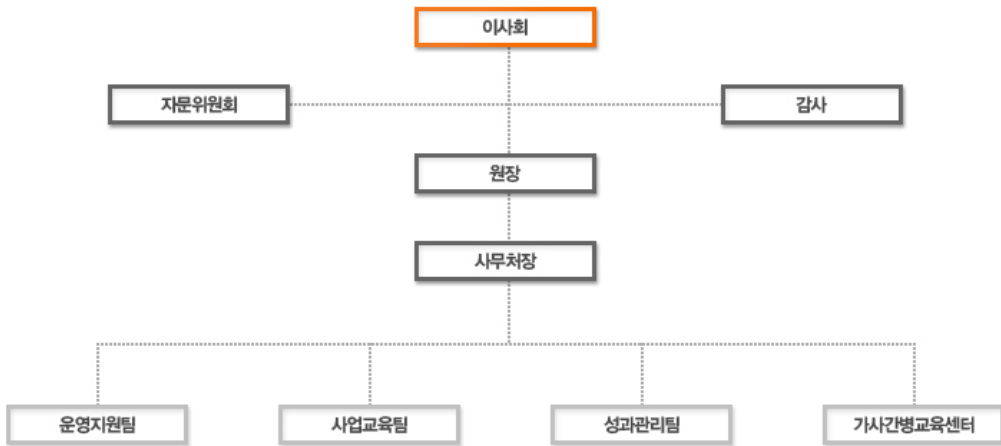
중앙자활센터에서 담당하는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사업
-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평가
-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의 기술·경영 지도 및 평가
- 자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 취업·창업을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중앙자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부 사업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자활공동체(자활기업) 활성화 지원
- 자활생산물 유통활성화
- 자활사업 신규 아이템 개발
- 종사자, 참여자 교육훈련
- 가사간병교육센터 운영
- 합리적인 평가체계 구축
- 자활사업 정보관리 DB 구축
- 성과중심 자활시범사업(희망리본프로젝트) 모니터링
- 자활복지 포럼 개최
- 자활사업 정책연구
-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 자활 홍보행사 개최
- 홍보 네트워크 구축
- 기타 대한석유협회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미래희망돌봄사업, 희망키움뱅크와 같은 민간협력사업 등

중앙 자활센터의 조직도는 (그림 3-19)와 같다.



(그림 3-19) 중앙 자활센터의 조직도

(글상자 3-3) 중앙자활센터의 팀별 주요업무

운영지원팀

- 기관의 총무 및 재무
 - 이사회, 인사, 복부, 규정관리, 자활연수원 등

사업교육팀

- 자활사업의 개발 및 지원
 - 자활기업 규모화, 사업 네트워크, 자활상품 유통 활성화, 정부재정투입사업 발굴, 참여자·종사자 대상 교육 등

성과관리팀

- 자활사업 성과 제고
 - 광역·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조사연구, 자활복지포럼, 자활사업 홍보, 시범사업 모니터링, 자활나눔축제 등

가사간병교육센터

- 맞춤형 가사간병교육
 - 가사간병 교육계획 수립, 교육 실행, 교육과정 개발, 운영 등

(2) 지방지원조직

(가) 광역 자활센터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시·도 단위에 광역 자활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센터를 통하여 광역단위 자활지원을

인프라 구축, 지역 특화형 자활사업 추진,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광역 자활센터에서는 운영 원칙을 설정하고 있는데, 서울 광역자활센터의 경우, 운영의 7대 원칙으로 창발성, 전문성, 소통, 투명성, 건전성, 현장성, 정체성을 제시하고 있다.

광역자활센터는 기초단위에서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활지원체계를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자활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자활센터를 지원하여 자활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광역단위 자활사업의 발굴 및 육성, 창업, 취업을 통한 다양한 자활경로를 모색하여, 고용과 복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자활사업의 효과성과 제고 및 활성화를 도모한다.

서울광역자활센터의 예를 토대로 광역 자활센터의 조직체계와 조직별 담당 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20) 서울광역자활센터의 조직도

(글상자 3-4)는 광역자활센터의 지원사업과 특화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예를 보여준다.

(글상자 3-4) 서울광역자활센터의 지원사업과 특화사업

① 서울광역자활센터의 지원사업

- 교육지원 : CEO 교육, 실무자 교육, 참여자 교육
- 창업지원 : 창업지원을 위한 다각도의 전문가그룹의 컨설팅 등 지원,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을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창업교육 및 무담보 무보증 대출을 통한 창업지원
- 취업지원 : 자활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특성과 기능을 파악하여 구인처와 연결,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모니터링과 서울형 자활사업의 모델로서 취업지원체계 구축 방안 마련
- 홍보지원 : 온/오프라인 홍보, 자활상품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망 구축, 자활상품 디자인개발 및 홍보마케팅 지원 등
- 경영지원 : 경영, 세무, 법률, 사회적 경제조직 등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자활센터와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역량강화 및 현장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통한 자활공동체, 자활사업단의 문제점 개선유도와 지속적인 경영관리로 매출증진, 사업운영의 안정화와 효율성 증대, 전문적 사례관리 체계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현장 중심적 사례관리 종합지원

② 서울광역자활센터의 광역특화사업,

- 네트워크사업 : 서울지역 사업단 네트워크별 현황 및 욕구 조사, 간담회, 네트워크 별 경영지원계획 수립, 자문단 운영지원
- 광역사업단 : 사업단 네트워크 욕구조사 및 경영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네트워크 사업을 활성화 하고 광역공동체 및 광역사업단으로 육성 발굴, 광역형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연구 및 자활성공사례 발굴 분석, 업종별 전문가 간담회(발표회), 신규 사업 매뉴얼 제작
- 광역공동체 : 광역공동체 경영진단 및 컨설팅, 광역사업단 중 공동체의 요건을 갖춘 사업단을 서울시 광역공동체로 설립
- 사회적기업 : 지자체 사회적 기업 조례 지원을 통한 사회적 기업 지원망 확충, 사회적 기업 운영과 관련된 교육 및 컨설팅 실시, 사회적 기업 경영컨설팅
- 특화사업 : 외부펀드 유인을 통한 기획사업, 조사 및 연구사업

(나) 지역 자활센터

시·군·구 단위에 설치되는 지역 자활센터는 1996년 시범사업(5개소)으로 출발하여, 매년 5개소 내외로 증가하다가 2000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급속히 확산되었다(2011년 현재, 247개소). 조건부 수급자 중 비취업대상자의 자활을 도모하는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1개소씩 설치를 목표로 지역자활센터를 지정해오고 있다. 지역자활센터가 없는 기초지자체도 있고, 지정되었다가 지정 취소된 곳도 있으며, 2개 이상 설치된 곳도 있다. 도시에 주로 설치되어 있으며, 군에 설치된 개소수는 약 30% 정도이다.

지역 자활센터의 핵심 역할은 복지공급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다.

센터의 유형은 규모에 따라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 소규모형으로 나뉘어지며, 유형별로 예산이 차등 지원되고 있다. 유형별 적용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확대형: 참여인원 65명 이상; 사업단수 5개 이상
- 표준형: 참여인원 40~64명; 사업단수 4개 이상
- 기본형: 참여인원 25~39명; 사업단수 3개 이상
- 특화소규모형: 참여인원 25명 미만

지역자활센터의 운영보조금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유형별 보조금액은 <표 3-11>과 같다.

<표 3-11> 지역자활센터의 유형별 운영보조금 현황(2010년)

구 분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	소규모형
운영보조금	198,512천원	174,224천원	148,320천원	124,836천원

농촌형에 속하는 김제시지역자활센터의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글상자 3-5)와 같다. 정부에서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 등이 일정요건을 갖추어 센터로 지정받아 운영하는 형태인 것을 알 수 있다.

(글상자 3-5)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사례 - 김제시

- 운영주체 : 대한성공회 김제 나눔의 집
 - 운영형태: 김제 지역 특성을 살린 농촌형 자활센터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김제시가 지원
- 설립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바탕으로 IMF 이후 대량 실업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인한 지역 빈곤 계층의 위기를 해소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설립됨
- 주요 사업과 임무
 -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사업, 시장 진입형 자활근로 사업, 자활공동체 운영 사업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중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사업으로는 유기농 작물을 재배하는 영농유기농사업단, 놀이터 모래소독을 하는 무지개 드림사업단,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화훼사업단, 간병서비스·이동 세탁사업을 하는 김제사랑실천단, 결혼·저소득 맞벌이 자녀를 위한 방과 후 공부방 등을 운영하고 있다.
 - 시장 진입형 자활근로 사업으로는 집안 청소를 대행하는 늘푸른청소사업단, 현물주거급여집수리사업을 하는 한울타리사업단, 본재사업을 하는 공동부업장을 운영하고 있음.
 - 그 외 폐품수거·재활용을 하는 한솔자원공동체, 영농육묘사업을 하는 에텐바이오종묘, 세차장을 운영하는 늘푸른세차사업단, 수선 전문의 녹색가게공동체, 도배전문의 수인테리어공동체, 돌가마공동체, 전자마을여성공동체 등의 자활공동체도 운영하고 있음.
- 조직
 - 센터장을 비롯하여 총무, 자활사업1팀~3팀, 부설사업팀, 자활공동체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4명이 근무하고 있음.
 - 또한 전자마을공동체를 비롯한 7개 공동체와 유기농사업단, 김제사랑사업단, 화훼사업단, 무지개드림사업단, 늘푸른청소사업단, 한울타리사업단 등 7개 사업단이 공동체 창업 등을 벌이고 있는데, 활동하는 사업단은 상황에 따라 바뀌기도 함

(3) 기타 - 민관 협의체 조직

지역자활센터는 자체 네트워크 조직으로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협회의 세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의 운영이념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는 생산·협동·나눔의 이념과 정신을 기반으로,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지역자활센터의 균형적 발전

을 도모하여 인간의 가치가 우선하는 생산적으로 창의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업

조직사업은 242개의 지역자활센터, 16개 지부와 더불어 빈곤층을 지원하는 조직들과 소통하고 연대함으로써 자활사업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나간다.

- 소통강화를 위한 교류 확대
 - 협회 골간조직의 안정화 및 내부조직력 강화
 - 지역자활센터와의 소통강화
 - 대외조직과의 연대강화
- 자활전문위원단 구성
- 자활정보통합시스템 구축

교육사업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운명을 통해 자활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지역자활센터 실무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활전문가를 양성한다.

- 자활 전문인력자격 제도
-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교육원 설립 추진
- 16개시도 지부 교육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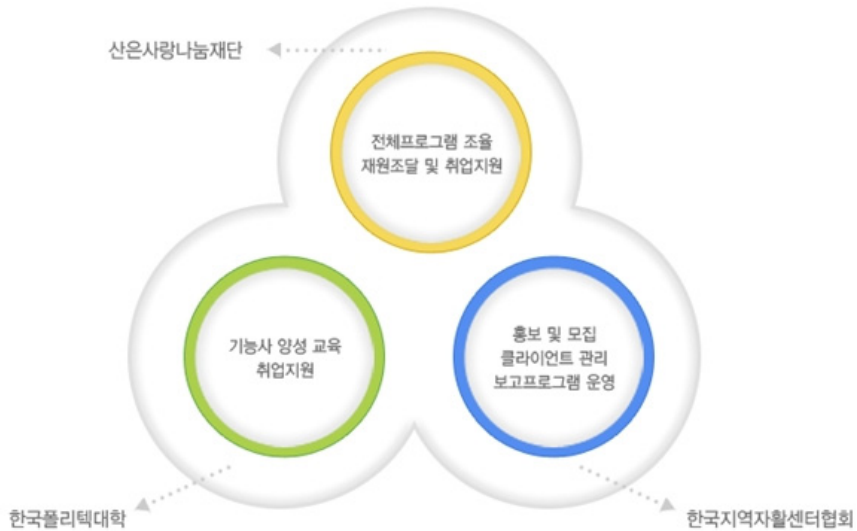
정책사업은 자활사업 방향성 정립을 통해서 자활사업 제도개선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자활정책 및 자활지표를 개발하여 선도적 정책을 제시한다.

- 빈곤극복과 자활을 위한 정책 정립
- 자활제도 개선
- 자활공동체에 대한 법적 지원 확보
- 자활 근로사업회 효율적 운영
- 자활강점지표개발

사업지원은 자활의 서비스 및 상품을 체계화하고 자활의 장점을 살리는 자활사업시스템 개발로 자활사업 확대 및 지역과 함께하는 자활사업을 구현해 나간다.

- 자활사업의 정보화 및 계량화
- 사회공헌사업추진
- 사회서비스선도사업 모니터링
- 자활특화 및 신표준화 사업 개발
- 지역과 함께하는 자활사업 모델화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인 ‘희망의 디딤돌-기능사 양성과정’은 취업교육지원의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취업교육을 실시, 교육 수수료 후 한국산업은행 거래기업 등에 인턴 취업을 연계하여 인턴비 일부를 보조·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림 3-21) 희망의 디딤돌-기능사양성사업

다) 중앙부처 중간지원조직의 주요 특징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중간지원조직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
 - 사회적기업육성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 육성 대상의 조직체적 성격에 차이가 있음(<표 3-12> 참조)

- 전국을 총괄하는 중앙조직이 설치되어 있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중앙자활센터

<표 3-12> 사회적 기업과 자활기업(공동체)의 비교

구 분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공동체)	
정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공동체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정 공동체	
주무부처	노동부	복지부	
법적근거	사회적기업육성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도 출발시기	2007년	2000년	
제도절차	노동부의 인증	시군구청장의 인증	
운영시스템	기업형태	법인이나 비영리조직으로 제약	제약 없음
	설립목적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경제적 자립
	운영특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공동사업자 조직
	이윤분배	제약	제약 없음
	의사결정	조직 형태에 부합하는 의결권 부여	1인 1표 주의
지원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들의 지원 조례 제정 · 권역별 지원기관 운영 · 경영컨설팅/회계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비 지원 · 각종 세제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 부지구입비, 시설비, 점포임대에 필요한 초기자금 융자 · 전문인건비지원 · 사회적일자리 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기업(공동체) 설립 및 운영 지원 · 창업 후 최대 1년간 수급자에 한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임금 지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지원 · 사회적 기업 홈페이지 운영 · 각종 언론 보도 · 정부 주도의 각종 홍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관심과 재생산 시스템 취약 	
개수	2010년 7월 현재 353개	2008년 11월 30일 현재 1,005개	

자료 : 김정원 2010. 농촌지역 사회적 기업활성화를 위한 지역자활센터의 중간지원조직 역할 연구. p26.

- 지방조직이 광역, 기초 단위에 설치되어 있음
 - 사회적기업활성화지원센터: 광역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기초 사회적기업지원센터
 - 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 획일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형편 반영
 - 중앙과 별도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중간지원센터를 운영하기도 함
- 전국네트워크 조직을 갖추고 있음
 -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민간협의체);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사단법인) 등
- 사업내용이 교육, 홍보, 네트워킹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중점이 두어짐
 - 경험 중심, 창의력 계발 중심의 토론식 교육을 통하여 의식과 지식, 태도 및 행동 변화 도모
 - 네트워킹과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을 통한 효과적인 혁신 확산 인프라 제공
 - 공익성과 창업·기업활동 지원 등 수익성의 조화 추구
- 중앙정부에서 운영비 등 일정 금액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함
- 중앙정부에서 중간지원조직 설치, 모니터링, 성과평가, 교육 등을 통하여 조직의 관리와 지원·육성 역할을 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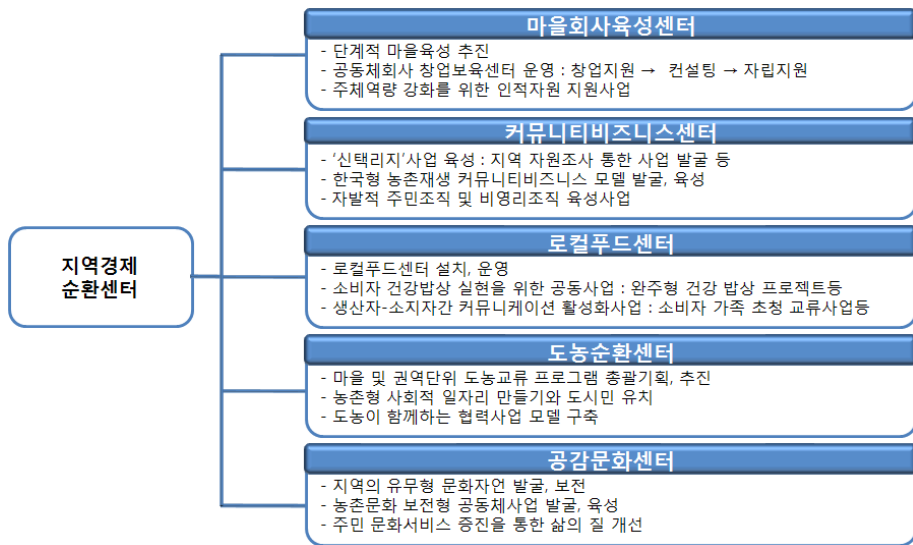
2)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가) 전북 완주군 마을만들기

완주군의 마을만들기 추진조직과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표 3-13>, (그림 3-22)와 같다. 행정과 민간(주민)의 협력 형태로 운영하는데, 마을회사육성, 로컬푸드, 도농순환, 지역일자리, 커뮤니티 비즈니스 부서로 구성된 농촌활력과가 전담부서로서의 역할을 하며,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지역경제순환센터를 설치하여 행정과 민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가운데, 농촌활력과 기능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표 3-13> 전북 완주군 마을 만들기 추진조직

구분		내용	
추진주체		행정과 민간(주민)의 협력	
추진조직	행정전담 부서 및 역할	전담부서	농촌활력과
		구성	마을회사육성 / 로컬푸드 / 도농순환 / 지역일자리 / 커뮤니티비즈니스 총 5개 부서
		역할	사업계획, 예산지원 등
	중간지원조직	지원조직	지역경제순환센터 (사업별로 5개 센터로 구성)
		역할	행정과 민간(주민)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 - 현장에서 정책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활동하는 역할 (교육, 사업육성 등) - 주민들의 요구를 행정에 전달하는 역할 등
구성 (5개 센터)	- 지역단위 농촌재생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 마을단위 공동체를 통한 소득, 체험, 상품화를 만들어가는 마을회사육성센터 - 얼굴 있는 지역 먹거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로컬푸드센터 - 도시와 농촌이 상생발전하기 위한 도시 농업을 지향하는 도농순환센터 - 지역 문화자원 발굴 및 사업육성을 이끌어가는 공감문화센터		



(그림 3-22) 전북 완주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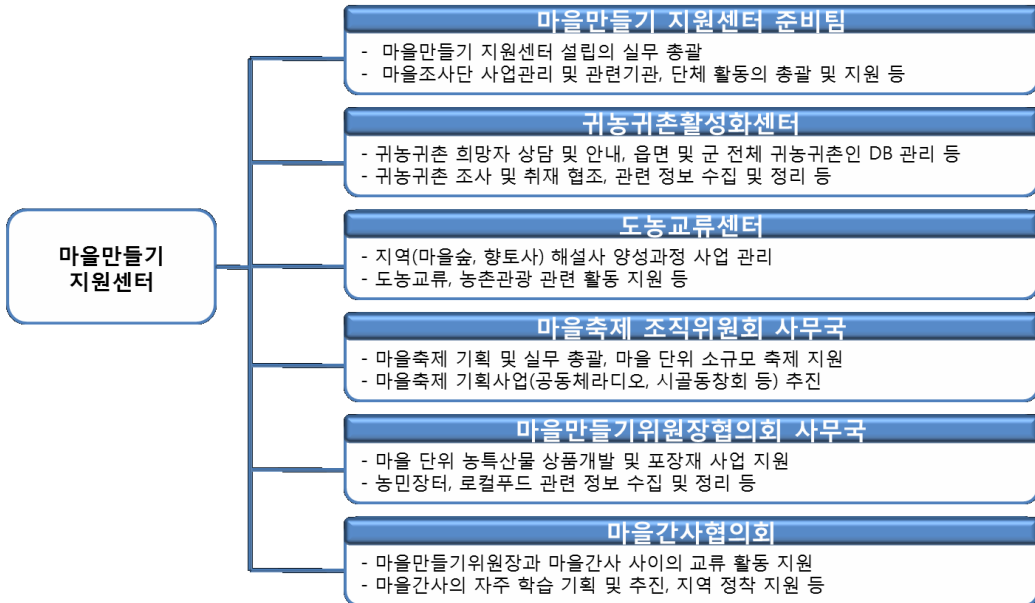
나) 전북 진안군 마을만들기

진안군 마을만들기 추진조직과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표 3-14>, (그림 3-23)과 같다. 전략산업과 마을만들기팀과 행정 TF팀이 전담부서로서 사업계획과 예산지원 및 정부사업 연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간지원조직으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두고 있는데, 센터 내부에 6개 부서-마을만들

기지원센터준비팀, 귀농귀촌활성화센터, 도농교류센터, 마을축제 조직위원회 사무국, 마을만들기위원장협의회 사무국, 마을간사협의회-를 두고 있다.

<표 3-14> 전북 진안군 마을 만들기 추진조직

구분		내용	
추진주체		행정과 민간(주민)의 협력	
추진조직	행정전담	전담부서	전략산업과 마을만들기팀과 행정 TF팀
	부서 및 역할	역할	사업계획, 예산지원, 정부사업연계 등
		지원조직	마을만들기 지원센터(6개 조직으로 구성)와 민간지원조직 ※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현재 리모델링 및 조례안 등 행정 절차 진행 중
	중간지원조직	역할	행정의 민간파트너로서 전문가 그룹 역할 수행 및 행정과 민간을 연결 - 조사 및 연구, 행정 용역 수탁 - 마을 컨설팅 및 교육 - 지역내 각종 마을만들기 조직의 협의회 기능 담당 - 지역 조사 및 연구 기능 수행, 연구보고서 및 잡지 발간 등
		구성 (6개 조직)	- 마을만들기지원센터준비팀 - 귀농귀촌활성화센터 - 도농교류센터 - 마을축제 조직위원회 사무국 - 마을만들기위원장협의회 사무국 - 마을간사협의회



(그림 3-23) 전북 진안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다) 충남 희망 농어촌 마을 만들기

충청남도의 희망마을만들기 추진조직과 부서별 담당내용을 살펴보면 <표 3-15>와 같다. 여기에서는 전담부서로서 도 총괄부서와 시·군 전담팀을 두고 있으며, 중간지원조직으로 도협력센터와 시·군지원센터를 두고서 시·군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표 3-15> 충남 희망마을만들기 추진조직

구분		내용		
추진주체		행정과 민간(주민)의 협력		
추진조직	행정전담 부서 및 역할	전담부서	도 전담부서 (사업의 총괄·주관부서)	시·군 전담팀 (각 시·군 차원의 주관담당조직)
		역할	- 마을만들기 관련사업 조정 - 관련부서 및 기관과의 협력관계 조성 - 기본계획 수립 - 세부사업지침 수립 - 사업대상지구 선정 - 도 협력센터 운영 등	- 마을과 도를 연계하여 마을만들기 업무 종합적 지원 - 사업대상마을 의견 수렴 - 연도별 마을만들기 사업계획 수립 - 사업대상지구 1차 선정 및 추천 - 시·군 지원센터 운영 - 시·군별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정 등
	중간지원조직	지원조직	도 협력센터	시·군 지원센터
		역할	총체적인 컨트롤 타워로서 코디네이터 역할	실질적인 운영체로서 매니저 역할
		주요업무	- 마을만들기 시책 개발 - 마을만들기의 조사·분석 및 연구사업 시행 -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실시 - 시·군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및 연계 등	- 마을만들기 사업 개발 및 대상지 발굴 - 마을자원의 조사·분석 및 연구 -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 교육과 연수 - 컨설팅 사업 - 연구회 운영(포럼 및 워크숍 개최 포함) - 만들만들기 관련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등

라) 강원 농촌사랑 농도상생포럼

① 농도상생포럼의 개요

「농촌사랑·농도상생포럼」은 농어촌 관련기관, 행정, 학계, 산업계 및 민간 실무자들이 자발적으로 연대한 순수 지식나눔 재능기부 모임으로, 마을단위 사업시행마을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교육, 자문, 토론, 네트워크형성 등을 통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또한, 포럼활동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정책 제안하는 등 농어촌의 발전과 도농상생과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도농상생프로젝트」는 강원도 농어촌이 경쟁력을 갖춘 마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강원도, 강원일보사, 강원도교육청, 강원발전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농협 강원지역본부가 주최하고 ‘농촌사랑·농도상생

포럼'이 주관하는 '희망만들기' 프로젝트이다.

농촌사랑농도상생포럼은 2006년 6월 2일 설립되어, 설립 당시 9인의 회원에서 2011년 현재 농촌에 관심이 많고 봉사정신을 가진 공무원, 대학교수, 연구원, 민간기업체 직원, 개인사업자, 선도마을 리더 등 82인이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2년 10월 현재 80회의 현장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은 수시자문과 정보자료의 공유와 교류를 위한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포럼계획 및 결과, 정보와 자료의 공유 및 교류, 신기술과 프로그램 공유, 보도자료,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위하여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관리를 하고 있다(<http://cafe.daum.net/ruralove>).

<표 3-16> 강원 농촌사랑 농도상생포럼

구분	농촌사랑 농도상생포럼
시행주관	포럼회원(회장, 총무)
활동공간	마을단위
포럼기간	1박2일/회
포럼내용	강의, 자원조사, 컨설팅, 토론
포럼장소	농어촌마을 현장
포럼 비용지급	포럼회원 무상 강의(봉사차원)
마을 비용지급	개최마을, 참석리더 경비 지급
예산확보	지자체 예산
홈페이지	카페개설 운영
사전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역량 조사
사후관리	일부 마을은 관리되지 못함
홍보방법	지역신문사와 협조체제 유지
성과품	활동보고서 제작
포럼 네트워크	포럼 단독 운영
마을 네트워크	리더-리더-전문가 네트워크

② 포럼의 실시배경

우리나라의 농어촌개발은 1990년대 중반부터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2000년대 들어서 전국 농어촌마을 단위의 대규모 정부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이 사업은 과거의 추진방법과는 다르게 사업규모 및 사업내용도 다양화, 종합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긍정적 평가도 많은 반면, 사업초기에 이해당사자인 농어촌 주민들은 물론 지자체 공무원들의 사업이해도가 낮아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농어촌공간의 특성을 살린 마을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현장감이 있고 다양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 포럼에서는 주민교육의 효과제고와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한 마을발전방향을 효과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이 마을현장에 직접 찾아가 1박2일 동안 주민들과 함께 숙식하면서 교육하고 토론하여 마을에 대한 정확한 진단평가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포럼결과는 언론을 통해 홍보하여 농특산물과 체험행사, 축제 등을 활성화하고, 이러한 모델을 확산시켜 모든 농어촌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으며, 포럼개최 마을별로 다른 주제의 교육과 마을컨설팅을 추진하였음. 또한, 포럼 때마다 다른 마을 리더들과 주민들도 참여하여 마을과 마을 및 전문가 간의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구축되도록 하였으며, 정보자료 공유와 수시자문 등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채널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③ 포럼운영의 특징

언론보도 등 마을홍보 : 언론보도 효과는 마을과 지역 농특산물 및 축제 등의 행사 홍보, 주민단합과 자신감 제고, 마을에의 자긍심 고취 등의 효과가 있다. 포럼개최 마을의 지속적 사후관리는 포럼개최 마을에 대한 전담 전문가에 의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한다.

마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포럼진행을 위해 지역자원 현황은 물론 주민역량 파악,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주민교육 주제선정, 자문내용, 테마개발, 컨설팅, 지역개발사업 선정 등 맞춤형 포럼진행으로 마을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마을회원 참여를 통한 포럼운영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포럼마을별로 지역개발에 필요한 다른 주제를 선정하여 교육하고 포럼시 다른 마을 리더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마을 리더간 정보와 자료 및 경험을 공유하여 포럼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마을회원에 대한 수료증 수여를 통한 자신감 및 자긍심 고취하도록 하여 포럼에 충실하게 참여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 마을회원에 대하여, 강원도지사 및 강원일보사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 마을발전의 자신감과 자긍심을 고취하였다.

④ 포럼 운영성과

지역발전 비전설정, 테마발굴, 활성화 방향 및 추진전략 수립하여 1회성 교육이 아닌 전문가들이 마을에 직접 찾아가 1박2일 교육과 토론을 하여 마을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테마발굴, 활성화 방안 도출 및 추진전략을 주민이 직접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며,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가와의 네트워킹을 통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지역주민들의 주체역량 강화 및 자신감 제고하기 위해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포럼 개최로 모든 주민이 마을발전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테마 공감대 형성, 리더에 대한 신뢰, 소통과 토론 문화 형성, 마을주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며, 리더의 리더십 향상 및 주민들의 주체적인 역량을 강화한다.

<표 3-17> 2011년 까지 포럼개최 실적

연도별	포럼 참석자 수					발표주제
	합 계	마을 주민	외부 인사	포럼 회원	마을 회원	
합계	4,555	2,581	514	695	765	247
2011	924	465	96	153	210	62
2010	940	414	109	125	292	51
2009	1,328	765	194	168	201	53
2008	1,117	755	99	201	62	64
2007	178	135	12	31	-	13
2006	68	47	4	17	-	4

주) 농도상생포럼 연차보고서, 2011.

마을의 언론홍보로 농촌체험관광, 농특산물 판매 등 사회경제적인 활성화를 위해 언론홍보를 통해 농촌체험관광, 민박, 축제, 농산물 판매, 도시민 유치 등 사회경제적인 효과를 증대한다.

마을 투자사업의 추진방향 설정 및 정부지원사업 추진역량 구축하여 다양한 마을사업들의 효율적 투자와 시행으로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으며, 전문가와 주민의 지속적인 소통과 관리로 마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정부시책의 성공적인 추진기반구축 및


마을발전의 새로운 방향제시할 수 있도록 마을발전의 체계화, 효율화 기반을 갖추어 정부시책의 성공적 추진과 앞으로의 농촌사회 거버넌스 모델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⑤ 포럼 실시사례 분석

포럼 개최 사례와 포럼 내용을 요약 분석하여 제시하면 <표 3-18>과 같다.

<표 3-18> 포럼개최 사례 및 내용

구 분	포럼 내용 및 분석결과	
포럼 실시마을 및 내용	평창군 평창읍 대상리 (2012.5.25~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마을 특산품 전시 및 품평회 ·마을 현황 및 주민생각, 미래비전 ·음악마을 발전 방안 ·주민역량 진단 및 마음가짐 ·주민 & 전문가 토론
	양양군 서면 영덕리 한별마을 (2012.6.15~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마을 특산품 전시 및 품평회 ·마을현황 및 주민생각, 미래비전 ·마을 살리는 마을기업 ·농어촌 마을 레스토랑 운영방안 ·주민역량 진단 및 마을 어메니티 산책 ·주민 & 전문가 토론
	강릉시 연곡면 삼산4리 솔내마을 (2012.10.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마을 특산품 전시 및 품평회 ·마을 현황 및 주민생각, 미래비전 ·농어촌 힐링체험관광 서비스 매너 ·웰니스 상품 개발 및 산업화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발전 방향 ·주민과 전문가 토론
분석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박2일 진행으로 주민과 전문가의 깊이 있고 진솔한 토론 기회가 마련됨 ·마을발전과 문화, 예술과의 접목을 다양한 관점에서 시도 연계하고 있음 ·회원마을간의 친목도모 및 연계성이 강화됨 ·지역농특산물의 교류 및 정보교환 기회를 가질수 있음 ·주민 및 전문가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정신이 기대됨 ·1박2일 진행으로 일부 주민 및 전문가의 시간제약으로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음 ·자발적 행사인 관계로 주민의 적극적 참여방안 및 포럼진행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함 	



제4장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시범운영 사례

- 가. 시범운영 개요
- 나. 강원도 시범운영 사례
- 다. 충청도 시범운영 사례

4.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시범운영 사례

가. 시범운영 개요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강원도와 충청도 2곳에서 농어촌활성화센터 현장포럼을 시범운영하였다. 각 5개의 마을을 선정하여 현장포럼을 실시하였고, 실행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기존의 강원 도농상생포럼이나 농식품부의 현장포럼 모델은 단순히 마을 현황과 자원조사를 전문가가 실시한 뒤 하루만에 나머지의 모든 결과를 발표하고 마을의 미래방안을 모색하고 토론하는 것에 그쳤다. 하지만 시범적으로 실시한 이번 운영모델은 전문가가 마을의 자원 및 주민역량 조사를 사전조사한 뒤 3번의 포럼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1일차에는 마을 자원 및 주민역량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부족한 역량교육을 전문가를 통해 습득한다. 2일차에는 마을 발전 테마발굴을 주민스스로 실습하고, 3일차에 그 내용을 주민이 직접 발표하고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마을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표 4-1> 현장포럼 시범운영방안

[기존]강원 도농상생포럼, 농식품부 현장포럼 모델	[시행]농어촌활성화센터 현장포럼 시범운영 모델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width: 60%;">마을현황 및 자원조사(전문가)</div> <div style="background-color: #d1c4e9; padding: 5px; width: 15%;">사전조사</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width: 60%;">마을자원 조사결과 발표 및 부족역량교육 (전문가) 퍼실리테이션기법을 이용한 마을발전 테마 및 비전발굴 마을발전테마 및 비전 발표 및 토론</div> <div style="background-color: #d1c4e9; padding: 5px; width: 15%;">1일차</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width: 60%;">마을자원 및 주민역량 조사(전문가)</div> <div style="background-color: #d1c4e9; padding: 5px; width: 15%;">사전조사</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width: 60%;">마을자원 및 주민역량 조사결과 발표 및 부족역량교육 (전문가)</div> <div style="background-color: #d1c4e9; padding: 5px; width: 15%;">1일차</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width: 60%;">마을발전 테마발굴 실습(주민)</div> <div style="background-color: #d1c4e9; padding: 5px; width: 15%;">2일차</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width: 60%;">마을발전 테마발굴내용 발표(주민) 마을발전방향 토론(주민, 전문가)</div> <div style="background-color: #d1c4e9; padding: 5px; width: 15%;">3일차</div> </div>

나. 강원도 시범운영 사례

1) 농어촌 현장포럼(강원도 5개 시범마을)

강원도 5개 시범마을의 농어촌 현장포럼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양구군 고대리마을

<표 4-2> 양구군 고대리마을 현장포럼일정 및 결과

일시	세부내용	분석결과
7/6 (금)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현황, 주민생각, 비전설명 (김창해 이장) ·색깔 있는 마을 설명 (김기성 교수) ·마을 자원 조사 분석 발표 (김병애 현장활동가) ·주민 역량 평가 분석 발표 (김기성 교수) ·마을 브랜드 만들기 특강 (박미리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발전을 위해 주민중심의 마을 진단, 분석, 발전방향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모색하는 필요사업으로 인식함 ·영농기 주민 다수 참여방안 ·지자체 준비 인력 부족(보조인력 활용방안 모색) ·포럼개최 마을의 관리 및 지자체의 인센티브 부여방안
7/13 (금)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테마 발굴 강의(구기욱 퍼실리테이터) ·마을 테마 발굴 실습(구기욱 퍼실리테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의 관련 교육이수 수준 차이 해결방안 검토 ·퍼실리테이터의 보조인력 확보 방안 검토(3~4명) ·실습도구의 개발(집중력 강화)
7/20 (금) 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현황 비전 설명 (김창해 이장) ·선도마을 사례 발표 (김혁석 대표) ·전문가 특강 (약초나라 안만기 대표) ·주민, 전문가 마을발전 방안 토론 (김기업 차장) ·마을 발전 성과 평가(참석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의견, 마을 특화방안을 고려하여 특강, 사례발표 주제를 선정함 ·성공사례 전문가 초청의 어려움 ·주민의 자율적 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을협의체 구성 - 포럼과 연계방안

② 강릉시 북동리 한울타리마을

<표 4-3> 강릉시 북동리 한울타리마을 현장포럼일정 및 결과

일시	세부내용	분석결과
7/30 (월)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소개 및 마을 비전 설명 (박인재 이장) ·색깔 있는 마을 설명 (김기성 교수) ·마을자원조사 현황 설명 (이갑수 사무장) ·주민 역량진단 조사 발표 (김기성 교수) ·마을 만들기의 외부사례 및 미래의 농촌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럼개최 공간의 확보방안 검토 ·현장답사 시간의 제약 ·영농기 주민 다수 참여 방안
8/10 (금)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테마 발굴 강의 및 발전방향 찾기 (이소윤 퍼실리테이터) ·주민과 전문가 현장활동가가 함께하는 마을발전 종합토론 (배중남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수준별 테마발굴 필요성 검토 필요 ·마을테마 발굴 강의 및 실습의 체계적 운영방안 검토 ·주민의 의견 표출 및 토론진행의 효율적 방안 검토
8/24 (금) ~ 8/25 (토) 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현황 비전 설명 (박인재 이장) ·마을자원 소개 및 자원활용방안 발표 (이갑수 사무장) ·농촌에서 문화 예술을 말한다. (임관혁 교수) ·문화 예술 프로그램 개발 (박인재 이장) ·한울타리마을과 문화예술의 접목을 통한 발전방안 (이갑수 사무장) ·자연(농촌)과 함께하는 연극캠프 (안현정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과 문화예술 접목시도로 마을발전의 특성화를 꾀함 ·문화예술 공간과 다양한 자문가 활동으로 마을 지원 협의체 구성 필요 ·특강, 사례발표, 토론진행을 위한 전문가 섭외 어려움

③ 인제군 하추리 산촌버섯마을

<표 4-4> 인제군 하추리 산촌버섯마을 현장포럼일정 및 결과

일시	세부내용	분석결과
8/21 (화)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현황, 주민생각, 비전설명 (김재노 이장) ·색깔 있는 마을 설명 (김기성 교수) ·마을 자원 조사 결과 발표 (오혜경 현장활동가) ·주민 역량 평가 결과 발표 (김기성 교수) ·마을축제 개발 특강 (양용석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발전을 위한 주민의 적극적 참여의지가 보임 ·지자체 담당 및 현장 활동가의 적극적 지원의지가 보임 ·영농기를 피한 주민 다수 참여 방안
8/28 (화)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테마 발굴 기초강의 (이시은 퍼실리테이터) ·마을 테마 발굴 실습 (이시은 퍼실리테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간 이해도 및 사전교육 수준 차이 ·다양한 실습 보조기구 도입 방안 검토
9/4 (화) 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현황, 주민생각, 비전 설명 (김재노 이장) ·선도마을 사례 발표 (최법순 위원장) ·친환경 잡곡 생산관리 및 유통·마케팅 (정윤수 국장) ·마을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 및 성과평가 (김기업 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강 및 사례 발표 전문가 섭외 어려움 ·마을발전과제 도출 후 마을발전과 연계한 후속 대책 검토 ·포럼 후 현장 활동가 사례집 발간으로 포럼확대 및 활용도 제고에 기여

④ 횡성군 대관대리 개나리마을

<표 4-5> 횡성군 대관대리 개나리마을 현장포럼일정 및 결과

일시	세부내용	분석결과
9/30 (목)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현황 및 주민생각, 미래비전 설명 (임채경 이장) ·색깔 있는 마을 설명 (김기성 교수) ·마을 자원 조사 결과 분석 발표 (정순길 현장활동가) ·주민 역량 평가 결과 분석 발표 (김기성 교수)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특강 (구진혁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럼개최의 정책적 동기 부여 방안 ·포럼개최 마을의 활성화 및 지원관리 방안 ·특강, 사례발표의 전문용어 및 외래어 사용 자제 필요
9/20 (목)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테마 발굴 방법 강의 (주진용 퍼실리테이터) ·마을 테마 발굴 실습 (주진용 퍼실리테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주민의 교육수준 및 관심도 제고 방안 검토 ·영농기 주민참여도 제고 방안 검토
9/27 (목) 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현황 및 주민생각, 비전 설명 (임채경 이장) ·친환경농산물 소득증대방안(가공/유통) 발표 (서운정 대표) ·주민, 전문가 마을발전 방안 토론 (김기업 차장) ·마을 발전 방안 토론 및 성과 평가 (참석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강 및 사례 발표 자문가 확보 방안 ·토론회의 효과제고를 위한 지역 내 산학관 연계 협조 시스템 구축

⑤ 양양군 서림리 해담마을

<표 4-6> 양양군 서림리 해담마을 현장포럼일정 및 결과

일시	세부내용	분석결과
10/10 (수)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현황 및 주민생각, 미래비전 설명 (김영철 이장) ·색깔 있는 마을 설명 (김기성 교수) ·마을 자원 조사 결과 분석 발표 (김명종 현장활동가) ·주민 역량 평가 결과 분석 발표 (김기성 교수) ·농촌관광체험 (안문태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참여의지와 행사준비의 협력체제 구축 ·특강 사례발표의 전문가 확보 및 초청기회 확대 노력 ·마을 현황 및 과제의 참석주민 공감대 형성
10/17 (수)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특성화 방안 소개 (최용주 대표) ·토크이팅 강의 및 실습 (최용주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특성화 방안의 실질적 기여방안 검토 및 추진방안 검토 ·영농기 주민참여도 제고 방안
10/23 (수) 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도마을 사례 발표 (김학석 대표) ·전문가 특강 (구진혁 대표) ·주민, 전문가 마을발전 방안 토론 (김기업 차장) ·마을 발전 방안 토론 및 성과 평가 (참석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발전방안 도출과정의 향후 추진방안 검토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성 강화 방안

2) 농림수산식품부 현장포럼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도 현장포럼이 실시되었는데, 강원도 도농상생포럼과 유사한 점이 많으나, 당일 행사로 이루어져 주말 오후에 시작하여 새벽까지 1박 2일로 이루어진 강원도 사례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4-7> 농림수산식품부 현장포럼 일정 및 결과

세부내용	분석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 양평군 조현리 모꼬지마을(5/11) ·충북 음성군 대야리 대실마을(10/19) 	특 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행사로 집약화한 효율성 증대 기대 ·광역, 기초 자치단체의 관심도 증대 ·각 분야 전문가 진행으로 효율성 증대 ·마을 현황소개, 자원조사 발표, 역량 결과 발표, 현장 답사 등 ·다양한 관점에서 현장 밀착형 포럼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방향 설명 ·마을 현황 및 주민생각, 미래 비전 설명 ·선도마을 사례 발표 ·전문가 특강 ·자원조사 및 역량평가 결과 발표 ·마을 현장 답사 ·마을 테마 발굴 및 발전방향 찾기 ·종합토론 	개 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장시간 진행으로 노년층, 주부 주민의 피로도 증대 ·사례발표, 전문가 특강, 결과발표, 테마 발굴, 토론 등 시간 제약으로 충분한 효과 전달 부족 ·마을발전수준별 테마발굴 필요성 검토 필요 ·마을 특성, 발전방향과 관련된 특강(사례 발표) 기회 다양화 필요

3) 현장포럼 모델 검토

우리나라 농어촌이 안고 있는 현실로 볼 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계획, 추진하고 있는 함께하는 우리농어촌 운동「색깔있는 마을육성계획」은 방향성을 잘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 농어촌마을 및 주민의 대다수는 그동안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정책이 하향식으로 추진되어 관례화되었다고 느끼고 있다. 앞으로의 상향식 정책도입, 추진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립능력과 마을의 자립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방안에서 주민참여와 역량을 높이기 위한 현장포럼의 도입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한 현장포럼 개최를 2012년 5월부터 전국에 시범운영하고 있는 바, 현 단계에서 본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기대, 효과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로, 본 연구자가 2012년 강원도내 농촌마을의 현장자문(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을 수행한 결과, 3개 마을 주민 및 마을의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 기법도입을 위해 현장포럼의 도입 필요성과 유치를 적극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포럼 모델 도출을 위하여,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도상생포럼(3개 마을), 농어촌현장포럼 강원도 시범마을(5개 마을),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현장포럼(2개 마을), 강원도내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3개 마을) 현장지도방문을 직접 주관 또는 발표, 자문하여 얻은 경험과 자료 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모델시행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다음에 제시하는 농어촌현장포럼 시행모델은 농어촌마을의 발전수준, 색깔에 따른 발전방향, 농산어촌의 지역특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을 전제로 할 필요가 있다.

① 현장포럼의 시행방향

<표 4-8> 농도상생포럼모델 및 농어촌활성화 현장포럼 비교

구분	농촌사랑농도생성포럼 모델	농어촌활성화 현장포럼
시행주관	포럼회원(회장, 총무)	시군 현장활동가
활동공간	마을단위	마을단위
포럼기간	1박 2일/회	2~3회
포럼내용	강의, 자원조사, 컨설팅, 토론	강의, 자원조사, 컨설팅, 토론
포럼장소	농어촌마을 현장	농어촌마을 현장
포럼 비용지급	포럼회원 무상 강의(봉사차원)	강사로 지급
마을 비용지급	개최마을, 참석리더 경비지급	개최마을 경비지급
예산확보	지자체 예산	농식품부와 지자체 대응자금
홈페이지	카페개설 운영	개별 및 통합 홈페이지 구축운영
사전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역량조사	주민설문조사 및 자원의 사전조사
사후관리	일부 마을은 관리되지 못함	포럼개최 지역의 지속적 사후관리
홍보방법	지역신문사와 협조체제 유지	지역신문 및 방송 홍보협조
성과품	활동보고서 제작	활동보고서 및 활동보고회 개최
포럼 네트워크	포럼 단독 운영	각 지역거버넌스 간의 네트워크
마을 네트워크	리더-리더-전문가 네트워크	리더-리더-전문가 네트워크

주) 농도상생포럼 보고서 자료를 발췌 재구성함.

② 기초수준 농촌마을의 포럼모델

<표 4-9> 기초수준 농촌마을의 포럼모델

개최일시	연중 (마을사정에 따라 농한기개최 등 자율 결정)	
장 소	마을 내 회관 등	
일 정 (프로그램)	1일차	·사업 및 정책 방향 소개 ·마을 현황 및 미래 비전 설명 ·마을자원조사 결과 발표 ·주민역량평가 결과 발표 ·마을 발전 테마발굴 및 자원찾기
	2일차	·선도마을 사례 발표 ·전문가 특강 (마을 특성화 사례) ·주민과 전문가 종합 토론 (마을 발전 방안)
특기사항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을 준비중인 마을을 대상으로 함 ·포럼횟수는 효율성 및 지역주민과 현장 관계자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2회 실시함 ·1일차에서는 사업 목적의 이해, 마을자원 등 마을특성의 이해, 테마 발굴 등 마을 발전의 기본과정의 이해, 분석제시에 중점을 둠 ·2일차에서는 마을특성 이해를 토대로 마을 발전 방안의 도출 및 발전 방안 제시를 위하여 진행함	

③ 일정수준 발전 농촌마을의 포럼모델

<표 4-10> 일정수준 농촌마을의 포럼모델

개최일시	연중 (마을사정에 따라 농한기개최 등 자율 결정)	
장 소	마을 내 회관 등	
일 정 (프로그램)	1일차	·사업 및 정책 방향 소개 ·마을 현황 및 미래 비전 설명 ·마을자원조사 결과 발표 ·주민역량평가 결과 발표 ·마을 현장 답사 ·선도마을 사례 발표
	2일차	·전문가 특강 I (마을 특성화 사례) ·전문가 특강 II (마을 특성화 사례) ·주민 & 전문가 종합토론 (마을 발전 방안)
특기사항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을 추진 중 또는 추진 완료한 마을을 대상으로 함 ·포럼횟수는 1~3회 실시방안 중 다수의 지역주민과 현장 관계자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2회 실시함 ·1~2일차 일정을 연계하여 마을테마 발굴 등 마을과 주민역량이 일정수준 갖추어져 있음을 전제로 마을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단계로 접근하도록 계획·운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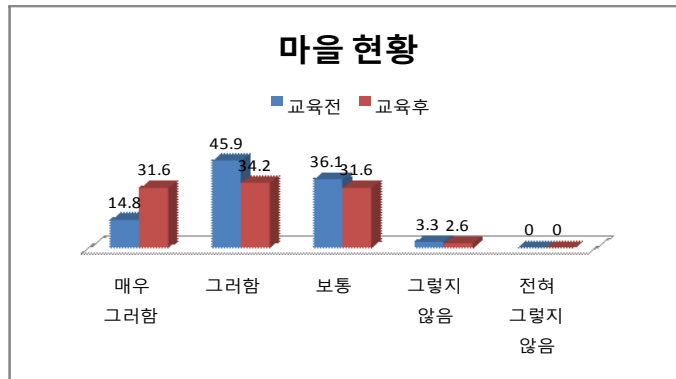
4) 농어촌현장포럼 효과 분석

- 본 분석은 농어촌포럼을 통하여 변화된 농어촌 주민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포럼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진행되었음
- 설문조사표는 공동연구기관인 공주대학교에서 작성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설문문항은 인구통계적 특성을 제외한 총 40문항의 5점(매우 그러함, 그러함, 보통, 그렇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음) 척도로 구성되었음
- 본 설문은 농어촌현장포럼을 진행한 강원도 강릉시 북동리마을과 인제군 하추리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포럼실시 전후로 나누어 전수조사를 시행하였으며, 불성실한 표본을 제외한 모든 표본을 분석에 사용하였음
- 각 항목별, 문항별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음

I. 마을 발전에 대한 이해, 마을 자원에 대한 이해,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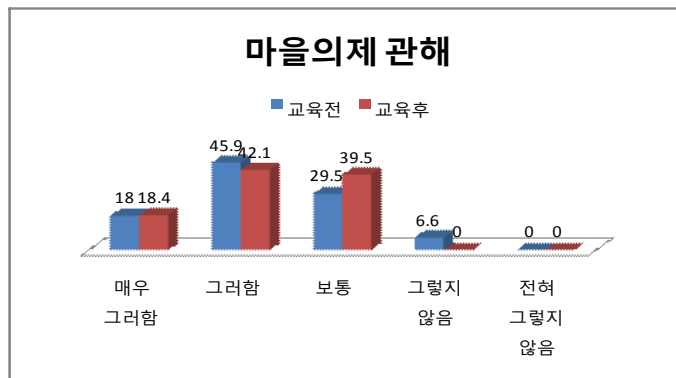
- 본 조사의 첫 번째 항목은 마을발전에 대한 이해 마을 자원에 대한 이해,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로 기초정보습득 수준을 점검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설문조사 분석결과 농어촌 현장포럼을 통하여 마을현황, 마을발전에 대한 주민생각, 자연자원, 경제자원, 문화자원,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의사소통방법에서 뚜렷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마을현황, 주민생각, 경제자원에 대한 이해는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항목들이 마을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포럼의 주제로 여겨짐

1. 나는 우리 마을의 현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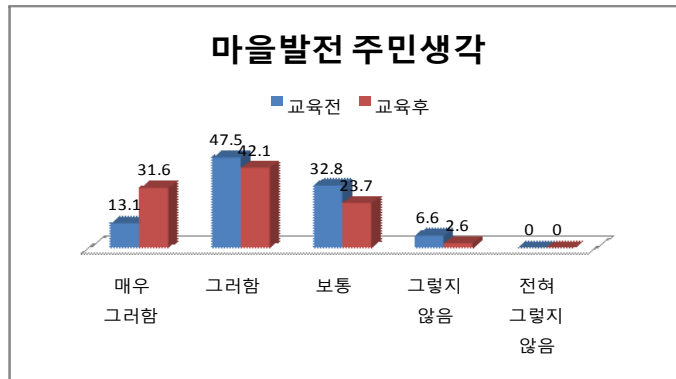
- 마을 현황 인지에 대한 포럼 전후의 비교는 “매우 그러함”이 14.8%에서 31.6%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일반적으로 농촌의 특성상 지역현황에 대한 인지도가 높으며, 본 포럼은 지역현황에 대한 인지도를 더욱 개선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2. 나는 우리 마을의 의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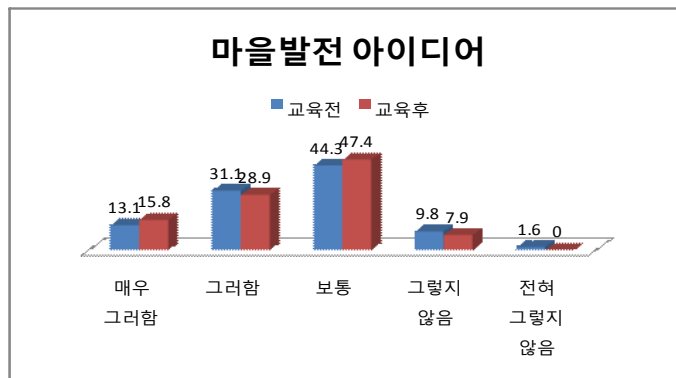
- 마을의 의제에 대한 포럼 전후의 비교는 전체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 그러나 포럼 전 6.6%의 응답을 받았던 “그렇지 않음”이 포럼 후 0%를 보인 것은 포럼이 마을 의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무관심을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3. 나는 우리 마을의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을 잘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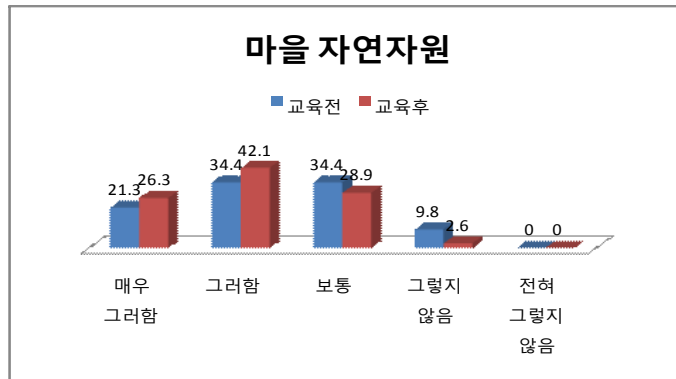
- 우리 마을발전의 주민생각에 대한 포럼 전후의 비교는 “매우 그러함”이 13.1%에서 31.6%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본 포럼이 마을 주민들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분석된다.

4. 나는 우리 마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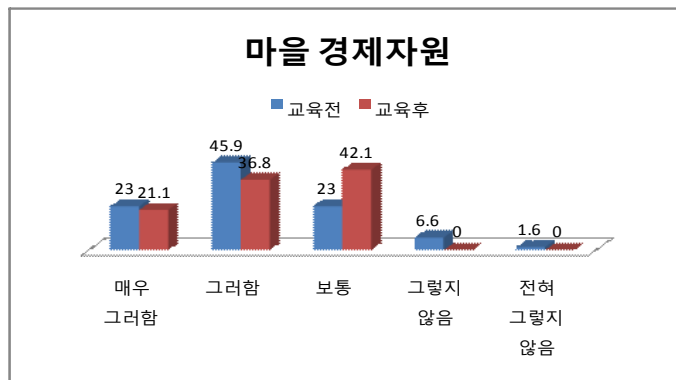
- 우리 마을의 발전방향에 대한 포럼 전-후 주민조사는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부정적인 응답은 소폭 감소하였다.

5. 나는 우리 마을의 자연자원을 잘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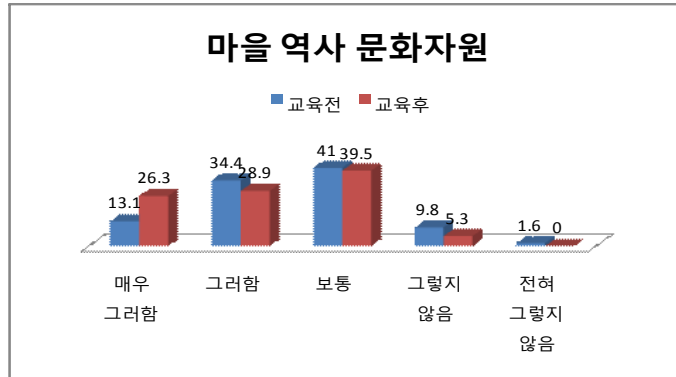
- 마을의 자연자원 인지에 대한 포럼 전후를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상승하였다.

6. 나는 우리 마을의 경제자원을 잘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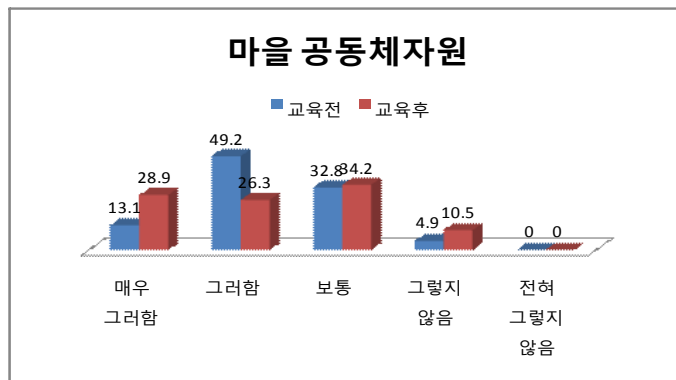
- 마을 경제자원의 인지에 대한 포럼 전후의 비교는 “보통”이 23.0%에서 42.1%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반면 “그렇지 않음”과 “전혀 그렇지 않음”은 포럼 후 응답률이 0%를 보인다.
- 이는 포럼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지역의 자원의 상당수가 경제자원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지만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7. 나는 우리 마을의 역사·문화자원을 잘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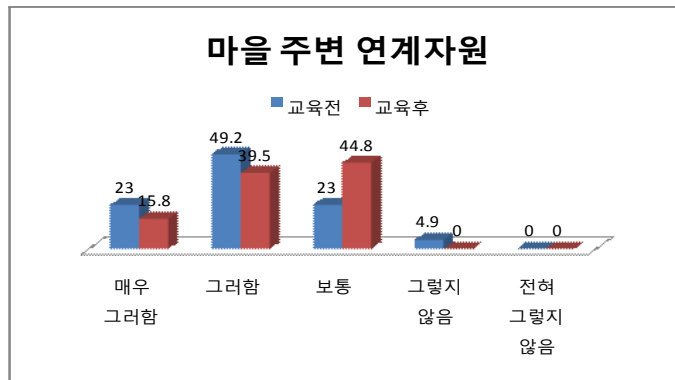
- 마을의 역사·문화자원 인지에 대한 포럼 전후를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상승하였다.

8. 나는 우리 마을의 공동체자원을 잘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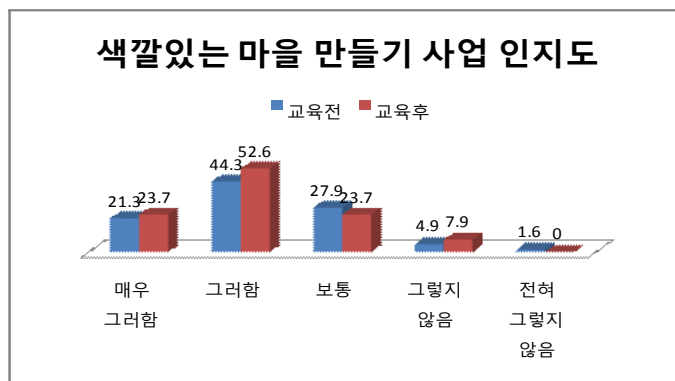
- 마을의 공동체자원에 대한 포럼 전후를 비교하면 큰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렇지 않음이 4.9%에서 10.5%로 상승하였다.

9. 나는 우리 마을의 주변 연계자원을 잘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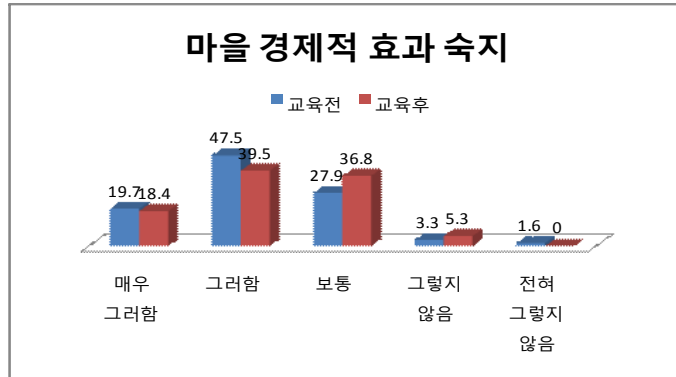
- 마을의 주변 연계자원의 인지에 대한 포럼 전후를 비교해 보면 “보통”이 대폭 증가하였다.
- 이는 설문 특성상 부정적인 결과의 증가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음”의 응답률이 0%를 보인 것을 고려할 경우 인지에 대한 확신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볼 때 마을 특성과 주민의 수준을 고려한 추가적인 교육 등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0. 나는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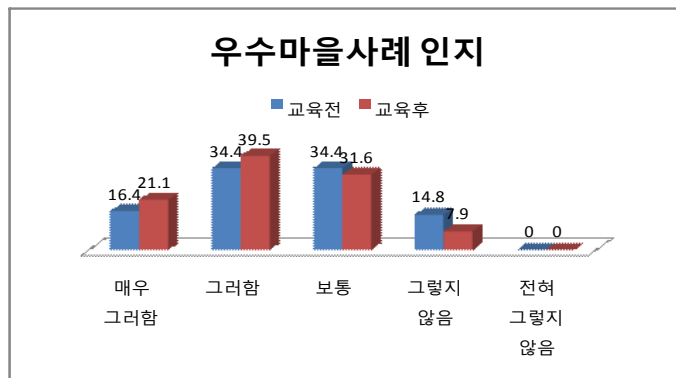
-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인지에 대한 포럼 전후를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상승하였다.
- 본 포럼이 색깔 있는 마을의 인지도 확산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11. 나는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한 마을의 경제적 효과를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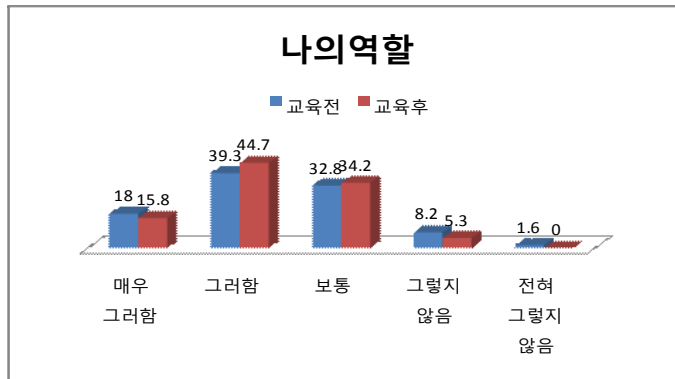
-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포럼 전-후 주민조사는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12. 나는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는 우수 마을 사례를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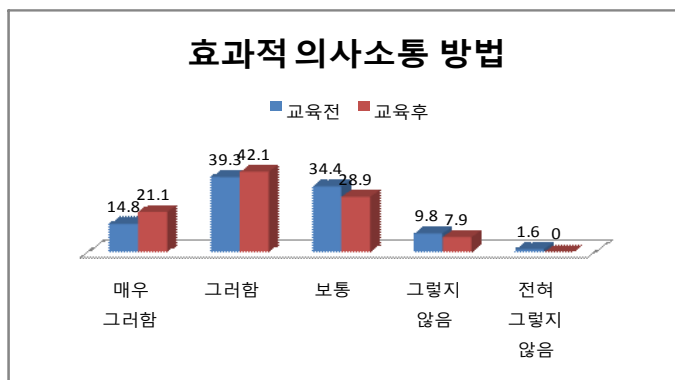
-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는 우수사례 인지에 대한 포럼 전-후 주민조사는 전체적으로 긍정적 응답이 소폭 증가하였다.
- 선진사례에 대한 인지는 발전의욕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13. 나는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있어 나의 역할을 잘 알고 있다.



-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나의 역할에 대한 포럼 전-후의 주민조사는 “그리함”과 “보통”이 소폭 상승한 반면 매우 그리함은 감소하였다.
- 그러나 “그렇지 않음”과 “전혀 그렇지 않음”의 비중도 감소하여 역할에 대한 인식이 상향평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14. 나는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잘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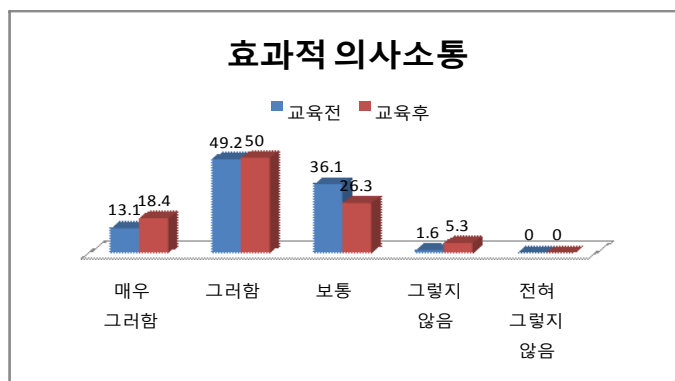


-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과적인 의사소통방법 인지에 대한 포럼 전-후 주민조사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소폭 상승하였다.
- 마을 및 사업의 인지와 관련한 질문 중 가장 뚜렷한 상승을 보였으며, 의사소통 방법 인지는 본 포럼을 통하여 얻은 가장 큰 소득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II. 마을 자원 활용 능력,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수행 능력,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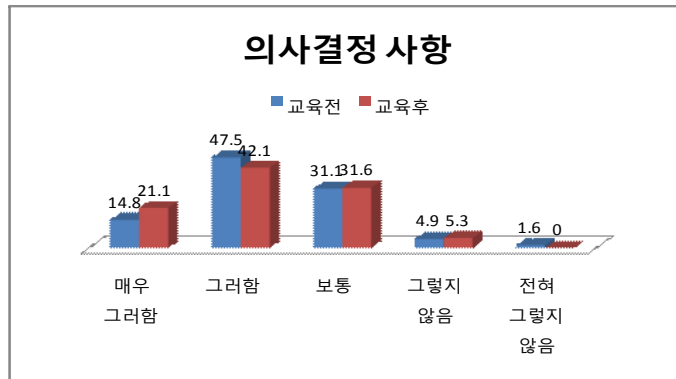
- 본 조사의 두 번째 항목은 마을 자원 활용 능력,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수행 능력,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능력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 시행능력 수준을 점검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설문조사 분석결과 농어촌 현장포럼을 통하여 효과적 의사소통능력, 갈등해결 능력, 공동체자원 활용능력, 연계자원 활용능력, 외부 홍보 능력에서 뚜렷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하지만 일부 항목에서는 긍정적인 응답 비중만 높아졌을 뿐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 이는 개인 및 단체의 능력을 상승시키기에는 본 포럼의 기간이 짧았으며, 일부 항목에 한해서는 아직 마을 주민들의 이해를 통한 능력향상에 미흡한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 추후 지속적인 포럼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지역주민의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1. 나는 마을 회의에 있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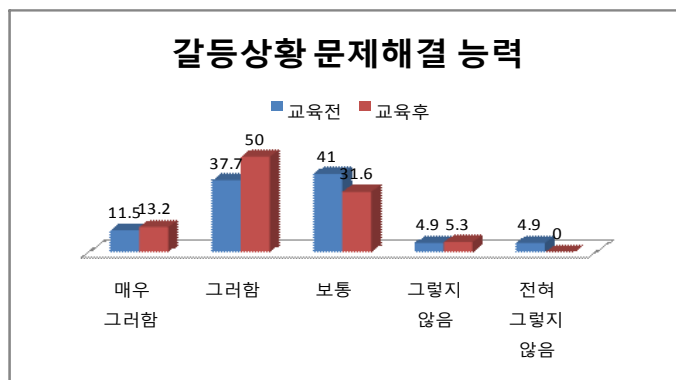
- 마을회의에 있어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포럼 전-후 주민조사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소폭 상승하였다.

2. 나는 마을 사업과 관련된 여러 사항에 대해 의사결정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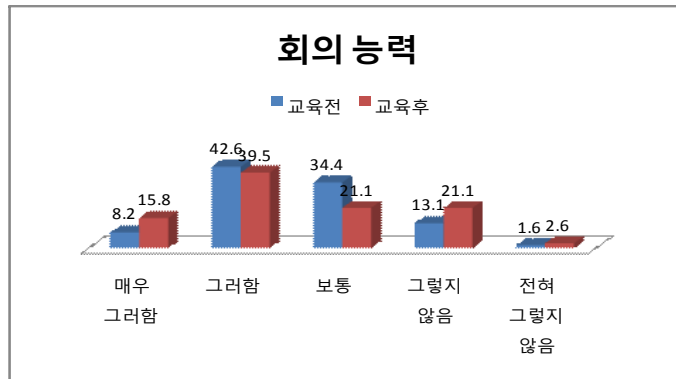
- 마을 사업과 관련된 여러 사항의 결정에 대한 포럼 전-후 주민조사 결과 “매우 그러함”은 14.8%에서 21.1%로 증가한 반면 “그리함”은 47.5%에서 42.1%로 감소하였다.
- 포럼이 일부 참가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상당수의 참가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3. 나는 마을 회의에서 갈등상황이 생겼을 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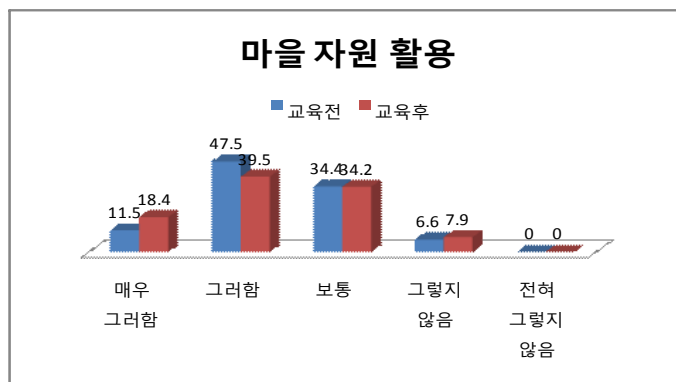
- 마을 회의에서 갈등상황의 해결에 대한 포럼 전-후 주민조사 결과 “매우 그러함”은 11.5%에서 13.2%로 “그리함”은 37.7%에서 50.0%로 감소하였다.
- 포럼이 마을회의의 갈등상황의 해결에 대한 문제를 개선한 것으로 파악된다.

4. 나는 마을 발전 방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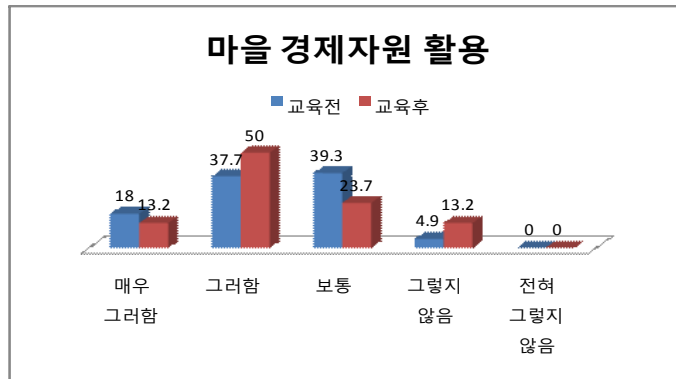
- 마을 발전 방안 회의 진행에 대한 포럼 전-후 주민조사 결과 “매우 그러함”이 8.2%에서 15.8%로 증가한 반면 “그렇지 않음”도 13.1%에서 21.2%로 증가하였다.
- 포럼을 통하여 일부 주민의 리더십이 향상된 것과 각자의 역할을 인지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한 반면, 부정적인 응답층의 증가는 포럼에 대한 관심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5. 나는 우리 마을의 자연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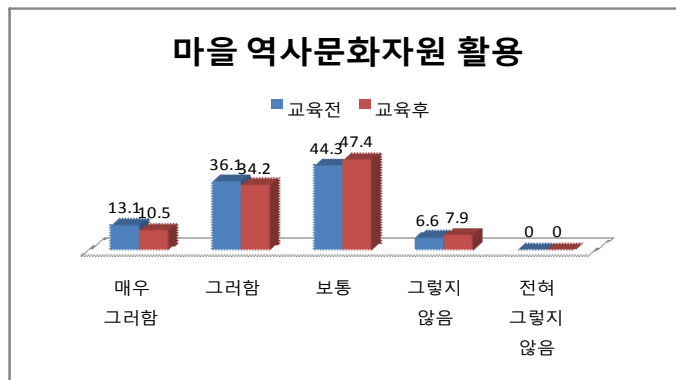
- 마을 자연자원 활용에 대한 포럼 전-후 주민조사 결과 “매우 그러함”이 11.5%에서 18.4%로 상승한 반면 “그리함”이 47.5%에서 39.5%로 감소하였다.

6. 나는 우리 마을의 경제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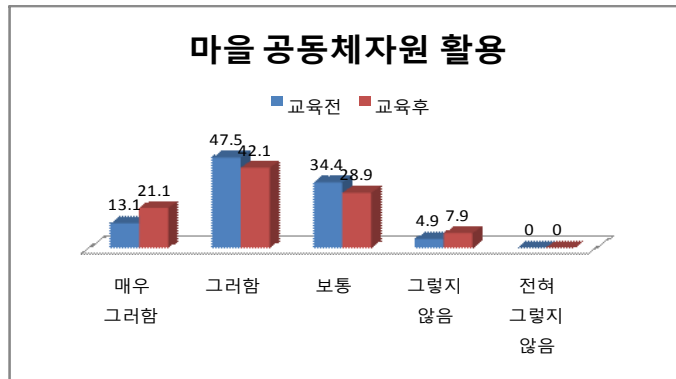
- 마을의 경제자원의 효과적 활용에 대한 포럼 전-후 주민조사 결과 “그렇지 않음”이 4.9%에서 13.2%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7. 나는 우리 마을의 역사·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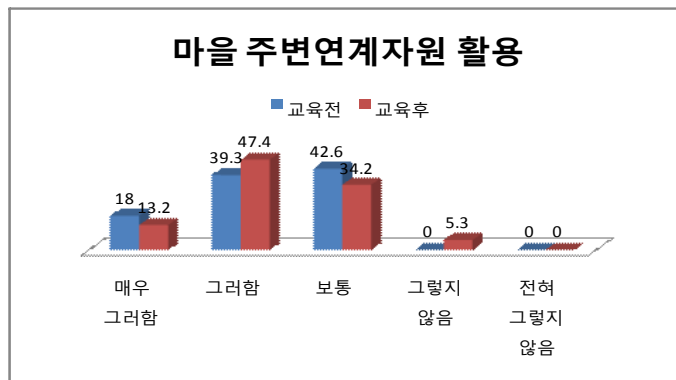
- 마을의 역사·문화자원의 효과적 사용에 대한 포럼 전-후 주민조사 결과 “매우 그러함”이 13.1%에서 10.5%로 “그리함”은 36.1%에서 34.2%로 소폭 감소하였다.
- 반면에 “보통”은 44.3%에서 47.4%로 “그렇지 않음”은 6.6%에서 7.9%로 증가한 것으로 비추어 보아 아직 마을의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에 관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학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8. 나는 우리 마을의 공동체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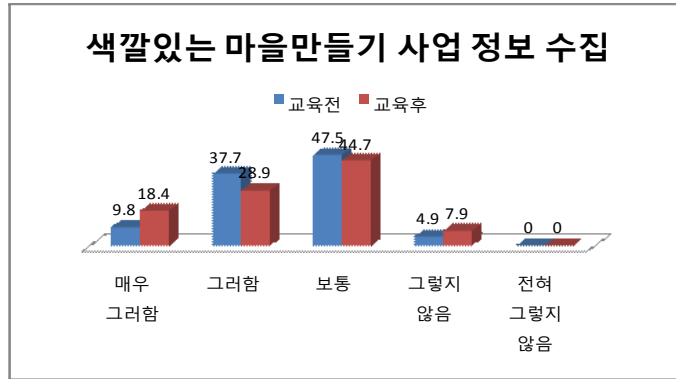
- 마을 공동체자원의 효과적 활용에 대한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의 비중이 높아진 반면 “그렇지 않음”도 4.9%에서 7.9%로 증가하였다.

9. 나는 우리 마을의 주변 연계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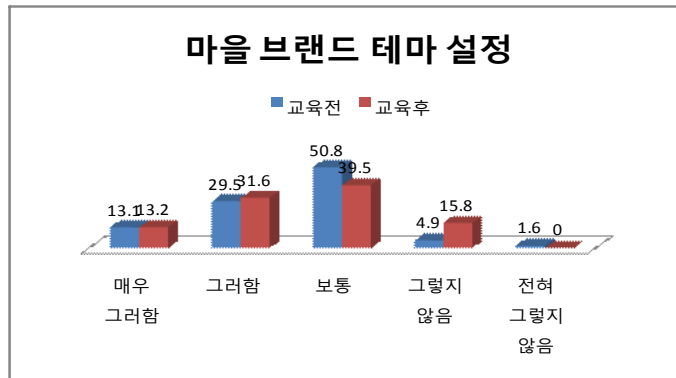
- 마을의 주변 연계자원의 효과적 활용에 대한 포럼 전-후 주민조사 결과 “그렇지 않음”은 포럼 전 응답률이 0%였으나 포럼 후 5.3%로 증가하였다.
- 앞선 9번 문항의 응답과 관련하여 본 포럼이 연계자원의 활용에는 아직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0. 나는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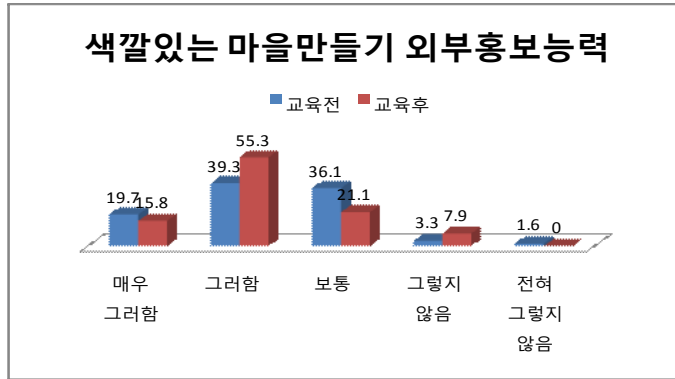
-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과적 정보수집에 대한 조사 결과 “매우 그러함”이 9.8%에서 18.4%로 증가한 반면 “그러함”은 37.7%에서 28.9%로 감소하였다.

11. 나는 우리 마을의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브랜드 및 테마를 설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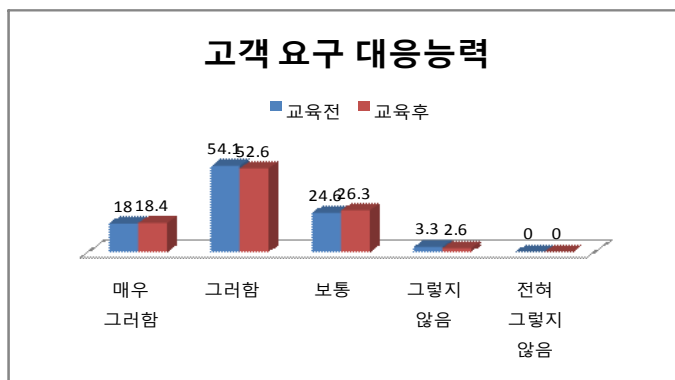
-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브랜드 및 테마설정에 대한 조사 결과 “보통”이 50.8%에서 39.5%로 감소한 반면 “그렇지 않음”은 4.9%에서 15.8%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부정적인 응답의 증가는 브랜드 및 테마관련 교육방법 관련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를 의미할 수 있다.

12. 나는 우리 마을이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외부에 홍보할 수 있다.



-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외부 홍보에 대한 포럼 전-후 조사 결과 “보통”이 36.1%에서 21.1%로 낮아진 반면 “그러함”은 39.3%에서 55.3%로 증가하였다.
- 이는 포럼 전 “보통”을 응답하였던 상당수가 포럼 후 “그러함”을 응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주민의 상당수가 포럼을 통하여 지역홍보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13. 나는 우리 마을에 방문하는 고객의 요구에 대해 대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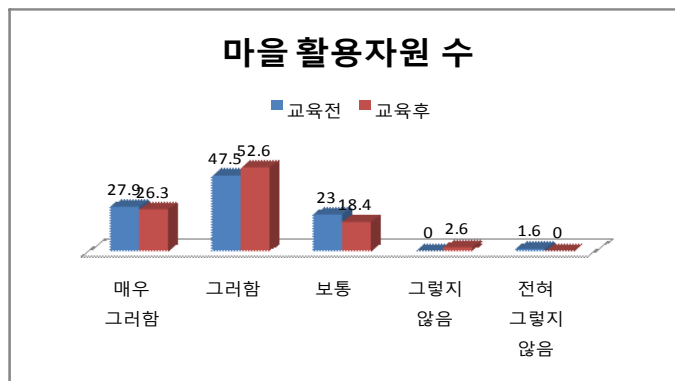


- 마을을 방문하는 고객의 요구에 대한 응답은 포럼 전-후 큰 변화가 없었다.

III. 마을 발전 가능성,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참여도, 마을 의제 해결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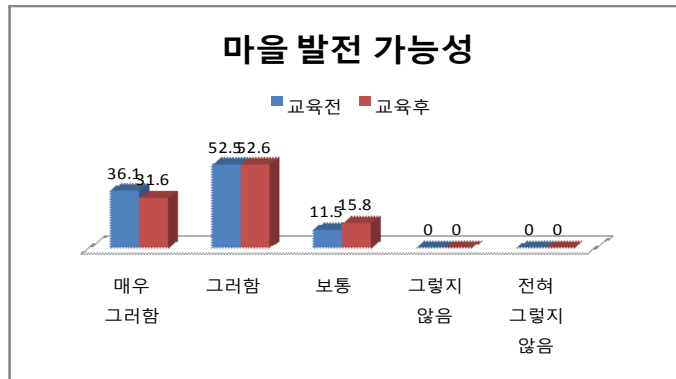
- 본 조사의 세 번째 항목은 마을 발전 가능성,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참여도, 마을 의제 해결 가능성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 시행의 주민참여도 및 태도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설문조사 분석결과 농어촌 현장포럼을 통하여 활용할 자원인식, 주민의식 인식, 서비스 정신,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및 워크숍, 공동조직에 적극참여, 자발적 참여, 지속적 학습, 주민단합에서 뚜렷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본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기준으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항목으로는 마을주민들의 인식 및 태도였다.
- 또한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및 워크숍 공동조직에 적극참여에 대한 문항에서 상당한 효과가 보인 것은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시행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1. 나는 우리 마을의 발전을 위해 활용할 자원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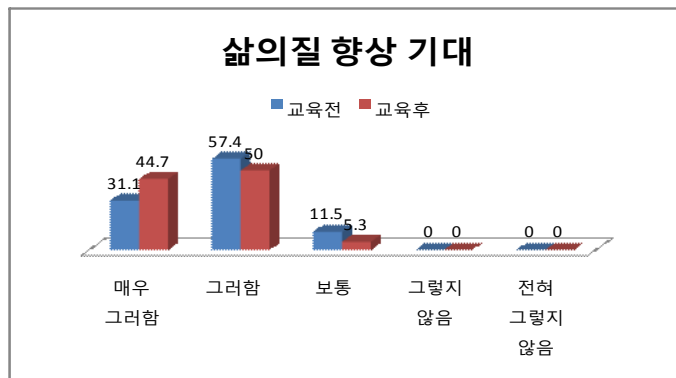
- 마을의 발전을 위해 활용할 자원 인식에 대한 조사결과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긍정적인 응답(매우 그러함, 그러함)의 78.9%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인다.

2. 나는 우리 마을이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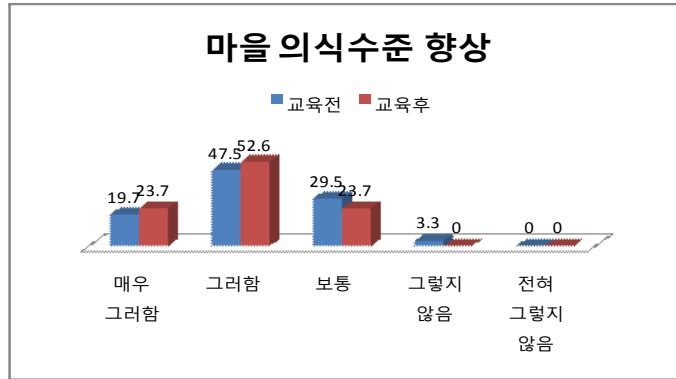
- 마을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조사결과 포럼 전후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포럼 전에도 긍정적인 응답(매우 그러함, 그러함)의 비중이 매우 높았으므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3. 나는 마을 사업을 통해 우리 마을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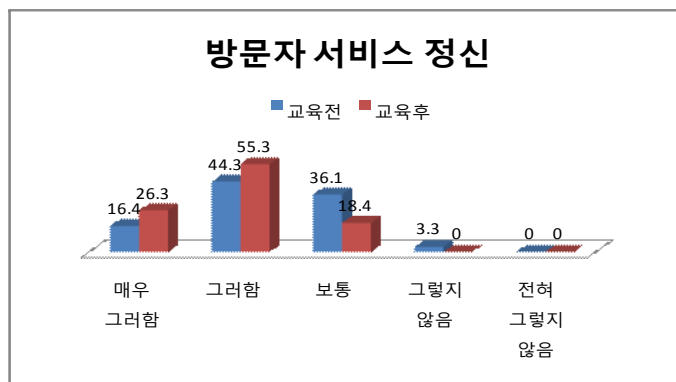


- 본 포럼이 마을 사업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4. 나는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우리 마을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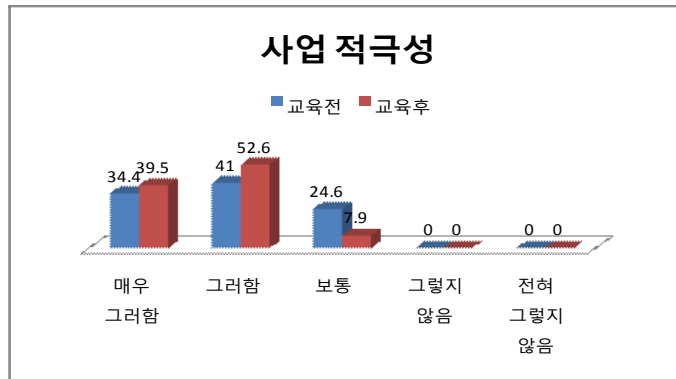


-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주민의식 수준에 대한 포럼 전-후 조사 결과 긍정적인 응답이 증가하였다.
 - 이는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민의 기대심리가 높게 반영한 것으로 포럼 후 이러한 기대심리는 더욱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나는 우리 마을 주민들이 외부 방문자에 대한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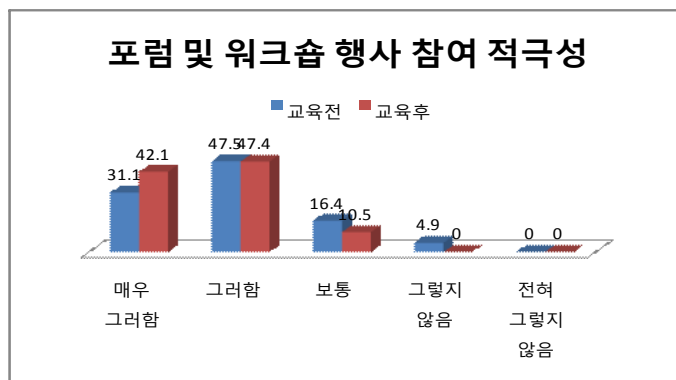
- 외부방문자에 대한 서비스 정신은 포럼 후 상당히 고취된 것으로 분석된다.

6. 나는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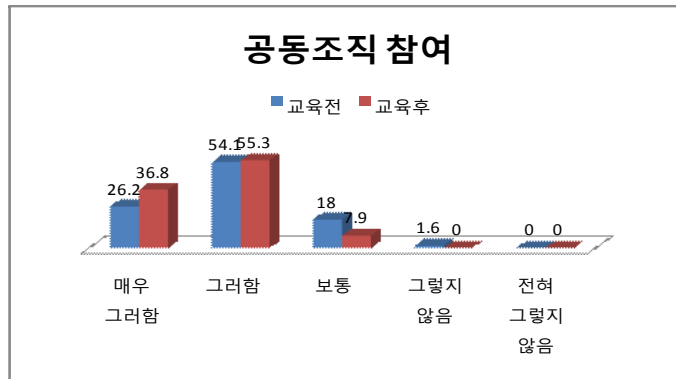
-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의 적극성에 대한 조사결과 포럼 전과 비교하여 포럼 후 긍정적인 응답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
- 특히 “보통”의 비중이 24.6%에서 7.9%로 크게 감소한 것은 전반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인식이 중립적인 방향에서 주체적인 방향으로 변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7. 나는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포럼 및 워크숍 등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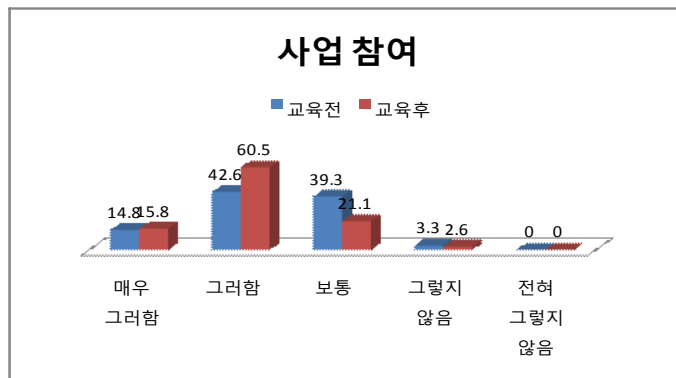
-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포럼 및 워크숍 등 행사참여에 대한 조사결과 “매우 그러함”이 31.1%에서 42.1%로 증가하였으며, “보통”은 16.4%에서 10.5%로 감소하였다.

8. 나는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한 공동 조직에 참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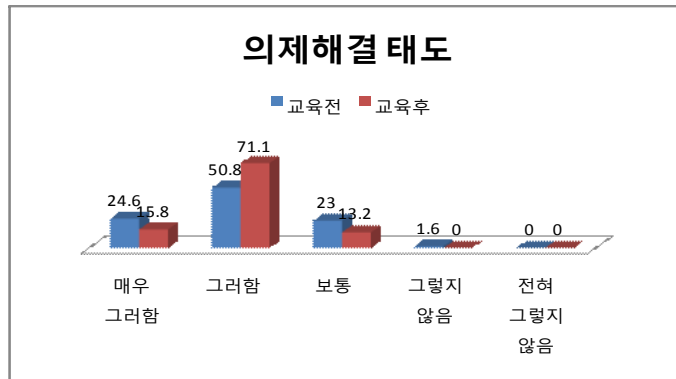
•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한 공동조직 참여에 대한 조사결과 “매우 그러함”이 26.2%에서 36.8%로 증가하였으며, “보통”은 18.0%에서 7.9%로 감소하였다.

9. 나는 자발적인 마을 리더가 되어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솔선수범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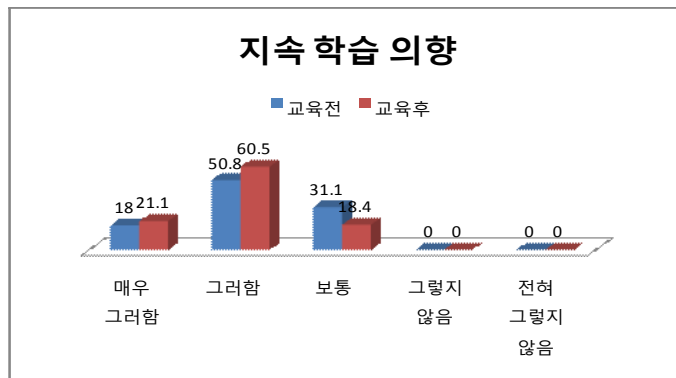
• 자발적인 마을 리더가 되어 솔선수범할 의사에 대한 조사결과 “그러함”이 42.6%에서 60.5%로 증가하였으며, “보통”은 39.3%에서 21.1%로 감소하였다.

10. 나는 우리 마을의 의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민주적인 태도로 임하고자 한다.



• 본 포럼이 의제해결 태도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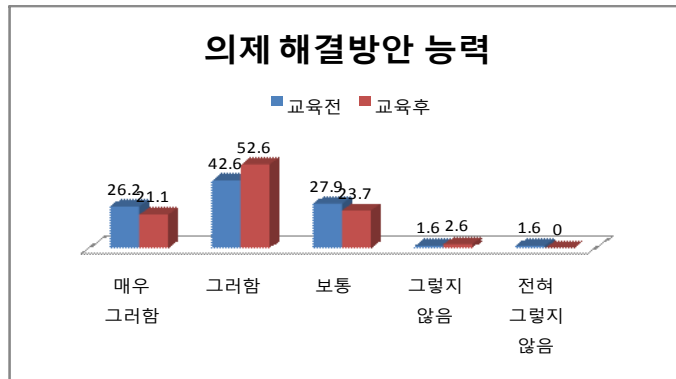
11. 나는 우리 마을의 의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지속적으로 학습할 의향이 있다.



• 우리 마을의 의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학습 의향에 대한 조사결과 포럼 전과 비교하여 포럼 후 긍정적인 응답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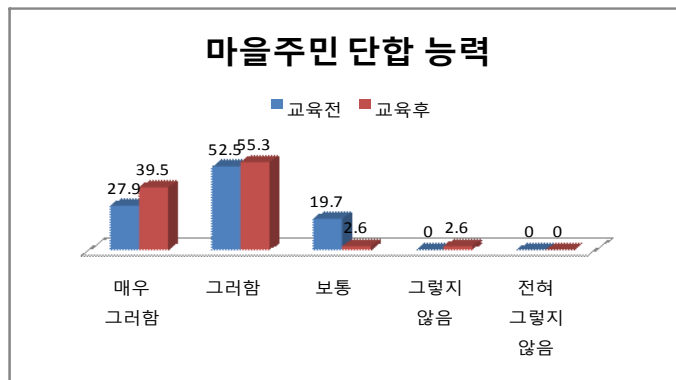
• 본 포럼이 의제해결 태도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12. 나는 우리 마을의 의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본 포럼이 의제해결 방안과 관련한 태도에 아직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13. 나는 우리 마을의 의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마을 주민들의 단합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본 포럼이 마을의 의제해결 태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2년 실시한 농어촌현장포럼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농어촌현장포럼 시범사업을 진행한 강원도 강릉시 북동리마을과 인제군 하추리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포럼실시 전후로 나누어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설문분석 결과, 현장포럼의 마을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은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본 포럼이 지역주민의 마을에 대한 무관심을 감소시켰으며, 중립적인 역할에서 주체적인 역할로 변환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이 설문조사를 통하여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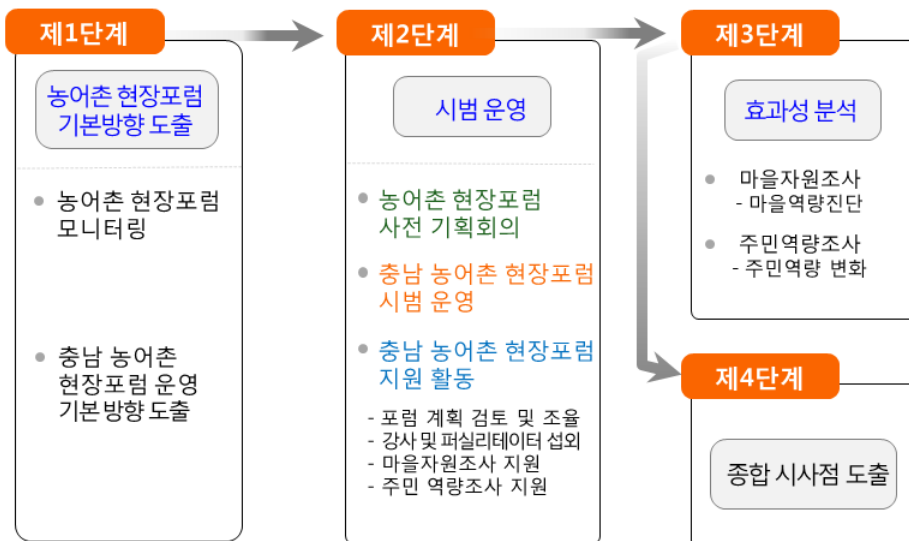
또한 현장포럼이 실시된 마을에서 포럼 전-후 비교결과 “그러함”에서 “매우 그러함”으로의 변화가 뚜렷이 보이는 것은 본 포럼이 리더십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에 대한 효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은 특정한 타겟 집단에게는 큰 효과를 나타냈지만 일부 주민에게서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여 부정적인 응답의 비중이 높아지기도 하였다. 한편, 앞으로는 문화자원 활용, 연계자원, 공동체자원의 활용에 대한 인식 확대 및 경제적 효과와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대책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충청도 시범운영 사례

1) 농어촌 현장포럼 개요(충청도 5개 시범마을)

농어촌활성화센터의 기능 및 역할 정립을 위해 현장 포럼 시범 마을로 선정된 충남 지역의 5개 농어촌마을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실제 농어촌 현장포럼 계획 수립 및 운영에 있어 센터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고, 그 효과성은 어떠한지 등의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그림 4-1)과 같이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한다.



(그림 4-1) 농어촌활성화센터 시범운영 개요

2) 농어촌 현장포럼 개최 마을 사전 조사분석

먼저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한 경기도 양평군의 모꼬지마을과 강원도 평창군 약초마을의 현장 포럼 계획과 진행 방법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충남 지역의 농어촌 현장 포럼 운영 방향과 일정, 그리고 내용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두 마을의 현장 포럼 계획과 일정은 다음과 같다.

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조현리 ‘모꼬지마을’ 농어촌 현장포럼 모니터링

- 주 최 : 농림수산식품부
- 일시 및 장소
 - 2012. 5. 11(금)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조현리 ‘모꼬지마을’
- 포럼 주제
 - 관광지를 연계한 농촌 체험마을 활성화 방안
- 주요내용
 - 마을자원 및 주민역량 분석 : 현장포럼 실시 2주 전, 현지 실사를 통해 마을자원·주민역량 조사, 포럼에서 분석 결과 발표
 - 전문가 자문·강의 : 마을자원 및 마을주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수요자 요구에 맞춘 전문가 자문·강의
 - 마을발전 방향 제시 : 전문가(선도마을 대표) 특강·자문 및 관계공무원·주민·전문가 토론을 통하여 마을발전방향 도출
- 전문가 구성
 - 농어촌의 다양한 발전요소를 포괄하도록 관계공무원,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 15인 내외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
 - 정책전문가 : 농식품부, 공사,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 5~6명
 - 민간전문가 : 대학, 연구소 관련 전문가 등 4~5명
 - 현장전문가 : 마을리더, 재능기부자, 컨설턴트 등 5~6명

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두일1리‘약초마을’농어촌 현장포럼 모니터링

- 주 최 : 농림수산식품부
- 일시 및 장소
 - 2012. 6. 22(금), 14:00~22:30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두일1리‘약초마을’
- 포럼 주제
 - ‘약초마을’을 테마로 한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 주요내용
 - 마을 현황 및 미래 비전 발표

- 전문가 특강 및 자문 : 약초 가공 및 판매
- 선도마을 사례 발표 : 솔내마을
- 마을자원 및 주민역량 분석 및 발표
- 마을 현장답사
- 마을발전 테마 발굴 및 발전방안 종합토론
- 전문가 구성
 - 민간전문가 : 약초가공판매 전문가, 선도마을 사례 발표자, 퍼실리테이터
 - 지역개발 전문가
 - 주민역량평가 및 자원조사 전문가

다) 농어촌 현장포럼 계획 검토 및 모니터링 결과

- 주민 수준에 맞는 포럼 내용 및 방법 설정 필요

양평‘모꼬지’마을 농어촌 현장포럼의 경우, 농어촌 현장포럼의 목적인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및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에 대한 설명 없이 바로 전문가 특강이 시작되어, 현장포럼의 목적 및 취지가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였다.

처음 시행되는 포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수준에 비해 전문적인 내용들 위주로 진행되었음. 전문적인 내용일지라도 주민의 수준에 맞게 쉽게 재구성하여 전달할 필요가 있다.

- 과도한 교육일정 및 세부 교육내용 과다

현장 포럼이 5월~10월의 농번기에 이루어질 때 주민들이 오후부터 저녁까지 온전한 시간을 투자하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

또한 하루 안에 선도마을 사례 발표, 전문가 특강, 마을자원 및 주민역량 조사 발표, 마을 현장답사, 마을발전 테마 발굴 및 발전방향 토론 등과 같은 방대한 양의 내용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음. 주민들에게도 마을의 발전 방향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토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동기부여 촉진 차원의 내용 구성

양평 모꼬지마을의 농어촌 현장포럼의 경우 마을 자원조사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이 마을은 마을발전을 위해 활용할 만한 자원이 거의 없다’였다. 이러한 분석은 객관적일 수는 있지만, 마을 만들기에 대한 주민들의 동기를 꺾어버리는 역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성을 가지면서도 주민들의 동기부여를 촉진할 수 있는 주민역량 및 마을 자원조사 발표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활용할 만한 마을 자원이 거의 없더라도 마을 주민들에게 잠재적 마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 모색해 보도록 유도해야 한다.

- 주민 참여와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 방법 모색 필요

마을자원 및 주민역량 조사결과 발표 시에는 전문가에 의해 분석된 마을자원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주민이 능동적으로 자원 찾기 활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주민 주도의 마을 자원 찾기 활동을 한 이후에 전문가의 조사 결과를 비교·검토 해보는 방법도 효과적일 것이다.

- 현장포럼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 강사 섭외 필요

전문가 특강에 있어 몇몇 강사들의 경우 현장포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홍보 및 마케팅과 관련된 분야 및 민간 업체 강사의 경우 사전에 교육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3) 충남 농어촌 현장포럼 기본방향 도출 및 시범 운영 기획

가) 농어촌 현장포럼 기본방향 도출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농어촌 현장포럼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 <표 4-11>과 같이 농어촌 현장포럼 기본방향을 도출하였다.

<표 4-11> 농어촌 현장포럼의 기본방향

모니터링 결과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수준에 맞는 포럼 내용 및 방법 설정 필요 ▶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동기부여 촉진 차원의 내용 구성 ▶ 현장포럼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 강사 섭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이해 ▶ 마을 수준에 따른 교육 내용 단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교육일정 및 교육내용 과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연한 일정 및 시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참여와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 방법 모색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주도의 현장포럼 운영 ▶ 주민 참여 촉진의 퍼실리테이터 및 교육 방법 활용

나) 시범 운영 대상마을 선정 및 일정

위와 같은 농어촌 현장포럼의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차원에서 선정된 5개 시·군 마을에 대해 현장포럼을 시범 운영한다. 대상 마을 및 일정 · 장소는 아래 <표4-12>와 같다.

충남 농어촌 현장포럼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모니터링을 통해 도출된 기본방향을 적용하였고, 운영 단계에서 기본방향이 실제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적용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홍보 시·청각 자료 시·청 시간 반영
-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설명 및 주민주도형 마을계획 강의 반영
- 마을 수준의 따른 교육 내용 단계화 구상(안) 도출
- 유연한 일정 및 시간 운영을 위해 3회차 교육으로 재구성
- 주민 주도와 주민 참여를 위한 충분한 교육시간 확보(회차별 120분~270분)
- 주민참여 촉진의 퍼실리테이터 섭외 지원

<표 4-12> 충남 농어촌 현장포럼 대상마을 및 일정

대상 마을	차시	일 정	장 소	참여인원
당진시 신평면 신송1리 솔오지마을	1차	2012. 7. 9(월)	신송1리 마을회관	30여명
	2차	2012. 7. 13(금)		
	3차	2012. 7. 20(금)		
공주시 유구읍 동해리 산수박마을	1차	2012. 7. 19(목)	동해리 마을회관	30여명
	2차	2012. 7. 23(월)		
	3차	2012. 7. 30(월)		
부여군 내산면 천보리 구례울마을	1차	2012. 7. 26(목)	천보1리 마을회관	30여명
	2차	2012. 8. 1(수)		
	3차	2012. 8. 6(월)		
홍성군 갈산면 부기리 진죽마을	1차	2012. 8. 23(목)	부기리 진죽 마을회관	30여명
	2차	2012. 8. 27(월)		
	3차	2012. 9. 6(목)		
	4차	2012. 9. 24(월)		
서천군 판교면 심동리 심동 산촌 생태마을	1차	2012. 8. 22(수)	1차 : 달고개모시마을 2-3차 : 심동리 마을회관	30여명
	2차	2012. 8. 24(금)		
	3차	2012. 8. 28(화)		

다) 충남 농어촌 현장포럼 시범 운영 기획

- 충남 농어촌 현장 포럼 현장 활동가 사전 협의회 실시
 - 일 시 : 2012. 6. 13(수). 13:00
 - 장 소 : 홍성 용봉산 자연휴양림
 - 대 상 : 5개 시·군(공주, 당진, 서천, 부여, 홍성) 현장활동가 및 마을 리더 15명
 - 내용 :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소개, 현장포럼 진행 구상 협의, 농어촌활성화프로그램 의견 수렴, 설문조사 등
- 시범마을 자원조사팀 편성 : 5명(농촌어메니티 자원조사 유경험자)
- 마을 자원조사 기초교육 실시
 - 일 시 : 2012. 6. 15(금). 15:00~17:00
 - 내 용 : 마을 자원조사 배경 및 목적 설명, 조사방법, 사전 실내

조사교육,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정리 등

- 현장 포럼 운영 시범 마을 자원조사 실시

라) 충남 농어촌 현장포럼 시범 운영 효과성 분석

- 현장포럼 참여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효과성 검증
- 측정도구 및 내용
 - 현장 포럼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40문항 정도의 설문지 개발
 - 설문은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를 위한 주민 역량 측정도구로써 역량 주의 분석방법으로 널리 사용하는 KSA(지식, 기술, 태도) 분석을 재구성함. 설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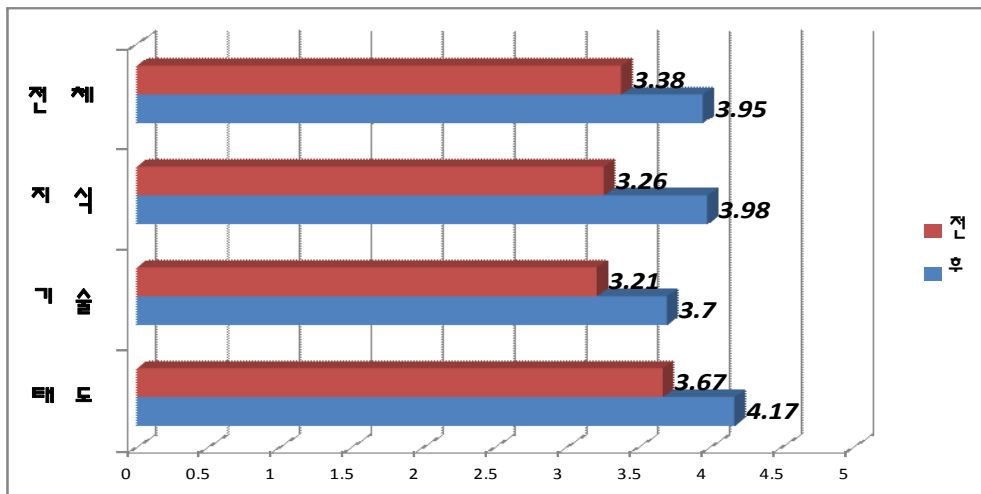
<표 4-13> 충남 농어촌 현장포럼 설문 내용

구 분	영 역	내 용	문 항
지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자원에 대한 이해 ▶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 ▶ 마을 발전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자연, 경제, 역사·문화, 공동체, 주변연계 자원 ▶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경제적 인식 및 우수사례 등 ▶ 마을 의제 인식, 마을 현황 및 주민들의 생각 인식, 마을 발전방향에 대한 아이디어 등 	14
기 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자원 활용 기술 ▶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수행 기술 ▶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자연, 경제, 역사·문화, 공동체, 주변연계 자원의 활용 기술 ▶ 정보수집 기술, 브랜드 및 테마 설정, 외부 홍보, 외부 방문자 요구 대응 능력 등 ▶ 마을 회의 의사소통 능력, 의사결정, 갈등상황 해결, 회의진행 능력 등 	13
태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도 ▶ 마을 발전 가능성 ▶ 마을 의제 해결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 의향, 워크숍 및 행사, 공동조직 참여 의향, 출선수범 의향 ▶ 마을 발전 가능성 인식, 삶의 질 개선, 주민 의식수준, 외부 방문자에 대한 서비스정신 수준 등 ▶ 마을 의제 해결에 있어 해결의 가능성, 민주적 태도, 학습 의향, 마을 주민 단합 가능성 등 	13
계			40

4) 현장포럼 실시 전·후 효과성 분석 결과

가) 현장 포럼 실시 전·후 주민 역량 변화 : 3.38 → 3.95($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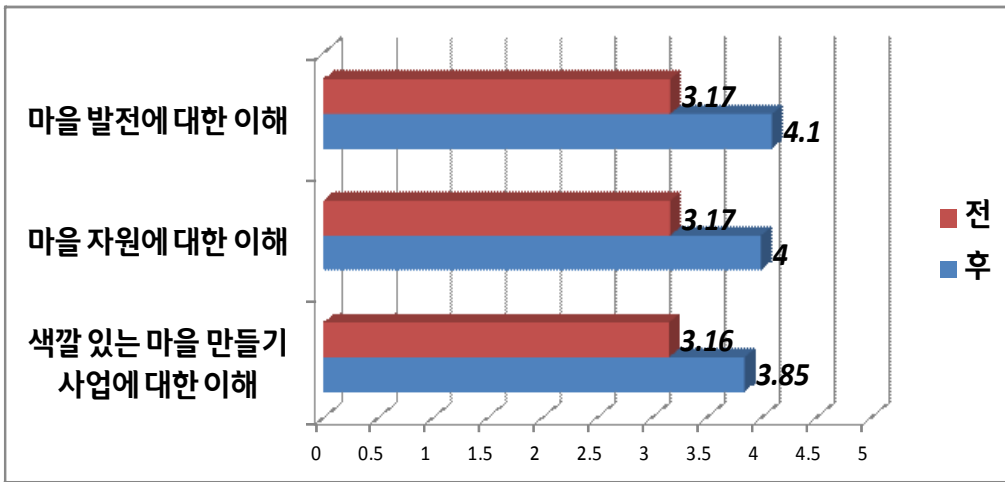
농어촌 현장포럼 효과성 분석을 통해, 주민의 역량을 포럼 실시 전·후로 비교한 결과 3.38에서 3.95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럼 실시 전·후, 지식, 기술, 태도 전 영역에서 고르게 유의미한 향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장포럼이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식 영역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장 포럼 실시 후 마을 자원 및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마을 발전 등에 대한 지식이 포럼을 통해 습득된 것으로 여겨진다.



지식 영역에서는 마을발전에 대한 이해, 마을 자원에 대한 이해,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 등 3가지 소영역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포럼 실시 전·후 지식 영역 내 모든 소영역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을발전에 대한 지식 영역에서 가장 큰 변화(3.17 → 4.10)가 있는 것으로 보아, 주민들의 마을 현황 및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이해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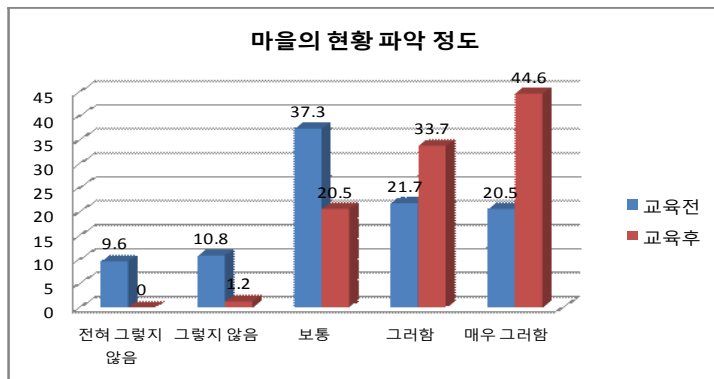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나) 마을 발전에 대한 지식 향상 : 부정 → 긍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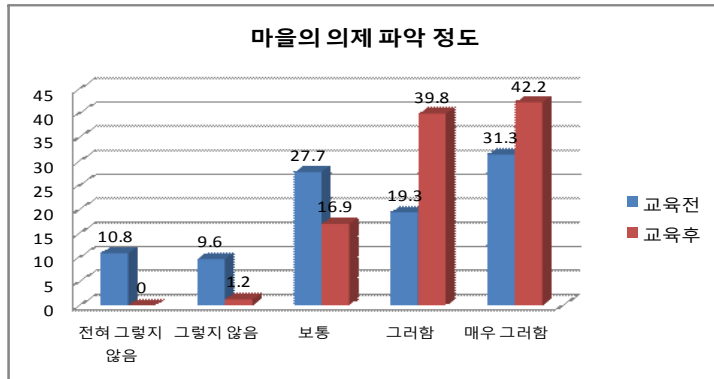
마을 발전에 대한 지식은 마을의 현황과 의제, 마을 발전에 대한 주민의 생각과 이에 관한 아이디어 소유 등 4개의 세부사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대한 결과를 포럼 실시 전·후로 살펴보면, 모든 질문에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은 증가하고, 부정적인 응답은 감소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주민들의 마을 발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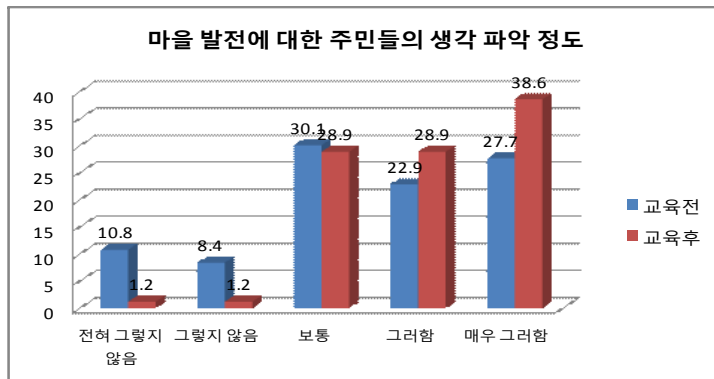


마을의 현황(인구, 가구수, 면적, 소득수준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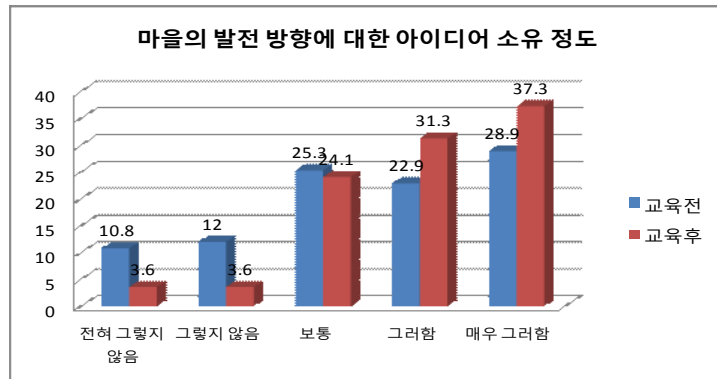
한 응답 결과, 포럼 실시 후,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9.6%에서 0%로 감소한 반면, ‘매우 그렇다’는 의견은 20.5%에서 44.6%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마을 의제 파악에 대하여, 포럼 실시 전에는 보통이라는 의견이 2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포럼 실시 후 ‘매우 그러함’에 응답한 비율이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을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을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는 포럼 실시 전에 비해 ‘전혀 그렇지 않거나,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감소하고(10.8%→2.4), ‘매우 그러하거나, 그렇다’라는 의견은 증가한 것으로 (50.6%→67.5%)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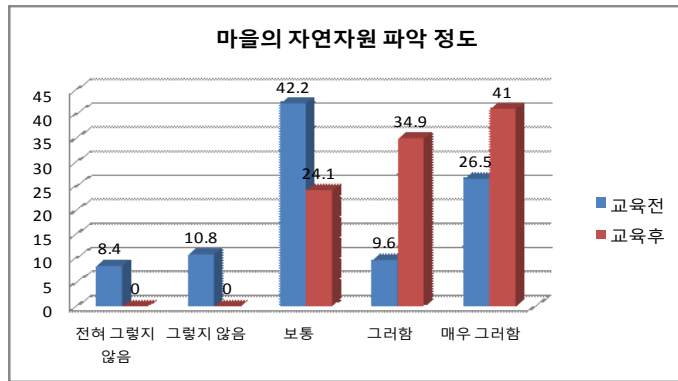
마을 발전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포럼 실시 전 ‘전혀 그렇지 않거나, 그렇지 않다’는 응답의 비율이 22.8%에서 7.2%로 감소하고, ‘매우 그러하거나, 그렇다’는 응답은 51.8%에서 68.6%로 증가하였다.

다) 마을 자원에 대한 지식 향상 : 보통 → 긍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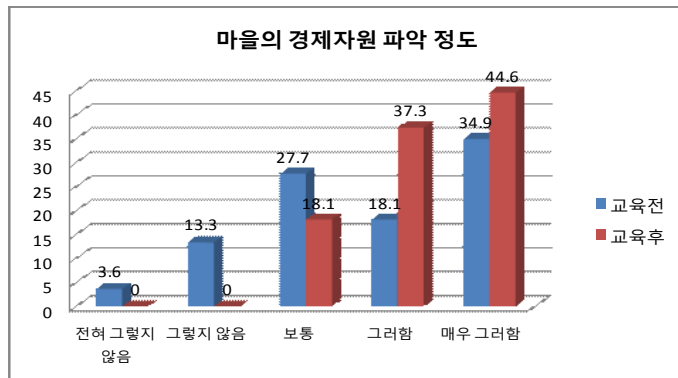
마을 자원에 대한 지식은 마을의 자연자원, 경제자원, 역사·문화자원, 공동체 자원 파악 등을 묻는 4개의 세부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에 대한 결과를 포럼 실시 전·후로 살펴보면, 모든 질문에서 긍정적인 응답은 감소하고, 부정적인 응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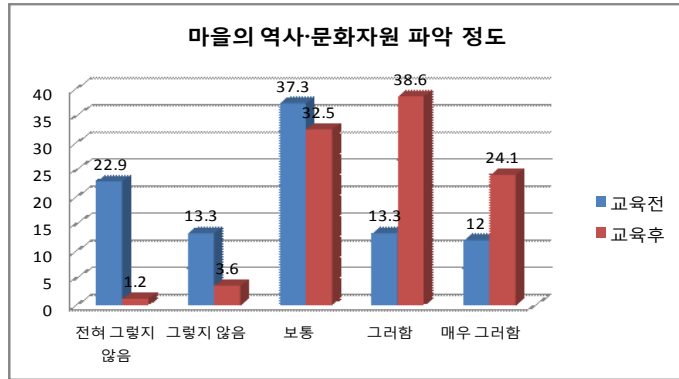
이는 포럼을 통해 다양한 마을 자원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이해에 대한 지식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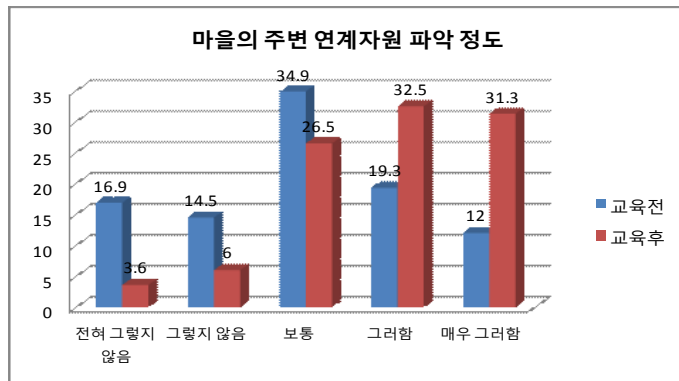
마을의 자연자원 파악에 대한 응답 결과, 포럼 실시 후 ‘전혀 그렇지 않거나,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에서(19.2%→0%), ‘매우 그러하거나, 그러다’는 응답이 36.1%에서 80.4%로 크게 향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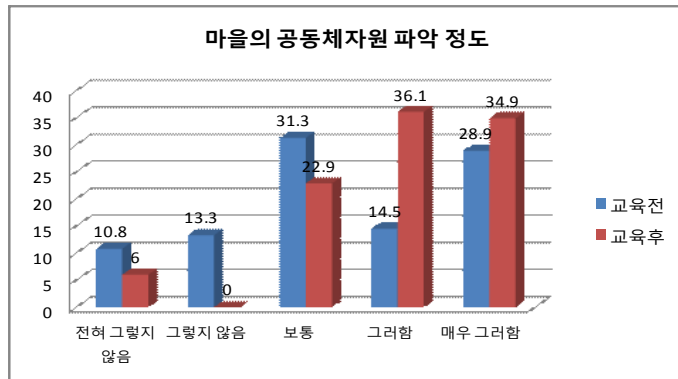
마을 경제자원 파악에 대한 응답 결과, 포럼 실시 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을 선택한 응답자가 16.9%에서 0%로 감소했으며, 그러함을 선택한 응답자의 수는 18.1%에서 37.3%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의 역사·문화자원을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22.9%에서 1.2%로 대폭 감소했으며, ‘그렇다’는 의견은 13.3%에서 38.6%로 세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마을의 주변 연계자원(역사문화, 숙박, 스포츠, 오락 축제행사 등)을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포럼 실시 전 ‘보통’이라는 의견이 34.9%로 가장 높고, ‘그러함(19.3%)’, ‘전혀 그렇지 않음(16.9%)’ 순으로 응답하였지만, 포럼 실시 후에는 ‘그러함’을 선택한 응답자 수가 가장 높고(32.5%), 다음으로 ‘매우 그러함(31.3%)’, ‘보통(26.5%)’ 순으로 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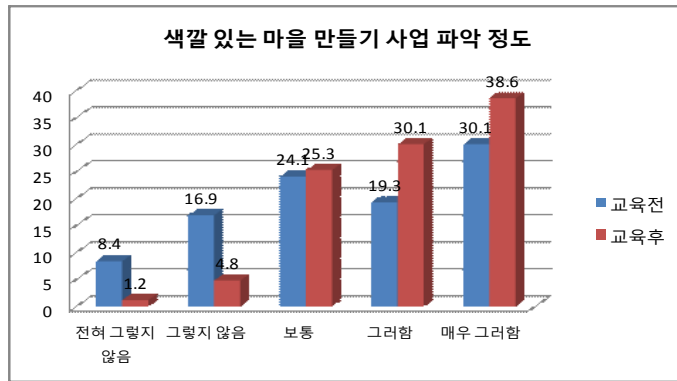


마을의 공동체자원(마을조직·공동체, 교육, 복지, 의료, 문화여가 등) 파악에 대한 응답을 포럼 전후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13.3%에서 0%로 감소했으며, ‘그러함’을 선택한 응답자수는 14.5%에서 36.1%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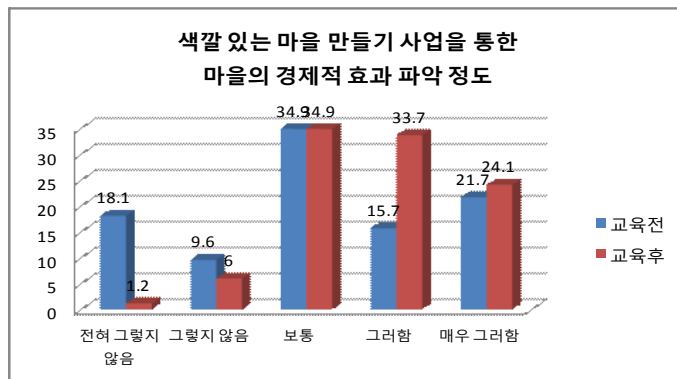
라)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지식 향상 : 보통 → 긍정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지식은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한 마을의 경제적 효과, 우수 마을 사례, 마을 사업에 있어 본인의 역할,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등에 대한 파악 정도를 묻는 4개의 세부문항으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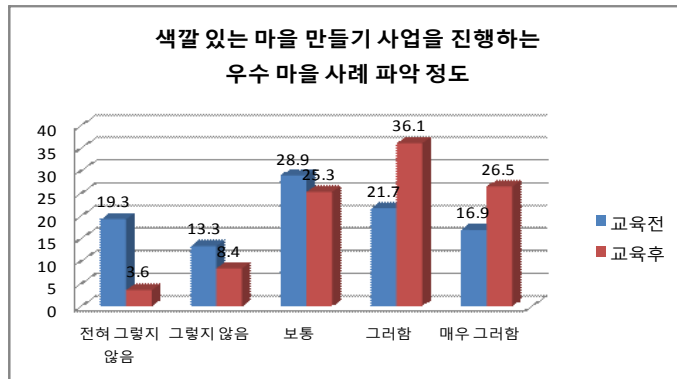
이에 대한 결과를 포럼 실시 전·후로 살펴보면, 모든 세부문항에서 주민들의 파악 정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향상에 현장포럼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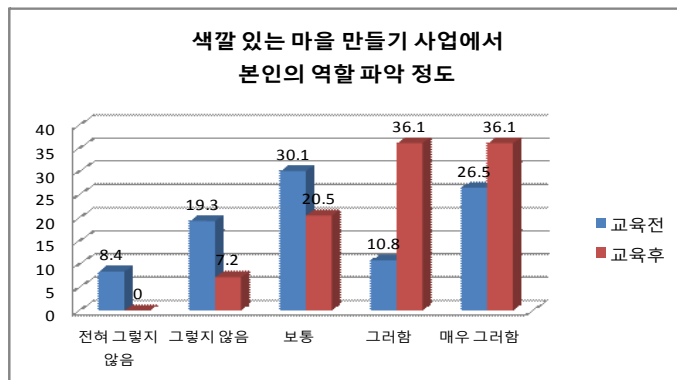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거나,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25.3%였지만, 포럼 실시 후 6.0%로 상당수 감소하였다. 즉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는 응답이 49.4%에서 68.6%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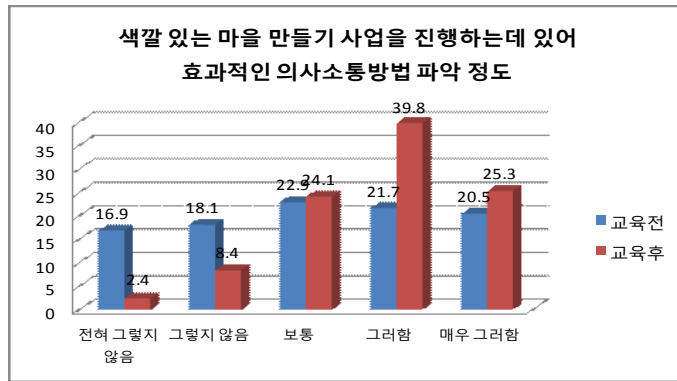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한 마을의 경제적 효과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포럼 실시 전·후 ‘보통’이라는 의견의 비중이 공통적으로 가장 높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18.1%에서 1.2%로 대폭 감소했으며, ‘그렇다’는 의견은 15.7%에서 33.7%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는 우수 마을 사례를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포럼 실시 전 ‘보통’이라는 의견이 2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포럼 실시 후 ‘그렇다’는 의견이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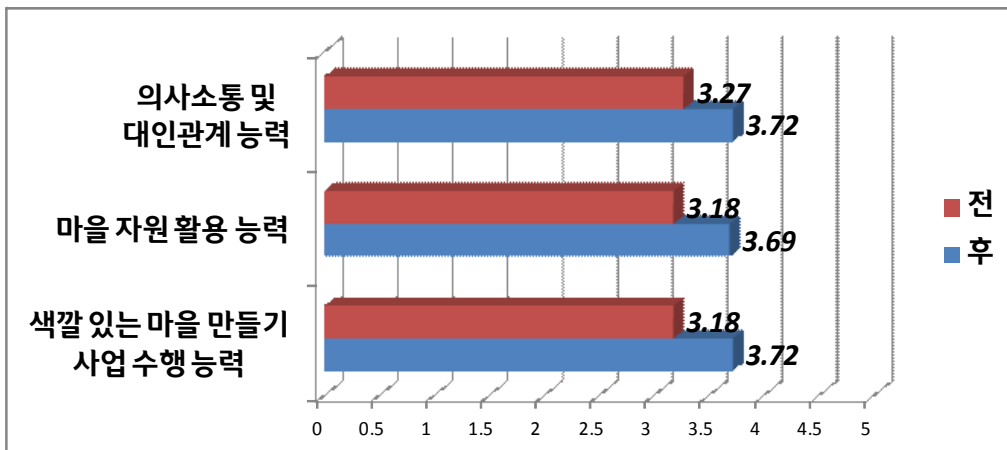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있어 본인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포럼 실시 전에 비해 실시 후 ‘전혀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8.4%에서 0%로 낮아진 반면 긍정적인 답변은 37.3%에서 72.2%로 증가하였다.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21.7%에서 39.8%로 상승했으며, ‘매우 그렇다’는 응답도 20.5%에서 25.5%로 상승하였다.

5) 현장포럼 실시 전·후 기술 영역 분석 결과



기술 영역에서는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능력, 마을자원 활용 능력,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수행 능력 등 3가지 소영역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포럼 실시 전·후 기술 영역 내 모든 소영역에서 고르게 유의미한 향상이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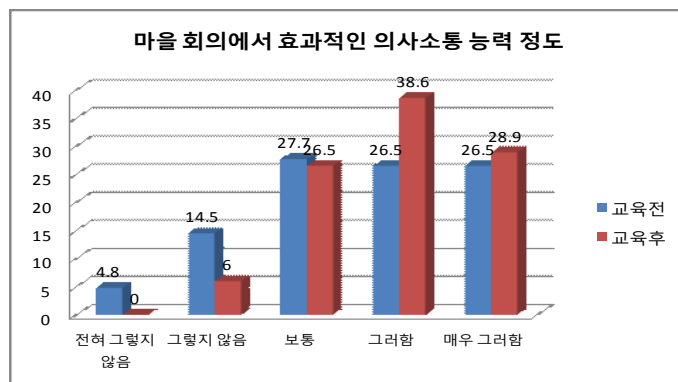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민들이 마을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과 마을사업 수행기술,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능력 등이 포럼을 통해 향상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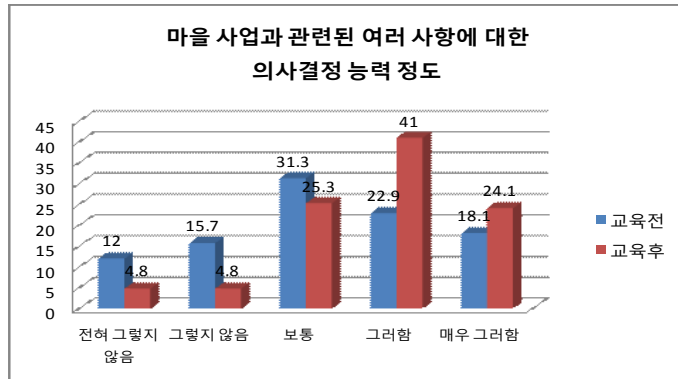
가)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기술 향상 : 부정(▼) → 긍정(▲)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기술 영역에서는 마을회의에서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 정도, 마을 사업과 관련된 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능력 정도, 마을 회의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정도, 마을 발전 방안에 대한 회의 진행 능력 정도에 대한 4개의 세부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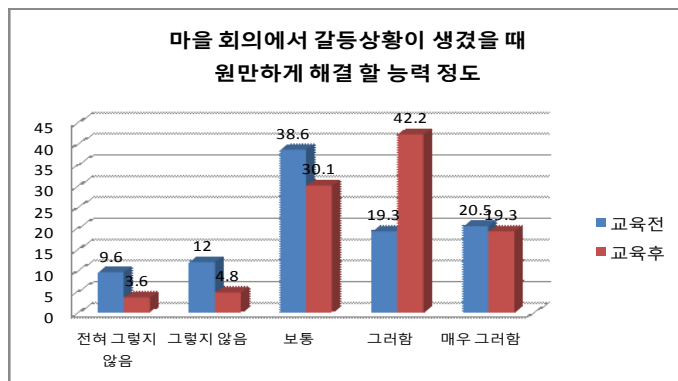
이에 대한 결과를 포럼 실시 전·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질문에서 긍정적인 응답은 증가하고, 부정적인 응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포럼을 통해 주민들간의 마을 발전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갈등해결 능력, 회의진행 능력 등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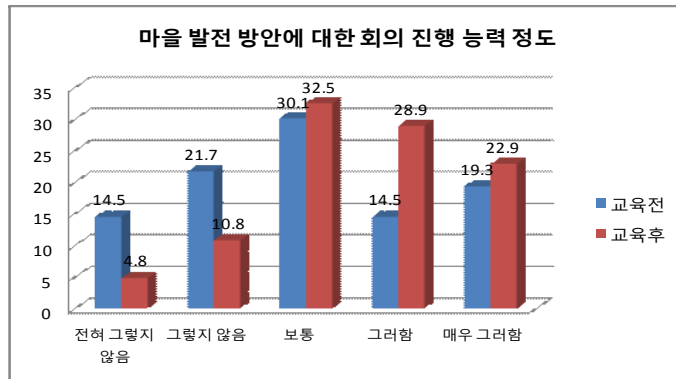
마을회의에 있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러함’을 선택한 응답자가 25.5%에서 38.6%로 증가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4.8%의 비율은 포럼 후,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사업과 관련된 여러 사항에 대해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은 27.7%에서 9.6%로 감소하였고, 긍정적인 답변은 42.0%에서 65.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회의 중 갈등상황이 생겼을 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묻는 질문 결과, 포럼 실시 전에는 38.6%의 인원이 ‘보통’이라고 답변한 반면, 포럼 실시 후 ‘그러함’을 택한 응답자의 수가 전체의 42.2%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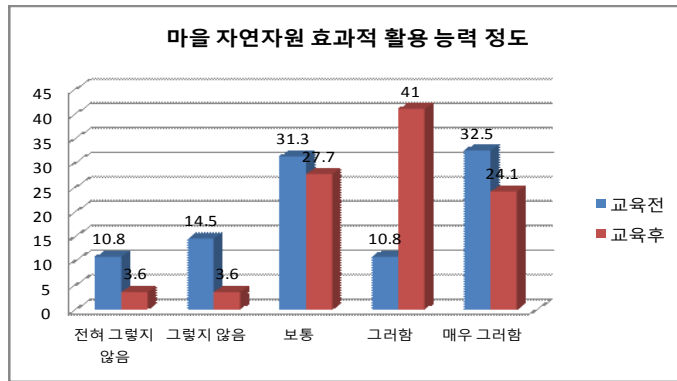


마을발전 방안에 대한 회의 진행 능력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포럼 실시 전, 공통적으로 ‘보통’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지만, 포럼 실시 후 ‘그렇다’는 의견은 14.5%에서 28.9%로 증가했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14.5%에서 4.8%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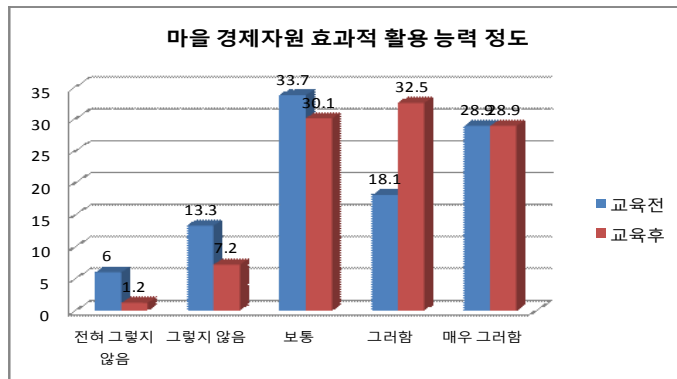
나) 마을 자원 활용 기술 향상 : 부정(▼) → 긍정(▲)

마을 자원 활용 기술 영역은 마을 자연자원의 효과적 활용 능력 정도, 마을 경제자원 효과적 활용 능력 정도, 마을 역사·문화자원 효과적 활용 능력 정도, 마을 공동체 자원 효과적 활용 능력 정도, 마을 주변 연계자원의 효과적 활용 능력 정도를 묻는 5개의 세부문항으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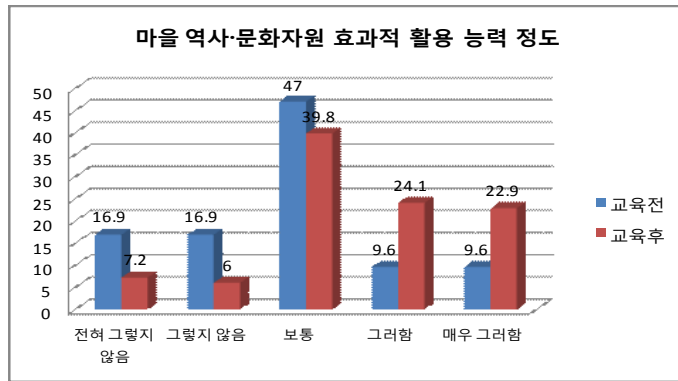
이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질문에서 긍정적인 응답은 증가하고, 부정적인 응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포럼을 통해 마을 내의 자연·경제·역사·문화·공동체 자원, 주변과 연계 가능한 자원 등 다양한 자원을 마을 발전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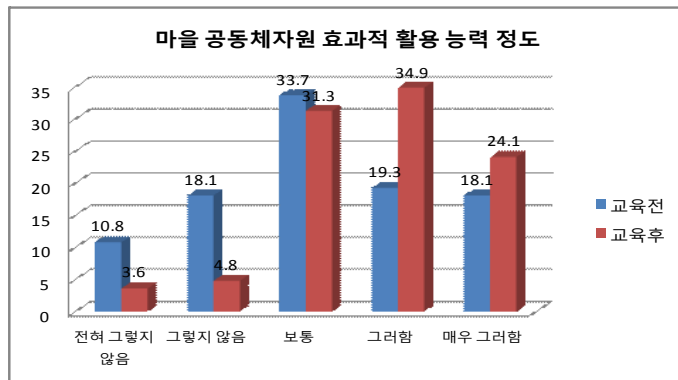
자연경관, 동·식물, 수자원, 광물, 기후 등 마을의 자연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 결과, 포럼 실시 후 ‘그렇다’는 의견이 10.8%에서 41%로 크게 증가함. ‘전혀 그렇지 않거나,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25.3%에서 7.2%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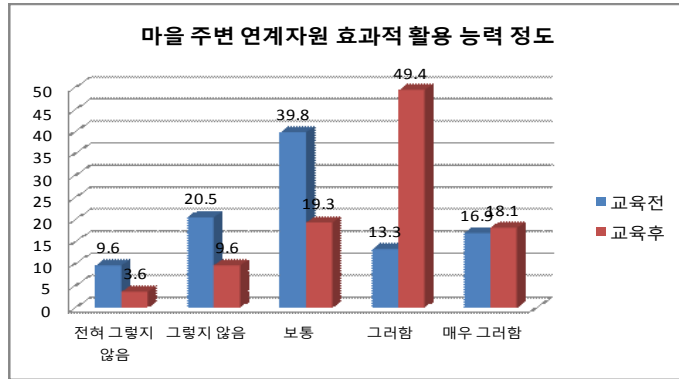
특산물, 농·어업시설, 산업시설, 농·림·축산물, 식품 등 마을의 경제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러함’이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18.1%에서 32.5%로 증가함. ‘그렇지 않음’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13.3%에서 7.2%로 감소하였다.



마을의 역사·문화자원의 효과적 활용 능력 정도를 묻는 질문의 응답결과, 포럼 실시 전후 모두 ‘보통’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남. 한편 ‘그러함, 매우 그러함’을 선택한 비율은 19.2%에서 47.0%로 증가하였다.



마을의 조직, 공동체, 교육, 복지 등 마을 공동체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 포럼 실시 후 부정적인 의견이 28.1%에서 8.4%로 감소했으며, 긍정적인 의견은 37.4%에서 59.0%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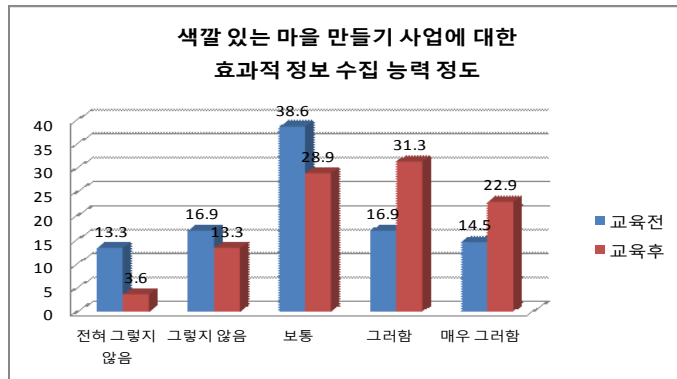


마을 주변의 다양한 연계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포럼실시 후 ‘그렇다’는 의견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이 나타났으며(49.4%), 포럼 실시 전에 비해 36.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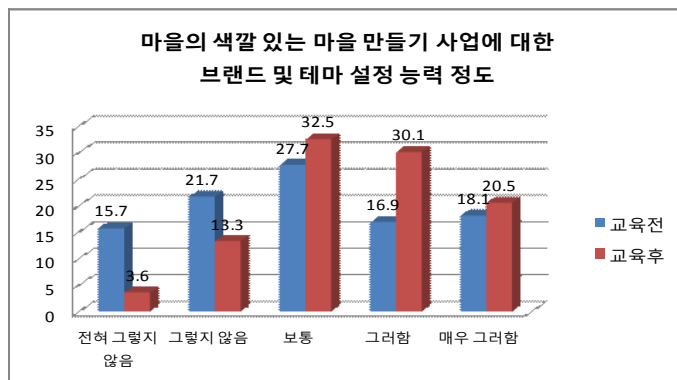
다)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수행 기술 : 부정(▼) → 긍정(▲)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수행 기술은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효과적 정보 수집 능력 정도, 마을 브랜드 및 테마 설정 능력 정도, 사업 진행시 홍보 능력 정도, 마을 방문하는 고객 대응 능력 정도에 대한 4가지 세부분항으로 구성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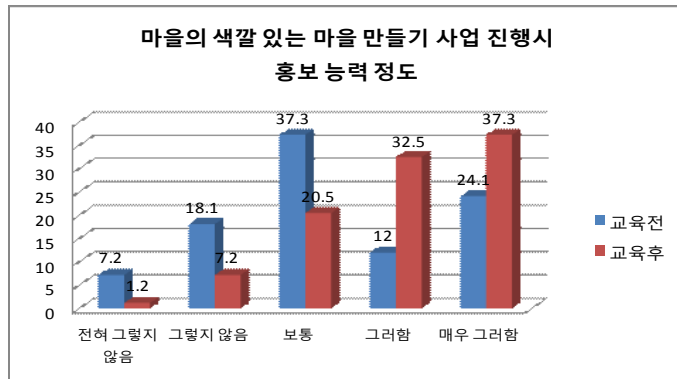
이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질문에서 긍정적인 응답은 증가하고, 부정적인 응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관한 정보수집 능력, 마을 고유의 브랜드 및 테마 설정 능력 정도, 마을 홍보에 대한 능력, 방문객들을 대응하는 기술 등이 포럼 실시 전에 비해 다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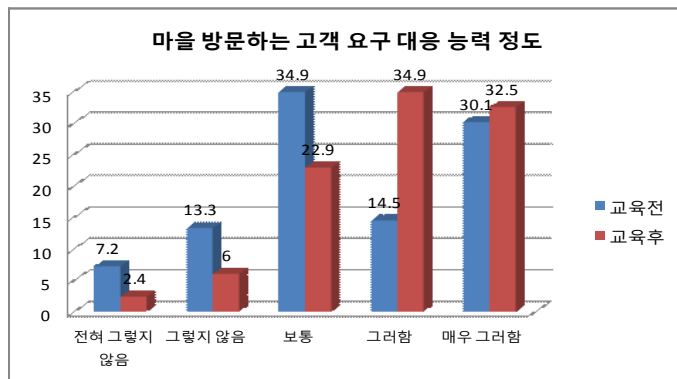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포럼 실시 전 ‘보통’(38.6%), ‘그렇지 않음’(16.9%), ‘그러함’(16.9%) 순으로 나타났으나, 실시 후 ‘그러함’(31.3%)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 ‘매우 그러함’ 순으로 조사되었다.



마을의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브랜드 및 테마를 설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 결과, 포럼 실시 전·후 공통적으로 ‘보통’을 선택한 응답자가 많았음. 그러나 ‘그러함’, ‘매우 그러함’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이 35.0%에서 50.6%로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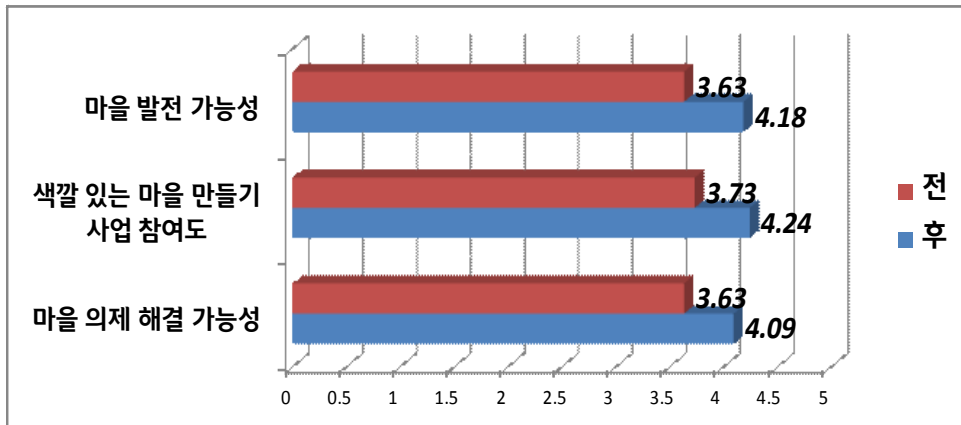


마을의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진행시 홍보 능력 정도를 묻는 질문에 포럼 실시 결과 ‘그러함, 매우 그러함’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6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을 방문하는 고객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포럼 실시 전 14.5%에서 실시 후 34.9%로 증가하였다.

6) 태도 영역 분석 결과



태도 영역에서는 마을발전 가능성,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도, 마을 의제해결 가능성 등 3가지 소영역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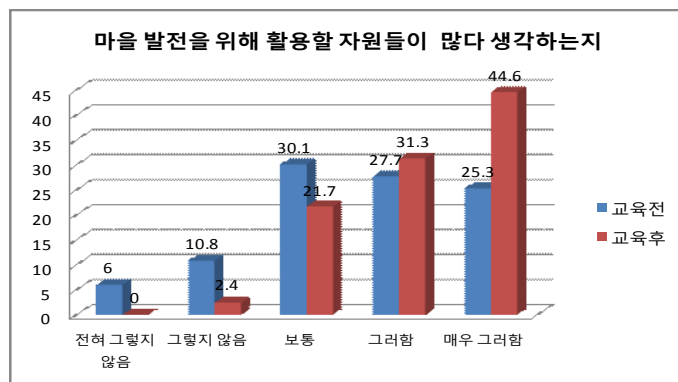
포럼 실시 전·후 기술 영역 내 모든 소영역에서 고르게 유의미한 향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포럼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마을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고, 색깔 있는 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증가했으며, 마을의 의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 역량이 제고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 마을 발전 가능성에 대한 태도 변화 : 긍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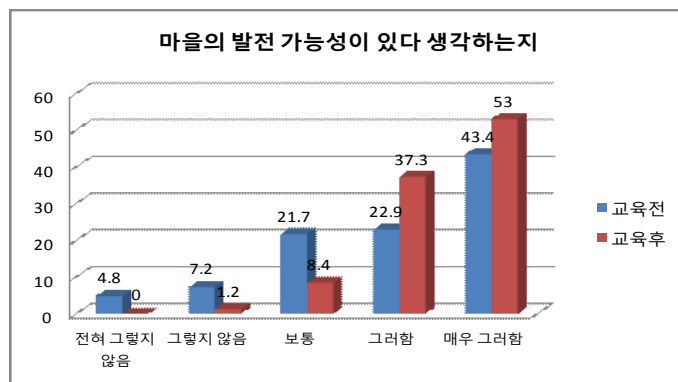
마을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태도는 주민들이 마을 발전을 위해 활용할 자원들이 많다고 생각하는지, 마을의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마을 사업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생각하는지,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지, 마을 주민들이 외부 방문자에 대해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한 5개의 세부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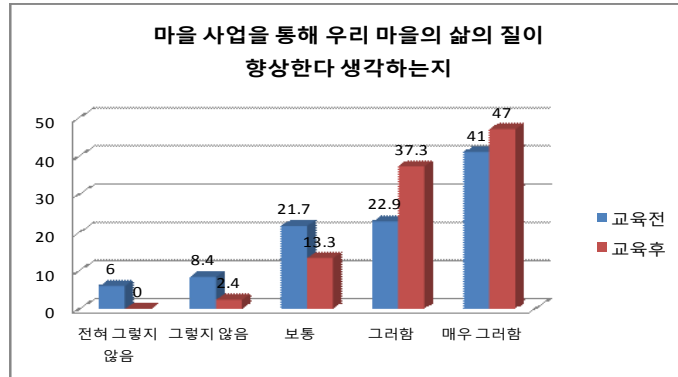
이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질문에서 마을 발전 가능성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됨을 알 수 있다. 포럼을 통해 주민들이 마을 발전 및 삶의 질의 향상 가능성을 보다 확실히 인식했으며, 사업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태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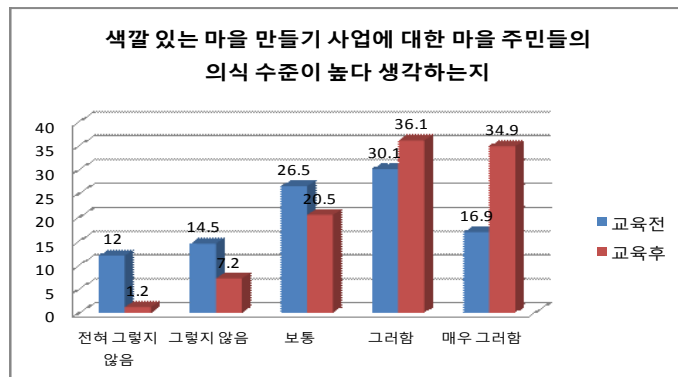
마을 발전을 위해 활용할 자원들이 많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포럼 실시 전후의 응답 추이를 비교해 보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25.4%에서 44.6%로 증가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6%에서 0%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을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포럼 실시 후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매우 그러함’을 선택했으며(53.0%), 다음으로 ‘그러함’(37.3%), ‘보통’(8.4%)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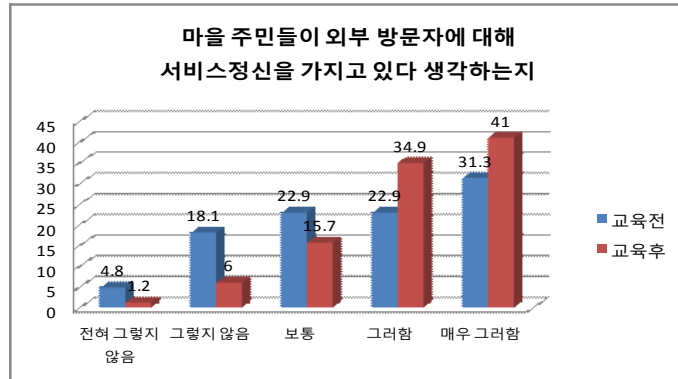


마을사업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84.3%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며, 이는 포럼 실시 전에 비해 긍정적이 답변의 비율이 20.4%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은 47.0%에서 71.0%로 향상되었으며, 반면

부정적인 답변은 26.5%에서 8.4%로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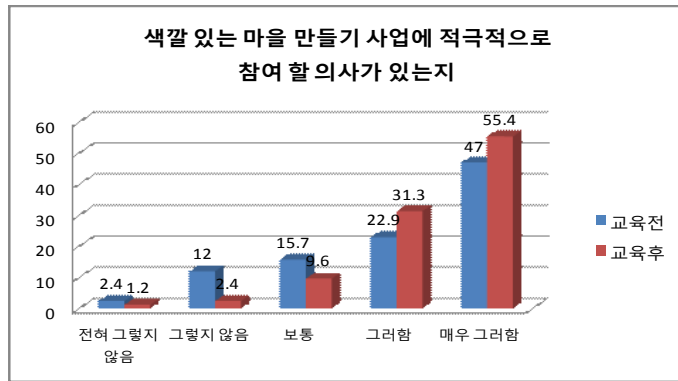


마을 주민들이 외부 방문자에 대해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포럼 실시 후 41.0%의 응답자가 ‘매우 그리함’을 선택했으며, 그 다음으로 34.9%의 응답자가 ‘그리함’을 선택함, 실시 전에 비해 각각 9.7%, 18.0% 증가한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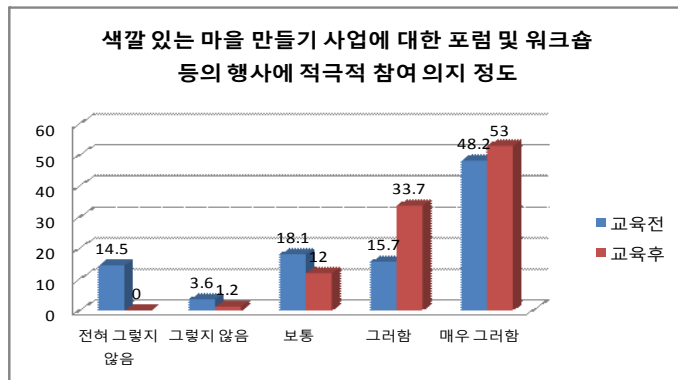
나)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참여도 : 의지(▲)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포럼 및 워크숍 등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한 공동조직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 자발적인 마을리더가 되어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솔선수범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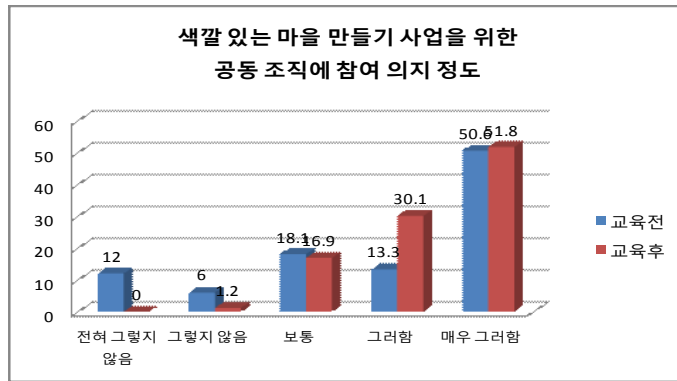
이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질문에서 마을 사업에 대한 참여 의지가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포럼을 통해 주민들의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과 이와 관련된 각종 교육, 행사 등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강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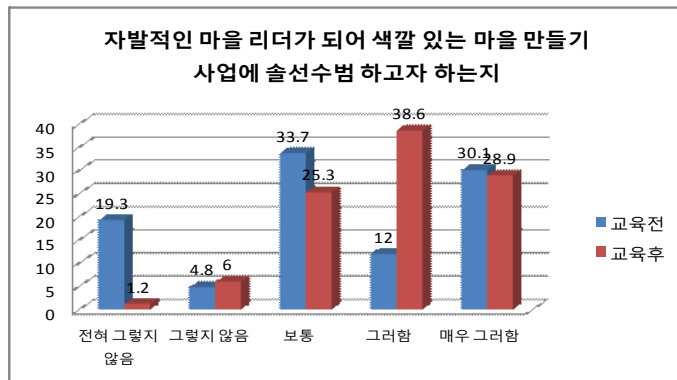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86.8%의 응답자가 ‘매우 그러함’ 또는 ‘그러함’을 선택하였다. 이는 포럼 실시 후 16.9%가 증가한 수치이다.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포럼 및 워크숍 등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86.7%의 응답자가 ‘매우 그러함’, 또는 ‘그러함’을 선택함. 이는 포럼 실시 전과 비교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22.8%가 증가한 수치이다.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한 공동 조직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81.9%의 응답자가 ‘매우 그러함’, 또는 ‘그러함’을 선택하였다. 포럼 실시 전 63.3%에 비해 18.6%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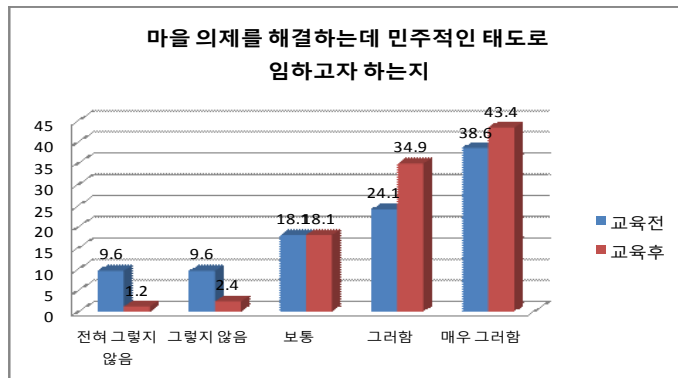
자발적인 마을리더가 되어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출선수범 하고자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19.3%에서 1.2%로 감소했으며, ‘그러함’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은 12.0%에서 38.6%로 증가하였다.

다) 마을 의제 해결 가능성 : 부정(▼) → 긍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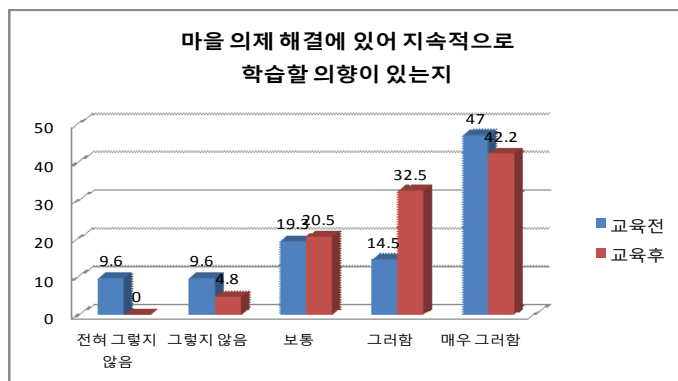
마을 의제를 해결하는데 민주적인 태도로 임하고자 하는지, 마을 의제 해결에 있어 지속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마을 의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

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마을 의제를 해결하는데 마을 주민들의 단합이 잘될 것이라 생각하는지를 묻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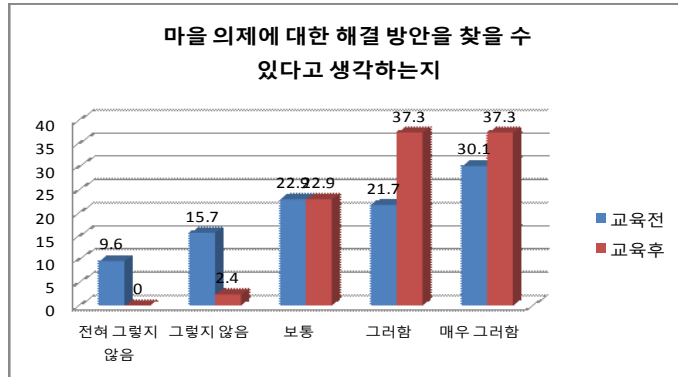
이에 대한 결과를 포럼 실시 전·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질문에서 긍정적인 응답은 증가하고, 부정적인 응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포럼이 지역 주민들의 민주적인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학습 및 의식제고, 마을 내 주체적인 문제해결 의지 강화, 주민들 간의 단합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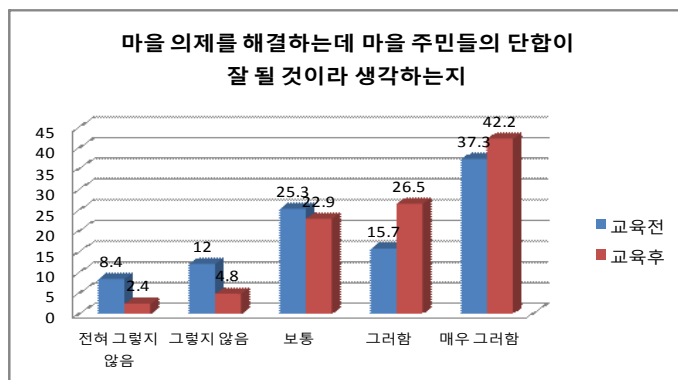
마을의제를 해결하는데 민주적인 태도로 임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은 62.7%에서 78.3%로 증가했으며, 부정적인 답변은 19.2%에서 3.6%로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을 의제 해결에 있어 지속적으로 학습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려함’을 선택한 응답자의 수는 14.5%에서 32.5%로 증가하였다. ‘매우 그려함’을 선택한 비중은 47.0%에서 42.2%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답변의 비중이 높아졌다.



마을의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포럼실시 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을 선택한 비율이 실시 후 25.3%에서 2.4%로 낮아졌으며, ‘그려함, 매우 그려함’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은 51.8%에서 74.6%로 증가하였다.




마을 의제를 해결하는데 마을 주민들의 단합이 잘 될 것이라 생각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포럼 실시 후 긍정적인 응답자의 비율이 53.0%에서 68.7%로 증가했으며, 부정적인 응답자의 비율은 20.4%에서 7.2%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현장 포럼 운영 효과성

전체적으로 마을 주민의 역량 제고에 긍정적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분석 지표인 지식, 기술, 태도의 전 영역에서 고른 긍정적 효과 발생하였다. 이는 포럼 1회 만으로 긍정적 효과가 높아졌다는 해석보다는 현장 포럼을 통해 마을 발전과 사업, 그리고 그 안에서 주민 개개인의 역할과 참여 등 의욕 고취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참여했던 마을도 지속적인 포럼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향후 현장 포럼 운영 시 고려 및 개선 사항

성별, 연령, 학력 등 주민 개개인의 역량 차이를 고려한 수준별 포럼 기획 필요하다. 현장 포럼과 유사한 교육 및 워크숍 등에 참여한 마을 또는 주민들을 사전 조사 후 그 결과를 반영한 포럼 기획이 필요하다. 즉, 포럼 내용의 단계화 필요하다. 또한 현장 포럼의 지속성이 필요한데 포럼을 통해 고취된 마을 발전에 대한 욕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상하반기 또는 분기별 개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을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포럼 기획을 통해 참여도 향상 도모가 필요하며, 마을 자원 조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기존 마을 자원 조사는 주로 환경, 생태, 공간 등 하드웨어적 조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주민 개개인의 역량, 마을 주민들의 특성, 마을의 역사 등 소프트웨어 자원도 조사가 필요하다.



제5장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조직과 운영모델

- 가.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조직개요
- 나.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운영모델

5.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조직과 운영모델

가.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조직개요

1) 마을 역량 진단에 기반한 마을 만들기 추진

마을 만들기 사업의 문제점은 대부분 마을의 역량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마을이 선정되고 사업이 추진되는데 있다. 이로 인해 사업비가 투자된 이후 원활히 진행·관리되지 못하고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마을 역량을 사전에 진단하고 그에 따른 수준별·맞춤형 마을 만들기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가) 마을 역량 진단

마을 역량은 개별 마을들이 지역의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다(김주원, 2012: 107)라고 하였다. 마을 역량 진단은 맞춤형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한 마을의 역량 및 잠재력 정도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역량에 대한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를 바탕으로 진단한다. 역량 진단을 통해 만들어진 마을 유형을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마을 만들기 사업 종류를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김주원(2012)은 마을 역량을 결정짓는 요소를 마을 공동체 역량, 마을 리더 역량, 마을 주민 역량으로 나누고 있으며, 조영재 외(2011)는 자원 역량, 인적 역량, 추진 역량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각각 아래 <표 5-1>, <표 5-2>와 같다.

<표 5-1> 마을 역량 진단 지표 및 내용

지 표	내 용
마을공동체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공동체가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객관적으로 조사 ▶ 마을 일반현황, 자연자원, 경제자원, 역사·문화자원, 공동체자원, 연계자원, 마을 지도, 추진자원 등
마을리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사업에서 핵심주체인 리더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역량과 직무 역량 조사 ▶ 일반적 역량, 사업추진 역량 등
마을주민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주민들이 마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 역량과 마을 사업의 추진 방향과 관련된 기초차료로 삶의 질 수준 진단 ▶ 마을 생활 여건, 마을 경제 활동, 희망 마을사업, 마을사업 추진 관련 사항 등

<표 5-2> 마을 역량 진단 지표 및 내용

지 표	내 용
자원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원 : 농업특화자원, 농촌자원, 자연자원, 관광자원, 전통문화자원, 경관자원, 역사·문화자원, 문화복지프로그램 현황, 주요시설 현황, 지역개발자원현황 등
인적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자원 :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 최근 인구 유입현황, 귀농·귀촌 현황 ▶ 주민 동기부여 및 주민 역량 현황 : 지역리더, 주민 및 리더교육 활동, 주민조직 및 공동체 활동 등 ▶ 마을경제조직 활성화, 인적자원 현황 등
추진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사업 추진현황(단순 지원사업 또는 주민주도사업 추진 여부) ▶ 도농교류 현황 ▶ 농촌관광체험학습 현황 ▶ 마을발전계획 수립 및 주민참여 여부, 마을발전기금 및 마을 행사 현황 등

나) 마을 유형 및 수준 구분

먼저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경험 유무를 통해 일반마을과 색깔 있는 마을로 구분하며, 마을 역량 진단을 통해 색깔 있는 마을의 수준을 1~3단계로 구

분하였다. 또한 색깔 있는 마을의 수준은 추진했던 사업비 규모 및 마을 역량 진단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사업비 규모가 해당 수준에 비해 작더라도 마을 역량이 해당 수준에 상응할 경우 마을 역량을 우선적 기준으로 반영하였다.

〈표 5-3〉 마을 유형 및 수준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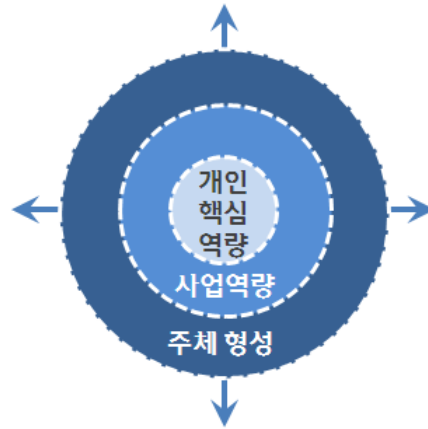
유 형		기 준 ①	기 준 ②
일반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경험 전무 ▶ 마을 만들기 관련 마을 역량 미비 	-
색깔 있는 마을	1단계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경험 유 ▶ 마을 만들기 관련 마을 역량 갖추 	▶ 소규모 마을 만들기 : 1억원 미만
	2단계 마을		▶ 중·대규모 마을 만들기 : 1~10억원
	3단계 마을		▶ 권역규모 마을 만들기 : 10억원 이상

이렇게 구분된 마을 유형 및 수준을 통해 마을 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효과성과 지속성을 갖춘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2) 교육내용 단계화 : 지속 가능한 교육시스템 구축

가) 교육내용 단계화 필요성

2000년대 들어서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된 이후, 역량강화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의 교육프로그램 활동은 급증하였다(김정섭,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불분명하다. 그간 추진된 교육프로그램은 농촌지역개발 정책사업 참여 주체의 역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그림 5-1) 핵심 역량의 형성 단계

농촌지역사회의 역량 측면의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며 근본적으로 단계별 프로그램보다 1회에 그치는 일방적 교육이 많다(조영재 외, 2011: 126).

따라서 1회에 그치는 단기성 교육보다는 일련의 교육과정을 갖춘 지속적·연속적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마을 유형 및 역량 수준에 따른 교육내용 단계화가 필요하며, 각 단계별 목표가 존재해야 한다. 아울러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각 프로그램들 간 관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나)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유형별 교육 프로그램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아래 <표 5-4>와 같이 마을 유형 및 역량 수준에 맞는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일반마을은 마을 만들기 관련 사업 참여 경험이 전무하고 마을 역량 또한 미비한 편이므로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 마을 만들기를 위한 주민 동기 부여, 마을 자원 및 테마 발굴을 통한 마을 의제도출 및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1단계 마을은 전문지식 함양 및 소규모 사업 추진 역량 강화가 필요하므로

관련 분야 전문가 특강 및 자문, 마을 발전 기본 계획(안) 수립, 마을 사업 운영 계획(안) 수립, 사업 추진을 위한 마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관련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2단계 마을은 현장 적용성 강화 및 중·대규모 사업 추진 역량강화가 필요하므로 마을 발전 중·장기 계획(안) 수립 및 검토, 체험 프로그램 및 마을 상품 개발, 홍보 및 마케팅, 지역 네트워크 활용 관련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3단계 마을은 사업의 지속 가능성 강화 및 마을활성화 역량강화가 필요하므로 기존 마을 발전 계획(안) 검토 및 수정, 마을 자립 방안 마련, 마을 축제 만들기, 마을 후원자 만들기 관련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특히, 일반마을 단계뿐만 아니라 색깔 있는 마을 모든 단계에서 사업에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소통 및 갈등관리 관련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또한 색깔 있는 마을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1단계)부터는 지역의 공동체 자원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므로 네트워크 관련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이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나이, 수요, 사업 참여 정도, 교육경험, 학습유형, 학습자세 등을 고려한 대상자 특성과 그들에게 필요한 내용, 학습자를 고려한 교수기법 및 분야별·유형별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표 5-4>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유형별 교육 방향 및 프로그램

유형	방향	교육 프로그램	
일반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동기부여 ▶ 색깔 있는 마을만들기 이해 ▶ 마을 자원 및 테마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설명 ▶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선도마을 우수 사례 발표 ▶ 마을 자원 및 테마 발굴 ▶ 마을 의제 도출 및 종합토론 / 기본 구상(안) 마련 ▶ 의사소통과 갈등관리 	
색깔 있는 마을	1단계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지식 함양 ▶ 소규모 사업 추진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분야 전문가 특강 및 자문 ▶ 마을 발전 기본 계획(안) 수립 ▶ 마을 사업 운영 계획(안) 수립 ▶ 마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지역 네트워크 활용 ▶ 의사소통과 갈등관리
	2단계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적용성 강화 ▶ 중·대규모 사업 추진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발전 중·장기 계획(안) 수립 및 검토 ▶ 체험 프로그램 개발 ▶ 마을 상품 개발 ▶ 홍보 및 마케팅 ▶ 지역 네트워크 활용 ▶ 의사소통과 갈등관리
	3단계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성 강화 ▶ 마을활성화 역량강화 ▶ 권역규모 사업 추진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마을 발전 계획(안) 검토 및 수정 ▶ 지속적인 마을 사업 유치 방안 및 사후관리 ▶ 마을 자립 방안 마련 ▶ 마을 축제 만들기 ▶ 마을 후원자 만들기 ▶ 지역 네트워크 활용 ▶ 의사소통과 갈등관리

3) 현장활동가 전문성 강화 및 조직화

마을만들기 관련 주체는 마을 주민, 현장활동가, 관련 전문가가 있으며 마을 주민의 역량강화뿐만 아니라 현장활동가와 전문가의 역량강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현장활동가는 변화하는 농어촌 환경에 대응하여 색깔 있는 마을 육성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공공분야 전문 인력이다. 현장활동가의 범주는 지자체 색깔 있는 마을 관련 공무원, 농업기술원 및 기술센터 지도직 공무원, 농어촌공사 관련 업무 담당자와 기타 공공성이 높은 농·수협 및 관련 단체의 직원이다. 그 선정 기준은 아래 <표 5-5>와 같다.

<표 5-5> 현장활동가 선정 기준

구 분	역 할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활력창출 관련 사업 팀장 또는 담당자 ▶ 지역 내 마을주민과 친숙하고, 마을 자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직원 ▶ 농어촌 마을 발전 관련 다양한 전문가, 출향인 등과 네트워크가 높은 직원 ▶ 마을 발전을 위한 토론, 현장포럼 등을 통해 마을 발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직원
시·도 및 시·군 담당	▶ 색깔 있는 마을 사업 팀장 또는 담당자, 귀농·귀촌 담당자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담당	▶ 마을 사업·발전 관련 업무 담당 팀장 또는 담당자, 강소농 육성 관련 담당자, 귀농·귀촌 담당자
농어촌공사 담당	▶ 마을·권역 개발 관련 담당자 또는 유경험자

가) 현장활동가의 영역별 역할

현장활동가의 역할로는 농어촌 마을·권역의 마을 리더, 마을 주민에 대한 컨설팅·자문 및 사업 연계 등이 있으며 그 내용은 <표 5-6>과 같다.

〈표 5-6〉 현장활동가의 영역별 역할

영역	역할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사업관련 교육 및 발전계획 수립 지원 ▶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관련 전문가·자문단 연계 지원 ▶ 색깔 있는 마을 육성을 위한 주민 역량 및 마을자원분석 지원 ▶ 마을협의체 구성 지원
현장포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재능기부와 연계한 현장포럼단 구성 ▶ 현장포럼 운영 지원

나) 현장활동가 역량강화 방안

위와 같은 현장활동가의 영역별 역할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워크숍 및 연수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 및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소개
- 현장포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
- 선도마을 사례 및 농촌현장 포럼 우수사례 발표
- 마을 자원조사·발굴 및 주민역량 진단방법 교육 및 실습
- 종합토론 및 의견수렴

현장활동가들 간의 정보 공유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정보 관리 차원에서의 DB 구축이 필요하다.

4) 주민 주도의 현장포럼 기획·운영

가) 주민 주도의 필요성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현장 포럼을 실시하는데 있어 기획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있어야 마을에 적용 가능하고, 현실성을 담보할 수 있다. 현재의 포럼 기획·운영 방식은 마을 주민이 기획·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공무원, 외부 단체나 전문가들이 기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마을 주민

들의 참여도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참여와 함께 현장활동가, 농어업 및 지역개발 전문가, 마을리더, 공무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마을 발전 방안을 강구하는 포럼의 진행이 필요하다.

나) 주민 주도의 현장 포럼 운영 방법

우선 현장 포럼의 기획 단계에서 마을 주민(리더)들이 참여해야 한다. 이는 마을과 주민들이 원하는 포럼의 진행 방향과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의견 수렴과 마을의 현안 과제를 반영할 수 있다. 또한 포럼 진행 과정에서 마을의 리더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를 분다거나, 포럼의 취지에 대한 설명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전반적인 포럼의 내용에 있어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을 기획해야 한다.

5) 주민 참여의 마을 만들기 추진 조직 구성 지원

가) 마을 만들기 추진 조직의 필요성

지금까지의 마을 만들기 관련 사업은 마을 발전 계획 수립 및 사업 실행에 있어서 주민의 동기부여와 당위성이 확보되지 못한 채 주민 주도가 아닌 관 주도로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 주민 스스로가 주도하고 다양한 전문가가 지원하여 마을



(그림 5-2) 마을 만들기 추진 조직

발전계획을 단계적으로 실행하는데서 다른 사업과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마을 주민이 주도하고 전문가, 출향인, 현장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마을 만들기 추진 조직 구축이 필요하다.

나) 추진 조직 구성 및 역할

마을 만들기 추진 조직은 본격적인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대비하기 위하

여 주민들의 취미, 문화, 예술 활동 등의 다양한 계기를 통해 모여서 마을의 미래를 생각해 보는 공동체 모임으로부터 시작한다. 주민의 동기부여와 유도를 위해서 주민 스스로 마을 만들기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마을 전체적으로 이러한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공동체(마을 만들기 동아리)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마을 만들기 추진 조직은 ‘학습’을 통해 리더 및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례연구, 현장포럼 유치, 마을자원분석 및 주민역량 진단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마을 발전 계획을 토대로 소규모 마을사업부터 계획하고 실행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주민 간 갈등관리 등의 노하우를 축적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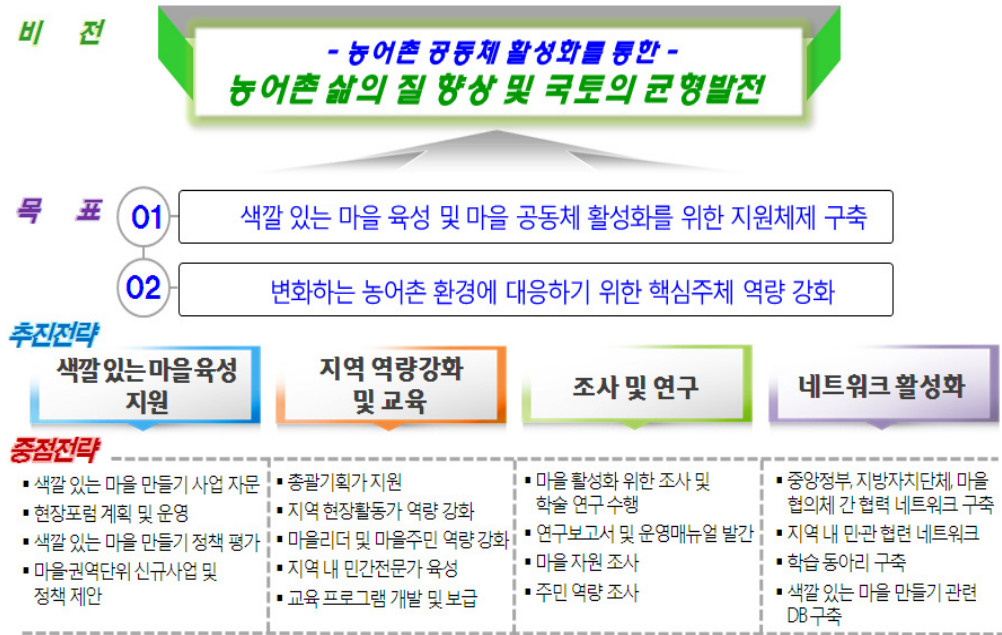
나.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운영모델

1) 센터의 비전 및 목표

농어촌활성화센터는 기존의 농어촌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는 다른 새로운 측면에서 그 기능과 역할이 요구된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농어촌 주민이 소외되지 않고 인적, 물적 자원과 유무형의 자원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운동’의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정책은 어떻게 하면 농어촌 마을을 주민의 자생력의 토대 위에서 특색 있게 발전시켜 소득창출과 마을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것인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농어촌활성화센터는 이에 부합하는 비전과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나갈 시대적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오늘날의 농어촌개발 정책은 기존의 부문별 접근 방식과는 달리 종합적 시각에서 문제 해결 위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활성화센터가 이러한 농어촌개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효율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농어촌활성화센터에서는 농어촌마을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공동체를 형성하고 강화하여, 색깔 있는 마을로 발전해나가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운영을 효율화하며,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통해 마을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쪽에 센터의 지향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장포럼의 시범 운영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농어촌활성화센터의 비전과 목표,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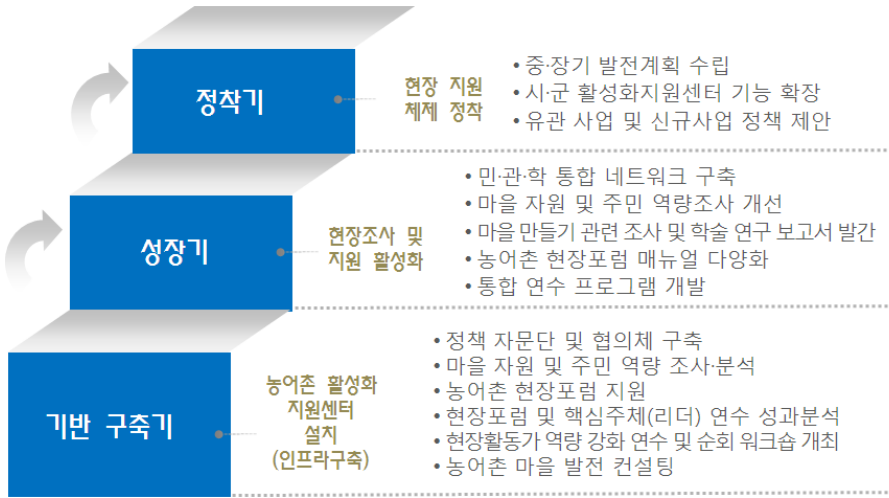


(그림 5-3) 농어촌활성화센터의 비전과 목표, 전략

2) 센터의 단계별 발전 전략

농어촌활성화센터에 대한 운영의 발전 전략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기반구축기에는 농어촌활성화센터를 설치함과 동시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이다. 이 시기에는 센터의 시설, 인력, 장비 등을 확보하는 것과 아울러 농어촌 마을의 사업들에 대한 지도·조언 기구로서 정책자문단(가칭)과 농어촌 마을별 리더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 성장기에는 농어촌마을에 대한 자료수집 및 면밀한 조사·분석의 단계이다. 또한 마을별 현장 포럼을 컨설팅·지원하고, 리더들을 위한 통합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공감대를 점진적으로 형성해 나가야 한다. 이 단계에서 농어촌활성화센터는 실질적인 현장 조사와 지원 등이 활발히 추진되어야 한다. 정착기에는 현장 지원 체계를 정착하는 단계로서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농어촌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편·확장하고, 이전의 역할에 대한 피드백과 아울러 농어촌 마을의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정책적 체계를 확고히 다져야 한다. 또한 농어촌 마을 지원을 위한 자체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그 체계성도 도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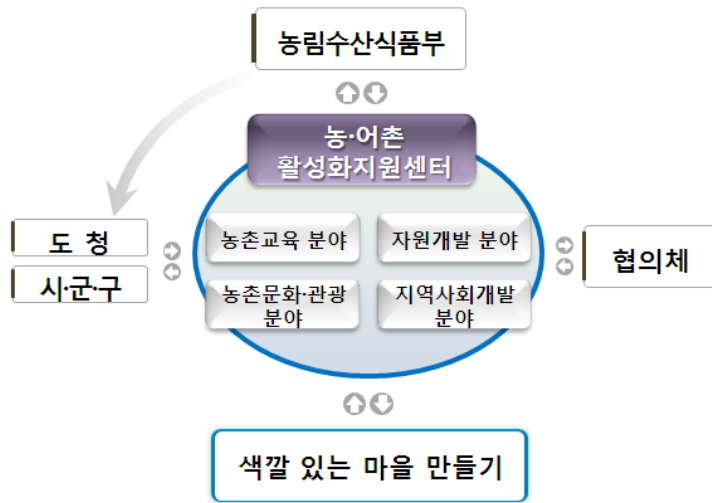


(그림 5-4) 센터의 단계별 발전전략

3) 센터의 운영 체계 및 주요 역할

① 센터의 운영 체계

먼저 농어촌활성화센터는 중앙과 지역, 마을을 이어주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운영 체계도 이에 맞도록 구상되어야 한다. 농어촌활성화센터는 색깔 있는 마을에 대한 전체적인 컨설팅과 지원을 해야 하므로, 마을 발전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확보와 아울러 현장의 의견과 정책의 과급을 위한 네트워크 체제도 구축해야 한다. 물론 농림수산물부, 도청 및 시·군·구와의 연계·협력 체제도 필수적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5) 센터의 운영체계

우선 정책자문단(가칭)을 구성·운영해야 한다. 주로 농어촌 현장에 대한 전문적 지도·조언과 아울러 정책 평가 등에 대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현장 포럼 등에 참여하여 마을을 컨설팅해 주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인원은 10~ 15명 정도로 도청, 학계 농어촌 현장의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구성하는 방식은 정책의 특성, 사업의 내용, 구성인원의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마을 리더 협의체는 각 마을 리더 1명씩으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될 것임. 현실적으로 마을의 리더 협의체 구성이 어렵다면 시·군 단위 또는 권역단위로 협의체를 구성하면 된다. 또 다른 예로 시·군 담당자(지역활동가) 협의체는 각 시·군의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담당자들로서 현장의 의견과 아울러 센터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센터의 기능 및 주요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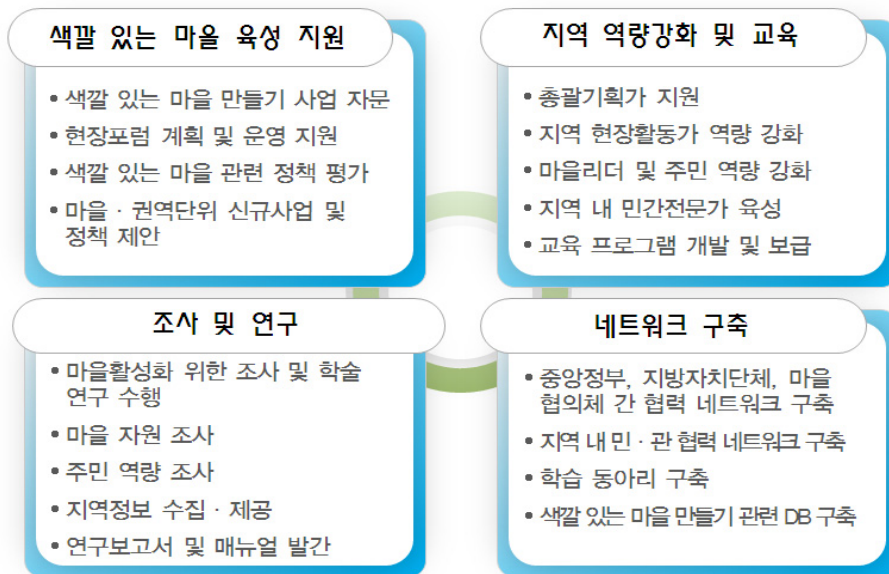
농어촌활성화센터의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다양한 전문가(농림어업, 경영·마케팅, 지역개발, 의료·복지·교육) 풀을 활용하여 농어촌 지역발전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인 인적

자원을 제공하는 Think Tank 역할

- 중앙정부·지자체 네트워크, 지역 내 다양한 관련조직과 정부정책 연계
- 지역 발전과제 발굴 지원 등 지역 주도의 내생적 발전 동력원 기능 수행
- 베이비부머 등 귀농·귀촌 인력 정착을 지원하여 역량 강화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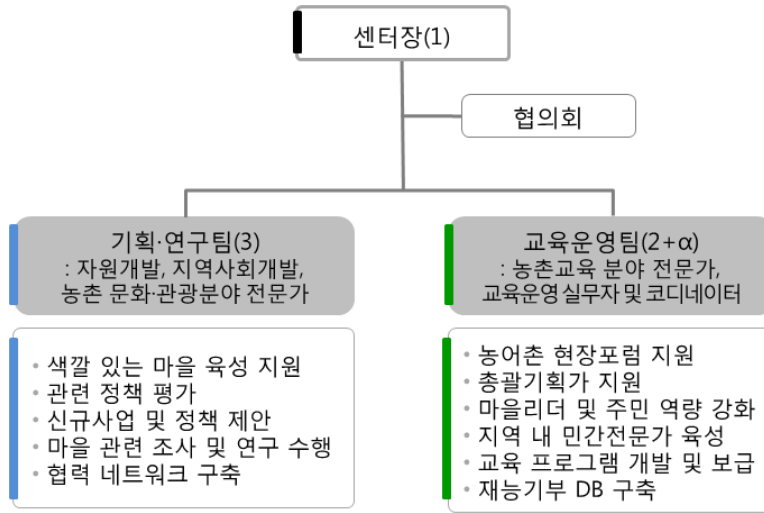
주요 역할은 크게 색깔 있는 마을 육성 지원, 지역 역량 강화 및 교육, 마을 조사 및 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영역화 할 수 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6)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주요 기능 및 역할

4) 센터의 조직 및 인력 구성

농어촌활성화센터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조직과 인력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 기관들과의 차별화된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전문성이 기본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센터의 조직 및 인력 구성은 센터장 1명을 중심으로 기획·연구팀과 교육운영팀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림 5-7)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조직

기획·연구팀은 색깔 있는 마을을 육성·지원하는 업무가 팀의 주 업무가 될 것이다. 그리고 관련 정책의 평가, 신규 사업 및 정책 제안, 마을 관련 조사 및 연구 수행, 협의체 구성·운영 등이 업무가 될 것이다. 인원은 우선 3명으로 시작하며, 자원개발, 지역사회개발, 농촌문화·관광 등 분야별 전공자들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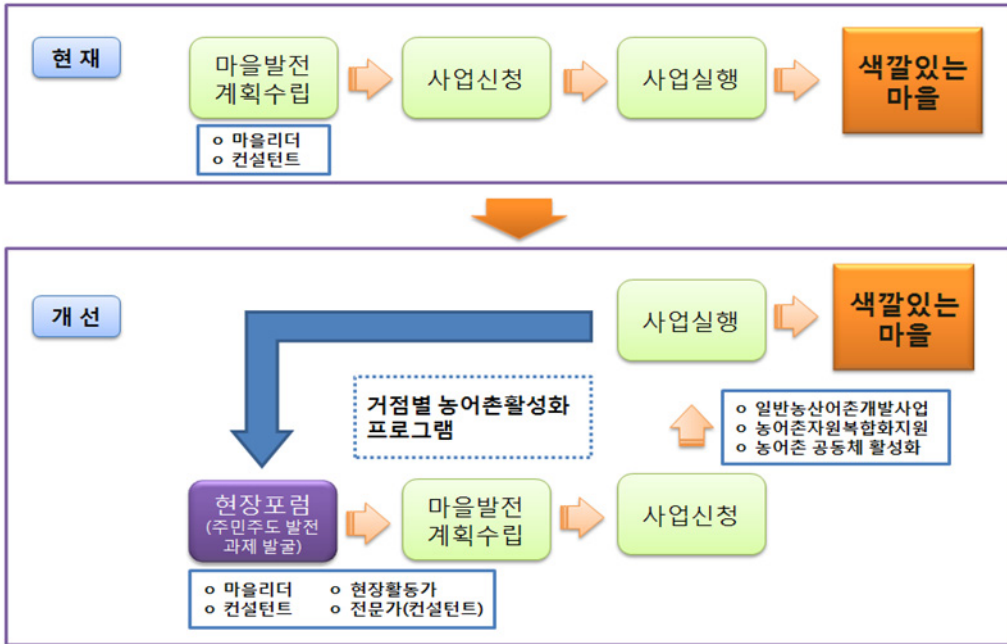
교육운영팀은 현장포럼 지원, 마을 리더 및 주민 역량 강화 연수·워크숍·세미나 등 개최, 지역 내 민간 전문가 육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교육 사업을 주로 담당한다. 특히 교육운영팀은 이전을 마을 개발 사업이 주로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진행되었던 것에서 탈피하여,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의 역량을 운영·지원한다는 차원에서 현장 지향형 센터 운영에 있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담당 인원은 2명 정도로 시작하지만, 점차 교육 사업이 확장되면 그에 맞추어 증원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운영팀에는 주로 사회교육 등 교육전공자들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향후 센터 운영의 효과성이 검증되고, 색깔 있는 마을들이 확대되면 센터의 조직을 기획연구, 교육운영, 사후관리 등으로 팀을 세분화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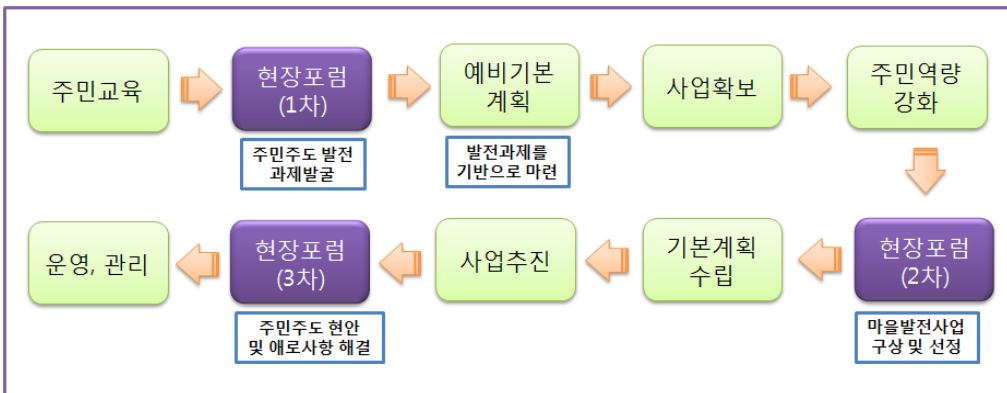
5) 농어촌활성화센터 모델

농어촌활성화센터를 통하여 색깔 있는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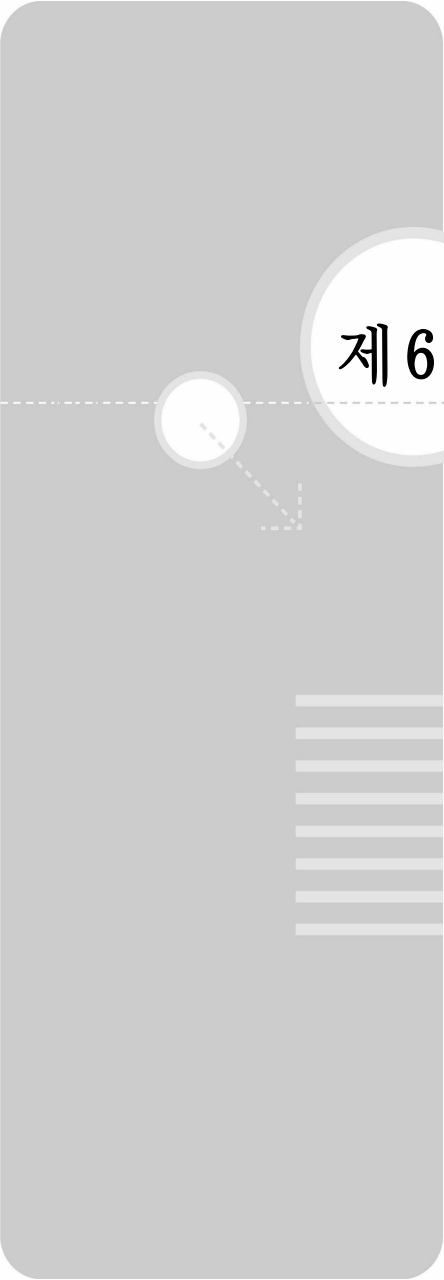
해나가는 방향으로 모델화하여 제시하면 (그림 5-8)과 같다. 농어촌활성화센터를 통하여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단계별로 현장포럼을 운영하는 방안을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그림 5-9)와 같다.



(그림 5-8)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시행체계 개선방향



(그림 5-9)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단계별 현장포럼 운영방안



제 6 장

결론 및 제언

6. 결론 및 제언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11년부터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은 농어촌 마을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발전시켜, 농어촌을 지역민과 도시민이 함께하는 미래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범국민 실천운동이자 종합정책으로 색깔있는 마을 1만개 육성, 농어촌 핵심주체 양성, 농촌마을협의체 및 현장포럼 운영, 도시와 농어촌간 상생기반 구축 등 4가지 주요 실천과제를 가지고 있다.

그 동안의 우리나라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정부주도로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의 특색이 사라지고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낮아 자생적 발전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소득과 경제성장 위주의 개발로 농어촌지역 마을공동체가 완화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상향식 개발방식을 도입하여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주민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역량부족과 마을공동체 활력저하 등의 문제로 사업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어촌활성화센터는 미국 농촌지도사업과 영국의 농촌개발프로그램을 모델로 하여 상향식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역주민 및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부족과 지역주민의 참여도 부족, 마을공동체 활력저하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농어촌지역 실정에 맞는 농어촌활성화센터의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적용성을 검토하고자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주요 목적사업인 현장포럼 시범운영을 통해 지역주민 역량변화와 포럼운영 방법, 진행과제, 마을발전 단계별 포럼운영방안 등을 검토하였으며, 연구과제의 실용화를 위해 연구진행과 함께 농어촌활성화센터 운영모델을 발굴하고 소요예산 검토, 현장포럼 시범운영을 통한 성과도출 등을 실시하여 농어촌지역개발 신규 정책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도록 현장포럼 등 농어촌활성화센터 운영체계를 제시하였다.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별 특색을 갖춘 마을발전과 농어촌 핵심주체 양성, 지역(권역)단위 공간중심의 발전기반 구축 등을 위해서는 지역발전

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성을 가진 지역별 대학(연구기관, 농어촌공사), 지자체, 중앙정부, 관련기관 등이 유기적인 협력지원체계를 갖추어 지역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농어촌활성화센터와 같은 지원체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본 연구결과를 활용한 농어촌활성화센터 운영으로 농어촌지역개발 정책이 하드웨어 위주의 개발사업 중심에서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활력증진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농어촌활성화센터가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의 확대 시행과 함께 사업 효과 분석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를 병행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도약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도 단위에서 현장포럼 위주의 주민역량강화 교육과 같은 활성화지원센터의 일부 기능에 국한하여 시범사업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센터 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 단위와 같은 광역 지방 단위는 물론, 시·군 단위와 같은 기초 지방 단위 및 전국을 아우르는 중앙 단위의 센터 조직을 하루속히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화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농어촌활성화센터의 조직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의 활성화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승구. 2008. 농촌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농촌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경운대학교 새마을아카데미 연구원.
- 김정섭 외 2인. 2009. 농촌개발사업 참여 주체의 역량 강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원. 2010. 농촌지역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활센터의 중간 지원조직 역할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수산식품부. 2012. 2012년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운동 제2차 현장활동가 워크숍.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책과.
- 서울광역자활센터(www.sjahwal.or.kr).
- 송미령·권인혜. 2011. 포괄보조금 제도 운영의 실태와 개선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상봉. 1995. “농촌구조개선을 위한 농촌지도사업의 역할”.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2권, 제1호. pp. 71-79.
- 임상봉 외. 2009. 포괄보조금제도 시행에 따른 농어촌 지역종합개발 평가 기법 개발.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 조영재·이관률·윤정미·조은정·이영옥·오형은. 2011. 충청남도 희망 농어촌 마을만들기의 추진모형 및 실천전략. 충남발전연구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www.jahwal.or.kr).
- 황연수. 2006. “새마을운동의 재조명”. 농업사연구. 제5권 2호. pp. 17-53.
- Adams, Bruce. 1995. “Building Healthy Communities”. Edited by Tonya M. Yoder. Leadership Collaboration Series. Pew Partnership for Civic Change.
- Amin, A. and N. Thrift. 1994. Living in the Global. in: Amin, A. N. Thrift (eds.) (1994) Globalization, Institutions, and Regional Development in Europe Oxford University Press.

- Bassand, M., E. A. Brugger, J. M. Bryden, J. Friedman, B. Stuchkey. 1986. *Self-Reliant Development in Europe – Theory, Problems, Actions*. Gower, Brookfield, Vermont.
- Brugger, E. A. 1986. *Endogenous Development: A Concept Between Utopia and Reality*. in: Bassand, M. et al. (1986) *Self-Reliant Development in Europe – Theory, Problems, Actions*. Gower, Brookfield, Vermont.
- Carnegie UK Trust. 2011. *Exploring Community Resilience in Times of Rapid Change*. Fiery Spirits Community of Practice.
- Centre for Community Enterprise. 2000. *The Community Resilience Manual: A Resource for Rural Recovery & Renewal*. British Columbia: Centre for Community Enterprise.
- Cooke, P. and K. Morgan. 1993. *The Network Paradigm: New Departures in Corporate and Regional Development*. *Society and Space*. Volume II. pp. 543-564.
- Eardley, Alison and Phillip Vincent. 2011. *Making the Most of Community Led Planning: A Best Practice Guide for Local Authorities*. ACRE.
- European Evaluation Network for Rural Development and European commission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2010. *Working Paper on the Evaluation of National Rural Network Programmes*.
- Flora, C. and Flora J. 1988.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ial Communities in a Times of Crisis”. *North Central Regional Center of Rural Development*. 12(2). pp. 1-4.
- Giessen, Lukas and Michael Bocher. 2008.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Policy in Germany and its Potentials for new Modes of Forest Governance*. Institute of Forest,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 Policy.

- Hartwich, Frank and Urs Scheidegger. 2010. "Fostering Innovation Networks: the Missing Piece in Rural Development?" *Rural Development News* 1. pp. 70-75.
- Kenyon, Peter. 2012. 'Rural revitalisation and the need to create sustainable, healthy and resilient communities', (http://www.bankofideas.com.au/Downloads/Rural_Revitalisation.pdf).
- Murdoch, J. 2000. Networks – A New Paradigm of Rural Development? *Journal of Rural Studies*. 16. pp. 407-419.
- Nemes, Gusztav. 2005.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The Concept and Its Operation*. Budapest: Magyar Tudományos Akademia Közgazdasagtudományi Intézet.
- Norris, Tyler and Mary Pittman. 2000. "The Healthy Communities Movement and the Coalition for Healthier Cities and Communities". *Public Health Reports*. Vol. 115. pp. 118-124.
- OECD. 2006. *The New Rural Paradigm: Policies and Governance*. Paris: OECD.
- OECD. 2009. *OECD Rural Policy Reviews: CHINA*. OECD.
- Permanent 2011. *Secretariat of the Alpine Convention. Sustainable Rural Development and Innovation*. Innsbruck: Permanent Secretariat of the Alpine Convention.
- Picchi, A. 1994. The Rel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Powers As Context for Endogenous Development, in: Van der Ploeg, D. J. and Long, A. (eds).
- Ray, C. 1997. Towards a Theory of the Dialectic of Rural Development . *Sociologia Ruralis*. 27 (3). pp. 345-362.
- Sajja, Priti Srinivas and Rajendra Akerkar. 2010. "Knowledge-Based Systems for Development." *Advanced Knowledge Based Systems: Model, Applications & Research*. Eds. Sajja &

Akerkar. Vol. . pp. 1-11.

Shortall, S. and M. Shucksmith. 1998.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Issues Arising from the Scottish Experience European
Planning Studies. Vol. 6 (1). pp. 73-88.

Xiaoyong Zhang, Corne Kempenaar. 2009. Agricultural Extension
System in China.

<부록>

농어촌 현장 포럼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조사

안녕하십니까?

공주대학교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현장 포럼을 지원하고 그 효과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심성의껏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 의

Tel : 공주대학교 (041-850-6011~2)

E-mail : jjongsung@kongju.ac.kr

※ 아래 문항들은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마을 발전에 대한 이해, 마을 자원에 대한 이해,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 표	① 매우 그려 함	② 그려 함	③ 보통	④ 그렇 지 않음	⑤ 전혀 그렇지 않음
1. 나는 우리 마을의 현황(인구, 가구수, 면적, 행정 구역, 소득수준, 소득작물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2. 나는 우리 마을의 의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3. 나는 우리 마을의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을 잘 알고 있다.					
4. 나는 우리 마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					
5. 나는 우리 마을의 자연자원을 잘 알고 있다. ※ 자연자원 : 기후·토양, 광물, 수자원, 동물·식물, 자연경관 등					

6. 나는 우리 마을의 경제자원을 잘 알고 있다. ※ 경제자원 : 농·림·축·수산물, 음식 및 식품, 특산물, 농·어업시설, 관광·휴양시설, 산업시설 등					
7. 나는 우리 마을의 역사·문화자원을 잘 알고 있다. ※ 역사·문화자원 : 유형역사문화, 무형역사문화(역사문화/인적), 농업경관, 주거경관, 문화경관 등					
8. 나는 우리 마을의 공동체자원을 잘 알고 있다. ※ 공동체자원 : 교육, 복지·의료, 문화·여가, 마을조직·공동체 등					
9. 나는 우리 마을의 주변 연계자원을 잘 알고 있다. ※ 주변연계자원 : 역사문화, 숙박, 스포츠·오락, 휴양문화, 축제행사, 먹거리 등					
10. 나는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알고 있다.					
11. 나는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한 마을의 경제적 효과를 알고 있다.					
12. 나는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는 우수 마을 사례를 알고 있다.					
13. 나는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있어 나의 역할을 잘 알고 있다.					
14. 나는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의사소통방법을 잘 알고 있다.					

※ 아래 문항들은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마을 자원 활용 능력,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수행 능력,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능력을 묻는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 표	① 매우 그려 함	② 그려 함	③ 보통	④ 그렇 지 않음	⑤ 전혀 그렇 지 않음
15. 나는 마을 회의에 있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16. 나는 마을 사업과 관련된 여러 사항에 대해 의사결정할 수 있다.					
17. 나는 마을 회의에서 갈등상황이 생겼을 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18. 나는 마을 발전 방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19. 나는 우리 마을의 자연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자연자원 : 기후·토양, 광물, 수자원, 동물·식물, 자연경관					
20. 나는 우리 마을의 경제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경제자원 : 농·림·축·수산물, 음식 및 식품, 특산물, 농·어업시설, 관광·휴양시설, 산업시설 등					
21. 나는 우리 마을의 역사·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역사·문화자원 : 유형역사문화, 무형역사문화(역사문화/인적), 농업경관, 주거경관, 문화경관 등					
22. 나는 우리 마을의 공동체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공동체자원 : 교육, 복지·의료, 문화·여가, 마을조직·공동체 등					
23. 나는 우리 마을의 주변 연계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주변연계자원 : 역사문화, 숙박, 스포츠·오락, 휴양문화, 축제행사, 먹거리 등					
24. 나는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25. 나는 우리 마을의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브랜드 및 테마를 설정할 수 있다.					
26. 나는 우리 마을이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외부에 홍보할 수 있다.					
27. 나는 우리 마을에 방문하는 고객의 요구에 대해 대응할 수 있다.					

※ 아래 문항들은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마을 발전 가능성,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도, 마을 의제 해결 가능성을 묻는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 표	① 매우 그려 함	② 그려 함	③ 보통	④ 그렇 지 않음	⑤ 전혀 그렇지 않음
28. 나는 우리 마을의 발전을 위해 활용할 자원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29. 나는 우리 마을이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30. 나는 마을 사업을 통해 우리 마을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31. 나는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우리 마을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다고 생각한다.					
32. 나는 우리 마을 주민들이 외부 방문자에 대한 서비스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33. 나는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34. 나는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포럼 및 워크숍 등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35. 나는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한 공동 조직에 참여하고자 한다.					
36. 나는 자발적인 마을 리더가 되어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솔선수범하고자 한다.					
37. 나는 우리 마을의 의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민주적인 태도로 임하고자 한다.					
38. 나는 우리 마을의 의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지속적으로 학습할 의향이 있다.					
39. 나는 우리 마을의 의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40. 나는 우리 마을의 의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마을 주민들의 단합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농어촌 현장포럼에 대해 어떠한 부분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처리문항

A.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 ① 남자

_____ ② 여자

B. 귀하의 출생년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19()년

C.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 ① 중졸이하
졸업

_____ ② 고등학교 중퇴 또는

_____ ③ 전문대학 중퇴 또는 졸업

_____ ④ 대학교 중퇴 또는 졸

_____ ⑤ 대학원 이상

D. 귀하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_____ ① 농·어업 종사자

_____ ② 자영업자

_____ ③ 구직자

_____ ④ 주부

_____ ⑤ 기타()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분야별 연구 참여내역

연구항목	한국농어촌공사		위촉연구	
	부 서 명	성명	기 관 명	성명
1장	농어촌연구원	임상봉 심고은	강원대학교	김기성 송운강 박남원 우원희 양병찬 배성의 정남수 전광수 장우석 최종성
2장	농어촌연구원	임상봉 박윤호 공병수		
3장	농어촌연구원	임상봉 심고은 공병수 이 영		
4장	농어촌연구원	임상봉	공주대학교	
5장	농어촌연구원	임상봉 공병수 심고은		
6장	농어촌연구원	임상봉		

주 의

1. 이 보고서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발 행 처

연구과제명 : 농어촌활성화센터의 모델 정립 연구	
발 행 일	2012. 12
발 행 인	정 해 창
발 행 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주 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해안로 391번지 전 화 031 - 400 - 1700 FAX 031 - 409 - 6055
■ 이 책의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단, 이 책의 출처를 명시하면 인용이 가능합니다.	